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석사학위논문

한국 속담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나 라

한국 속담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

A Study on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s
in Korean Proverbs

2018년 2월 23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나 라

한국 속담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 연구

지도교수 강희숙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이 나 라

이나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상원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최영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강희숙 (인)

2017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1
1.2. 연구 대상 및 방법	2
1.3. 선행 연구 검토	3
2. 이론적 배경	14
2.1. 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념	14
2.2.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16
2.3. 속담의 개념 및 특징	20
3. 한국 속담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및 특징	23
3.1. 성차별	23
3.2. 장애 차별	29
3.3. 지역 차별	35
3.4. 직업 차별	38
3.5. 종교 차별	39
3.6. 외모 차별	41
3.7. 계층 차별	43
3.8. 나이 차별	45

4. 한국 속담의 차별적 언어 표현과 전통적 세계관	48
5. 결론	54
<참고문헌 및 사이트>	57
<부록 1> 성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60
<부록 2> 장애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82
<부록 3> 지역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05
<부록 4> 직업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08
<부록 5> 종교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13
<부록 6> 외모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16
<부록 7> 계층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20
<부록 8> 나이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29

<표 목 차>

<표 1> 기존 연구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념	14
<표 2>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조태린 2006)	16
<표 3>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과 차별성의 요소(박혜경 2009)	17
<표 4>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이정복 2014)	18
<표 5> 기존 연구에 나타난 ‘속담’의 개념	21
<표 6> 성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29
<표 7> 장애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34
<표 8> 지역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37
<표 9> 종교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41
<표 10> 외모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42
<표 11> 계층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45
<표 12> 나이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46
<표 13>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별 분포	48

ABSTRACT

A Study on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s in Korean Proverbs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Lee Nara

Advisor: Prof. Gang Hui-suk, Ph.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ategorize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s in Korean proverbs into types, analyze them quantitatively and verify the state. The main source material on which this study is based can be found in the 《Korean Language Proverbs Dictionary》 written by Jung Jong Jin(2006). First, we categorize the language expressions in Korean proverbs into 8 discriminatory types: discrimination in gender, disability, region, occupation, religion, appearance, social hierarchy, and age. Then we examine some certain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s which was frequently mentioned, their influence on the language consciousness of people and Koreans' traditional views of the world by analogy. Abstracts of the content discussed in this study shall be as follows.

In chapter 1, we describe purpose, object, method of the research and previous studies.

In chapter 2, we examine definitions and distinctions of the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s and proverbs through dictionary and previous researches.

In chapter 3, based on 《Korean Language Proverbs Dictionary》, we classify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s-related proverbs in terms of 8 types. After comparing them quantitatively, we examine the distinctions of each category.

In chapter 4, we describe Koreans' traditional views of the world which can be

analogized through certain Korean proverbs expressed in the chapter 3.

In chapter 5, we summarize the contents of the discussion as stated above and present follow-up research.

Through this process of observation, we have discerned a critical mass of Korean proverbs that refer to discriminatory language expressions. These expressions of proverbs related to language life of the public have been quite influential on their perception. We have to be aware of discriminatory expression issue and required conscious effort to avoid using the expressions because the negative perception and prejudice can be fixed on minorities and second-class citizens. In addition, more research must be done about other discriminatory expressions including disability and gender. Steady interest about these expressions and efforts to improve the state will be needed.

1. 서론

1.1. 연구 목적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가 같지 않고, 자라 온 환경이 다르며, 삶의 방식 또한 서로 다르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한 다름에 대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편함, 거부감, 비하 의식을 자주 표출한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 또는 국가 내의 대등한 구성원임을 인정한다면, 차별(差別) 행위가 일어나거나 그러한 의도가 반영된 언어 표현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인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럴 만큼 모두가 충분히 도덕적이지도 않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한정된 기회와 재화 앞에서 과도한 경쟁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차별 행위가 더 쉽게 일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사회 내부의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자신의 차별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그에 대한 비판 의식조차 없이 재미삼아 다른 사람들의 그런 행위를 따라하기도 한다. 그러한 차별 행위에 핵심적으로 동원되는 수단의 하나가 바로 차별 언어, 차별 표현이다(이정복 2014: 15~16).

차별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도 꽤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으며, 한국어 안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차별 표현이 나타나는 여러 분야 가운데 본 연구는 ‘속담’이라는 언어 표현에 나타나는 차별 표현의 양상을 다루고자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을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민중의 언어생활에서 가깝고도 쉽게 사용되고 있는 속담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차별적 언어 표현들이 많이 발견된다. 가령 속담에는 전통적으로 가부장 사회였던 탓에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과 관련된 것이 남성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신체적 결함이나 출생 및 출신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도 나타난다. 이외에도 많은 차별적 언어 표현이 있는데 이러한 표현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인식 없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차별적 언어 표현을 ‘속담’이라는 언어 표현의 제한된 범위에서 유형별로 분류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실태를 확인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속담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을 하나의 유형에 한정하여 살펴봤지만 본고

에서는 차별 유형을 여덟 가지로 분류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어떠한 차별적 언어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가와 함께 차별적 언어 표현이 언중의 언어 의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 속담의 차별적 언어 표현에 나타나는 전통사회 한국인들의 사고 방식, 즉 전통적인 세계관까지 파악하기로 하겠다.

1.2. 연구 대상 및 방법

본고에서는 한국 속담 내 차별적 언어 표현을 추출하여 계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의 연구 대상 자료인 속담사전은 정종진(2006)의 《한국의 속담 대사전》이다. 이 사전은 2107쪽에 달하는, 다른 어떤 사전보다도 많은 분량의 속담과 더불어 각 속담이 쓰이는 용례를 문학작품에서 찾아 그 실제 쓰임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한편, 같은 의미의 속담이 다른 표현으로 쓰이는 사례를 제시하여 더 폭넓은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연구 방법은 정종진(2006)의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이 쓰인 속담을 추출하여 차별의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로 한다. 이와 더불어 언중의 언어 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전통적인 세계관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분류 기준으로는 이정복(2014)의 분류를 참조하고자 한다. 조태린(2006)에서도 차별적 언어 표현을 ‘성’, ‘신체’, ‘인종·국적·지역’, ‘직업·사회’, ‘객관성’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지만, 이정복(2014)은 ‘성차별’, ‘인종 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기타 차별’의 일곱 가지로, 조태린(2006)보다는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기타 차별’은 ‘계층 차별’, ‘나이 차별’, ‘외모 차별’, ‘성소수자 차별’로 다시 세분하였다. 그러나 속담에는 ‘인종 차별’ 표현과, ‘기타 차별’ 중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이 두 차별 표현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따라서 본고에서 다룬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은 ‘성차별’, ‘장애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외모 차별’, ‘계층 차별’, ‘나이 차별’ 등 여덟 가지이다.

1.3. 선행연구 검토

본고의 연구 주제가 차별적 언어 표현의 양상을 속담에서 살펴보는 것인 만큼, 먼저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본고의 차별적 언어 표현을 유형적으로 분류하는 데에 기준으로 삼을 이정복(2014)의 유형 분류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비교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후 속담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 및 기능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1.3.1.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

한국어 연구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관심은 아직 넓게 퍼져 나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연구 성과도 많지 않다. 차별적 언어 표현 가운데서 성차별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주로 석사학위 논문에서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이정복: 61). 한편 인종, 지역, 종교, 장애, 직업, 계층 차별 등 성차별 외의 차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전반적인 면에 관심을 둔 연구 성과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로 한다.

조태린(2006)에서는 신문, 방송, 인터넷 언론에서의 차별적이고 비객관적인 언어 표현을 조사 및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크게 성, 신체, 인종·국적·지역, 직업·사회, 객관성으로 조사 이유를 분류하고 각각 세부 내용으로 나누어 그 예들을 뒷부분에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한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라는 사업의 첫 번째 결과물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러한 표현들이 언중의 인식에도 영향을 미쳐 원활한 의사소통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국립국어원·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2009)에서는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실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차별 표현을 다루었다. 짤막한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되어 차별 표현의 문제점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한 대체 표현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박혜경(2009)에서는 언어 이데올로기와 비판적 국어인식에 대한 고찰을 통해 언어가

지니는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의 의의를 확인하였다. 차별적 언어 표현을 “한 사회의 개인 또는 특정 집단과 그에 관련한 사물 및 현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 즉 편견과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구·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으로 개념화하고 ‘성차별적 표현, 신체적 특성 차별적 표현, 지역·국적 및 인종 차별적 표현, 직업 및 지위 차별적 표현’으로 유형화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 언어와 학생 언어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이 빈번하게 쓰인다는 것을 밝혔다. 차별적 언어 표현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원리를 언어 내적 양상과 외적 양상으로 나누어 제시하였고, 앞서 말한 것들을 토대로 ‘학습자 경험 중심의 원리’, ‘통합 중심의 원리’, ‘부정적 학습 효과 최소화 원리’라는 바람직한 언어 태도를 위한 교육 설계의 원리를 선정하였다.

박동근(2010)에서는 언어 차별에 대한 인식과 연구 실태를 살펴보면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공공언어(일간지)에 나타나는 차별적 표현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성차별, 인종 차별에 대한 인식은 높았으나 장애인 차별, 사회적 가치 판단에 대한 차별 인식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현(2011)은 차별과 편견에 관련된 말들을 살핌으로써 우리 사회의 모습을 들여다 보고 있다. 크게 ‘약자의 그늘’, ‘여성의 그늘’, ‘가정의 그늘’, ‘사회의 그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약자의 그늘’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초점을 맞추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혼혈인, 동성애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등에 관한 말들을 다루고, ‘여성의 그늘’에서는 여성과 관련된 차별적인 말에 주목한다. ‘가정의 그늘’에서는 결혼을 강요하는 말들, 가정폭력을 감추는 말들, 또는 임신에 관련된 말들을 다루고, 마지막 ‘사회의 그늘’에서는 호칭, 스포츠와 전쟁, 집단주의 등의 키워드를 통해 한국 사회의 모순적인 모습들을 살피고 있다.

조태린(2011)에서는 ‘서로 같지 않고 다른 정도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차이’, ‘그러한 차이를 이유로 특정 대상을 우대하거나 배제 또는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차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 2006년부터 국립국어원에서 추진된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를 바탕으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을 살펴보았다. 차별적 언어 표현은 사회 갈등 요소로 기능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 말하는 이의 의도와 듣는 이의 인식이 어떠한가에 따라 공개형, 발신형, 수신형, 은폐형¹⁾ 네 가지

1) ‘공개형’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차별적 언어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차별적이라고 인정하여 공인되다시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발신형’은 말하는 이는 차별의 의도를

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언어 표현 중 개선 노력이 두드러진 성차별적 언어 표현과 장애인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 다방면에서 사회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정복(2014)에서는 차별 언어를,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 표현.” 이라고 새롭게 정의하였다. 차별 유형을 성차별, 인종 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기타 차별 7가지로 나누어 각각 사례를 제시하고 이러한 차별 표현들이 언어 사용에 있어서 어떤 문제들을 발생시키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정부, 언론 및 사회, 개인 차원에서 각각 노력해야 할 점을 제시하고 있다.

김수아(2017)에서는 혐오, 차별 표현의 문제를 어떤 특정 집단의 문제적 행동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보았다. 한국에서는 차별 표현보다는 혐오 표현이 좀 더 널리 사용되어 왔다는 점에서 혐오 표현을 주로 다루었으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나타나는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러한 차별, 혐오 표현에 대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구조적 차원에서의 개선 노력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박지원(2017)에서는 혐오 표현을 형사적 제재로 한정하여 영국, 캐나다, 독일,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의 혐오 표현의 규제 여부 및 그 방식에 대해 검토하였다. 혐오 표현을 우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생각하며 혐오 표현에 대한 관련 입법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정복(2017)에서는 혐오, 차별 표현의 대상을 소수자 집단에 한정된 것은 언어 사실에 맞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차별 표현의 유형은 이정복(2014)를 따라 7가지로 유형화하여 국어사전에 실린 기존의 차별 표현, 최근 젊은 누리꾼들이 사회적 소통망에서 만들어 쓰는 차별 표현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다.

제민경(2017)에서는 차별 표현을 교육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 차별 표현의 교육은 단순히 쓰지 말라는 ‘권고’가 아닌, 차별 양상을 드러내 인식의 차이를 ‘논

가지고 있으나 듣는 이는 그러한 의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않으려고 하는 언어 표현이다. ‘수신형’은 말하는 이는 의도하거나 인식하지 못한 채 사용하지만 듣는 이는 차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언어 표현이다. ‘은폐형’은 말하는 이나 듣는 이 모두가 차별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언어 표현이다(조태린 2011: 398-399).

쟁’적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 ‘차별 표현’이라는 명명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여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언어’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차별 표현이 쓰이는 단어, 구, 문장에 대한 접근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여 텍스트 안에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3.2.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및 비교 연구

이정복(2014)에서는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을 성차별, 인종 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기타 차별 총 일곱 가지로 나누었는데, 먼저 성차별 관련 연구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제시 순서는 각 유형에 대한 연구를 먼저 제시하고 그다음 해당되는 유형에 한해 비교 연구를 제시하도록 한다.

윤운영(1997)에서는 성(性)차별 언어를 “한 성(性)의 어떤 행위들을, 다른 성(性)의 같은 행위들과 관련하여 특징짓고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언어.”로 정의하였다. 또 언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을 여성을 칭하는 성차별적 언어, 여성의 역할과 공간을 규정하는 표현, 여성을 공적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표현, 여성을 비하시키는 표현, 여성에게 요구되는 여성적 표현 등 총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 각각 사례들과 함께 설명하였다. 이러한 차별적 표현의 개선을 위해 여성들의 실제 삶에서 언어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에 대한 가치, 성차별적 언어태도 전반에 걸친 통합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강성영(2002)에서는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성차별주의를 각각 살펴보면서 논의를 시작한다. 프랑스에서 성차별주의는 기독교의 교리를 편향적으로 해석해온 일련의 결과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의 성차별주의는 대체로 유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또 양국의 속담 속의 성차별 요소를 분류하기 위해 성차별주의의 두 여성관, 즉 ‘여성의 종속적, 비하적 존재 양상’과 ‘여성의 부정적 인성’을 기본 변인으로 삼아 그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송하일(2007)에서는 “남녀 언어의 차이는 생득적인 부분으로 인한 성차이와 가부장제의 사회구조 속에서 한쪽 성(性)보다 우월하다는 관념을 갖는 성차별어로 구분된다.”라고 하였다. 언어 변화의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 성별에 따른 언어, 성별어 또는 성별방언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었다. 성별어의 발생 원인을 생득적인 원인과 사회문화적 원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성별어에 대한 특징을 음성·음운적, 어휘적, 통

사·화용적인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여성 차별 표현과 남성 차별 표현에 대해 주제별로 분류하였다. 교육과정에서의 성차별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최근 여성의 취업률 증가, 사회 참여의 확대와 같은 변화가 교과서에 제대로 수용되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성별에 따른 언어’라는 주제로 교수 학습 지도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전에 교사가 먼저 올바른 양성평등 교육관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정복(2007)은 국어사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성차별 언어의 실태를 자세히 분석한 연구이다. 사전에서 올림말, 뜻풀이, 용례에서 나타나는 성차별 표현을 각각 사례를 들어 분석한 후 통계적 방법을 통해 용례와 관련된 성차별 표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차별 표현의 내용으로는 여성을 배제하기, 아내를 남편에 종속시키기,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역할에 묶어두기,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기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여 자료를 분석 및 해석하였다. 이러한 성차별 표현의 발생 원인으로는 집필자의 의식성, 역사적 배경, 사회구조적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국어사전의 편찬 또는 수정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성차별 언어에 대한 사전 집필자 또는 편찬자의 문제 인식과 해결의지, 둘째 사전 편찬에서 문학 작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자세, 셋째 국어 정책의 관점에서 성차별적 올림말에 대한 언어 계획적 노력과 그러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진(2008)에서는 성차별을 “생물학적인 성(性)을 기초로, 타고난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로 남녀(男女) 간에 우열의 가치를 부여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속담과 일본 속담에 나타나는 여성차별 표현을 내면·외면적인 측면, 성격적인 측면,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누었다. 다시 내면·외면적인 측면은 지적, 외모, 상품화, 정숙·정절 부분으로, 성격적인 측면은 질투, 수다, 변덕, 근성 부분으로, 관계적인 측면은 딸, 아내, 고부, 첩 부분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양국의 속담 대부분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이었다. 속담에서만만이 아니라 현재에도 아직까지 차별적인 언어, 차별적인 대우가 존재하고 있는데 남녀가 아닌 인간적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 그러한 상황도 변화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기월(2013)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여성 차별과 관련된 속담을 대상으로 차별 유형별로 분류하고, 속담 속의 여성 차별적 요소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속담을 “한 민족이 오랜 생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나, 민중이 삶의 과정에서 겪은 생각과 태도를 담고 있는 언어 표현.”이라고 정의하며 간결성, 다양한 수사법의 이용, 교훈

성, 풍자성, 향토성, 사회성을 속담의 특징으로 들고 있다. 여성 차별 속담의 유형은 선행연구인 이정복(2007)의 분류를 참조하여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기,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 역할에 묶어두기, 아내를 남편에 종속시키기,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기의 네 가지로 나뉘었다. 인터넷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제시하여 차별적인 언어, 차별적인 대우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밝혔고, 이와 더불어 한·중 여성 차별 속담의 공통점과 차이점까지 살펴보았다.

인종 차별에 대한 연구 성과들로는 이정복(2009가)와 박호관, 이정복(2012)가 있다.

이정복(2009가)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인종 차별 표현의 유형을 ‘차별 대상’과 ‘언어 형식’ 두 가지 차원에서 분류한다. ‘차별 대상’ 면에서는 특정 민족이나 국민을 차별하기, 특정 인종을 차별하기, 혼혈인을 차별하기 세 가지로 나누었고, ‘언어 형식’ 면에서는 어휘, 구, 문장 등의 하위 항목으로 나누었다. 쓰임 부분에서는 언론, 인터넷 댓글 영역으로 구별해서 사례들을 살펴보았으며, 인종차별적 언어문화의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 언론, 개인 차원의 노력이 모두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박호관, 이정복(2012)에서는 단일민족주의라는 강한 배타성이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 표현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인터넷, 영화, 문학 작품 등 여러 사례들과 설문조사 등을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보았다. 어휘 선택, 구와 문장 구성, 담화나 텍스트 맥락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특성을 언어 차별의 원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원인은 인종(피부색)에 따른 차별 표현, 단일민족 국가의 문화적 배타성에 따른 차별 표현, 출신 국가의 경제력(자본)과 위상에 따른 차별 표현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해석하였다. 또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인식하고 소통의 중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한편 장애 차별에 대한 연구는 심홍식(2002), 김창수(2007), 이정복(2009나), 임철용, 이길용(2010), 이길용(2011), 주도(2015) 등으로 인종 차별에 대한 연구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심홍식(2002)에서는 속담에 대해 전반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속담사전의 장애 관련 속담 중 신체장애에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속담의 기능적 측면으로는 교화, 연민, 경멸, 보호, 풍자 등 5개 영역 중에서 부정적인 측면인 경멸과 긍정적인 측면인 보호적 기능으로 제한하였고, 내용적 측면으로는 장애영역, 주제, 내용별로 분류하여 각 사례를 제시하였다.

김창수(2007)에서는 속담에 대한 정의, 특징, 기능에 대해 먼저 살펴본 다음 장애인에 대한 태도 특히 시각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속담에서 시각장애인을 나타내는 말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시각장애 관련 속담들을 분석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태도가 모두 나타난다는 것과 부정적인 태도가 포함된 속담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정복(2009나)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장애 관련 속담을 대상으로 삼았다. 장애 유형을 시각장애, 청각 및 언어장애, 지체 및 기타장애, 정신장애, 총칭 표현 다섯 가지로 나누고 각각에 담겨있는 차별적 표현과 어떤 면에서 차별적 의미를 전달하는지 살펴보았다. 또 중요한 공적 언어 사용 영역의 한 가지인 언론 기사문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차별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 및 비판하였다.

임영철, 이길용(2010)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장애를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분류하였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는 장애인 차별어를 개선하기 위해 언론에서 장애인이 긍정적으로 묘사되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인식을 고취함과 동시에 사회적인 다양성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형성하여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의 방법은 설문지를 활용했는데, 차별어를 선정한 후 장애인을 대상으로 예비 인터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표를 구성하였다. 비장애인들은 일반적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및 지적 장애인 등의 순서로 이미지 속 장애인이 나타났다. 또 독립적 차별어에 대하여 느끼는 차별 의식을 파악했는데 비속어로 쓰일 수 있는 것들, 인간의 지적 능력에 관계되는 어휘들이 차별성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해 일반인보다 대학생들이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독립적 차별어의 대안표현은 현행 장애용어와 서술적 표현으로 거의 양분되어 나타났는데, 장애 유형의 인지도가 높은 것은 현행 장애용어가 선호되며 여러 가지 장애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할 때에는 서술적 표현이 더 선호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길용(2011)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회적 차별과 제도적 차별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조사의 방법 및 과정은 위의 임영철, 이길용(2010)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공공언론에서 부정적인 대상에 견주어 비유적으로 사용된 비하적 표현(비유적 차별어)의 구체적인 사례를 추출하여 이들 표현에 대한 차별어로서의 인식 정도를 규명한다. 특히 일정한 문맥 속에서 사용된 비유적 차별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으며 여론형성층과 대중매체 향유층을 비교대상으로 하여 차별어에 대한 의식 차이와 그에 대한 대안표현까지 검토하였다. 그 결과 언론매체가 장애인 차별어를 사용한 비유적인 표현을 남용하는 것은 시대적 인식에 부응하지 못하는 행태로 보고 있다.

주도(2015)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속담에서 나타나는 장애인 관련 속담을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등 다섯 가지로 나누었고, 장애인에 대한 태도도 연민, 공포, 죄책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또 한국과 중국의 장애인 관련 속담의 구성 어휘와 의미를 분석하여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정복(2009나)에서와 같이 신문 기사에서 보이는 장애인 차별 속담도 살펴보았는데, 시각장애와 청각장애 관련 속담의 비중이 높았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차별 속담의 사용이 표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지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를 강화시킨다는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다음은 지역 차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다.

김혜숙(1988)에서는 주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였다. 각 지역 사람들이 타 지역 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과 편견이 어떤지, 영남·호남간의 편견 및 고정관념이 그들의 제2세대로 전이가 되는지, 영남·호남 출신 사람들이 서로 더 접촉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서로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수정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 각 지역민의 사투리 사용 실태와 사투리 고수예의 압력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각 지역민의 정체감에 대한 의식이 어떤지, 마지막으로 영남·호남간의 갈등관계에 대한 지각이 어떤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역 간 갈등이 주로 호남인에 대한 타 지역민의 배척이라는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호남 사람들이 내집단 선호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나 행동의사의 차원에서는 지역구분에 의한 차별적 태도를 그리 나타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지역 간 고정관념과 태도의 세대 간 전이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도 얻었다. 지역감정이 더 고조되지 않게 하려면 경제적·정치적 불공평에의 시정뿐만 아니라 대중매체를 이용하는 대중교육, 학교교육, 또는 범국민운동 등을 통해 사회문화적 규범을 재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언급하고 있다.

이정복(2013)에서는 사회적 소통망(SNS)에 나타나는 지역 차별 표현의 유형을 대상 지역, 발생 시기, 인지도에 따라 나누었다. 이러한 지역 차별 표현이 트위터 공간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부정적 의미 맥락과 중립적·긍정적 의미 맥락으로 나누어 사례를 제시하고 의미를 해석하여 쓰임의 분포까지 알아보았다. 경상도와 전라도를 대상으로 하는 말들이 훨씬 많았고, 세대가 바뀌어도 지역 차별 표현은 없어지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꾸준히 만들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 차별에 대한 연구 성과로는 이정복(2010)이 있다.

이정복(2010)에서는 ‘장’ (長), ‘관’ (官), ‘감’ (監), ‘사’ (事, 士, 師), ‘가’ (家), ‘인’ (人) ‘원’ (員), ‘공’ (工), ‘부’ (夫, 婦) 등의 한자말 접미사

적 요소를 중심으로 직업 이름의 언어적 유형을 살펴보았다. 또,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총 9가지로 분류된 항목들에 대하여 각각 해당되는 직업 이름을 제시하고 앞에서 살펴본 직업 이름에 붙는 접미사의 유형이 사회적 위세와 사회적 신분을 표시해주는 기능까지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직업 이름과 관련된 대립과 차별에 대해서 ‘의사’와 ‘간호사’를 대표적인 예로 들어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종교 차별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박광서(2009), 안국진, 유요한(2010)이 있는데, 차별적 언어 표현보다는 종교 차별의 실태와 종교 갈등의 원인, 사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박광서(2009)에서는 종교의 오염이나 무례, 더 나아가 종교적 차별과 폭력 등 인권 침해까지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불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있다. 종교 연행, 공공영역에서의 종교문제까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명시된 헌법을 인용하여 종교 차별이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안국진, 유요한(2010)에서는 최근 한국 내 고조되고 있는 종교 갈등의 원인을 타종교에 대한 이해부족과 배타적 태도에 근거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종교간 이해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종교 갈등과는 별개로 종교차별 혹은 종교편향의 문제와 관련된 갈등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종교차별을 종교적 편견 혹은 편향으로 인해 특정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우대하는 행위, 또는 손해를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의한 종교차별은 사회적 갈등의 유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또 종교 갈등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종교차별의 판단 근거로 개인의 종교자유 침해 여부, 정교분리의 위배 여부를 언급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다원적 종교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인식해야 하며, 평화적 공존을 위해 종교간 상호 공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3.3. 속담의 의미 및 기능에 대한 연구

속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은 전통적인 속담에 대한 것과 현대 속담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전통적인 속담에 대한 연구 성과들로는 양영희(1990), 김종택(1994), 조천(2013) 등이 있다.

양영희(1990)에서는 속담에 대해 “단일한 의미를 가진 통사론적 구성의 관용어로 구체적, 개별적인 예를 들어 그 의미를 표현해 주는 고정된 언어 형식.” 이라고 정의

하였다. 속담의 의미 구조를 단일 의미 구조와 중복 의미 구조로 분류²⁾하였고, 의미 표현 면에서는 구조적 비유와 어휘적 상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속담의 의미적 기능을 청자의 행위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는 표현적 기능(풍자)과 청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령적 기능(교화), 그리고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의미 표현 강화의 기능으로 설명하였다.

김종택(1994)에서는 속담(俗談)을 속언(俗諺)과 구별하였다. 속담은 내용적 속성으로는 관용성과 통속성, 그리고 교훈성을 가지는 경구(警句)로서, 비유적 기능을 위주로 발화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속언은 대상 그 자체에 대한 경계에 목적이 있을 뿐 교훈성을 지니고 있지 않고 비유의 기능, 새로운 발화 유도 기능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 속담과 속언의 의미구조를 비교해보면 속담은 단순형, 대조형, 대칭형, 상승형, 비유형으로 나눌 수 있고, 속언은 금제형, 권장형, 판단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데에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조천(2013)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속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비교하였다. 속담의 정의 및 특징, 소재, 의식 구조 면에서는 양국의 견해에 유사점이 많았다. 특히 한국은 오래 전부터 중국의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속담에도 반영되어 나타났다. 하지만 속담이라는 것 자체가 대중의 경험이나 느낌, 생각이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점이 많이 보였다. 통사구조의 측면에서도 한국은 약 60%가 단문, 중국은 약 80%가 복문으로 차이를 보였지만 비유법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었다. 의미구조의 비교 부분에서는 비유와 대칭에 의한 의미 생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한국과 중국의 속담의 형태와 의미를 비교하였다.

다음은 현대 속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다.

곽은희(2013)에서는 대표적인 유교적 전통 가치인 ‘효자’, ‘효부’, ‘열녀’ 소재의 현대 속담을 선별하고 그 갈등 구조를 해학성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 대중이 잃어버린 공동체를 인터넷에서 다시 찾고 잃어버린 공동체의 화합을 탈놀이의 해학으로 다시 찾아 향유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갈등 구조는 전통을 저버릴 수 없는 ‘명분’ 과 그 명분 속에서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척하기’ 의 방식으로 살폈다. 이

2) 여기에서 말하는 단일 의미구조란 하나의 속담이 표현하는 주제의미가 단 하나인 것을 말하는데 이 구조는 주제의미를 드러내는 방식에 따라 의미재형, 재료재+재료재형, 재료재+의미재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중복 의미구조는 하나의 속담형식에 동일한 주제의미가 중복되어 나타나있는 것을 말하며, 같은 주제의 미이지만 의미 단위가 둘이다.

를 통해 현대 속담이 전통적 가치관의 진지함이 아닌 해학적 웃음의 가치를 지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는 현대 언어에서 유희적 특징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곽은희(2014)는 언어와 문화의 관점에서 수수께끼와 속담을 함께 묶어 개념과 유형 및 사회문화적 의미 양상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대 속담은 인터넷의 보편화, 가치관의 변화, 소통의 다변화라는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즉각적 소통형 속담, 가치관 재형성형 속담, 세대 반영형 속담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대 속담은 고전의 고정성과 현대의 가변성을 함께 발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았는데, 단순한 옛 것의 재현이 아니라 창조, 수용, 전승, 재창조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성과들에 의하면 차별적 언어 표현 중 성차별, 장애 차별을 제외한 다른 차별 유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성차별과 장애 차별에 대한 연구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편은 아니지만, 그 차별 현상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 차별 유형보다 비교적 높기 때문에 조금 더 많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의 언어생활과 가깝게 쓰이는 속담 속에 나타나는 차별적 언어 표현을 차별 유형에 따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속담에 나타나는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연구나 비교 연구도 있지만 여러 차별 유형 중 한 가지 유형에만 한정하고 있어 전반적인 파악이 어렵다. 이와 함께 본 연구는 차별적인 언어 표현이 나타나는 한국 속담의 전통적인 세계관까지 살펴보는 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차별적 언어 표현과 속담에 대해 개념과 특징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사전적 정의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 학자들이 각각 정의한 차별적 언어 표현과 속담의 개념을 검토하고 그 특징을 알아보기로 한다.

2.1. 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념

우선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차별’을 “둘 이상의 대상을 각각 등급이나 수준 따위의 차이를 두어서 구별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서로 같지 아니하고 다름. 또는 그런 정도나 상태.”로 정의되는 ‘차이’와는 또 다르다. ‘차별적 언어 표현’은 문자 그대로 언어 표현에 ‘차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다음은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념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기존 연구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의 개념

연구 성과	내용
박혜경(2009)	차별적 언어 표현은 한 사회의 개인 또는 특정한 집단과 그에 관련한 사물 및 현상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말, 즉 편견과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구·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을 말한다.
박동근(2010)	‘언어 차별’이란 의사 전달 과정에서 비객관적인 사실로 누군가에게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는 표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언어 차별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소수자 및 약자들에 대한 발신자의 차별 의식

	에 의해 실현된다.
조태린(2011)	차별적 언어표현을 ‘한 사회의 소수자 또는 약자들에 대한 차별적 의도 또는 인식을 드러내는 특정 단어, 구, 문장으로 이루어진 표현’ 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정복(2014)	차별 언어란 사람들의 다양한 차이를 바탕으로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편을 나누고, 다른 편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거나 다른 편을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과정에서 쓰는 언어 표현을 가리킨다.

<표 1>에서 알 수 있듯 ‘차별적 언어 표현’은 ‘화자의 차별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청자의 입장에서는 화자가 차별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 하였더라도 청자에게 심리적으로 불쾌감, 소외감 등을 느끼게 하거나, 실질적인 불평등을 초래하게 된다면, 이 또한 차별적 언어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차별적 언어 표현은 ‘차별적 인식’에 관한 화자의 입장과 동시에 청자의 입장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차별적 언어 표현의 대상은 대부분 소수자나 약자에 해당한다. 사람들은 이러한 차별적 언어 표현을 때로는 의도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를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은 간에 차별적 언어 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개인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이 특정한 집단일 경우에는 사회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조태린 2011: 388).

2.2.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에 대한 학계의 논의는 대표적으로 조태린(2006), 박혜경(2009), 이정복(2014)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세 연구자가 분류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을 참고하였다.

먼저 조태린(2006)은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을 ‘성’, ‘신체’, ‘인종·국적·지역’, ‘직업·사회’ 등 네 가지로 나누었고, 열다섯 가지로 그 하위 유형을 세분하였다.

<표 2>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조태린 2006)

분류		내용	예시
성	여성 명칭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명칭	미혼모, 미망인
	여성 강조	여성임을 특별히 드러냄	여의사, 여대생, 여기자
	신체 강조	여성의 성적·신체적 측면을 이용	처녀림, 처녀작, 처녀생식
	고정관념	남녀에 대한 고정관념을 반영	시집가다, 바깥사돈
	여성 비하	여성을 비하	계집애, 마누라
신체	장애 비하	신체장애를 비하	귀머거리, 병어리, 절름발이
	장애 이용	신체장애를 이용	병어리 냉가슴, 절름발이 행정
	외모 비하	외모를 비하	뚱보, 숫다리
	외모 강조	불필요한 외모 강조 및 묘사	몸짱, 얼짱, 섹시, S라인
인종 국적 지역	인종 비하	특정 인종을 비하 또는 차별	검둥이, 잡종, 유색인, 혼혈아
	자국 중심	자국 중심적인 사고	교포/동포/재외국민, 코시안
	지역 차별	특정 지역을 비하 또는 차별	서울로 올라가다, 여의도

			면적의...
직업 사회	직업 비하	특정 직업을 비하	잡상인, 봉급쟁이, 노가다
	부적절지칭	부적절한 지칭	간호원, 청소부, 신용불량자
	출생 비유	특정한 출생을 비하	사생아, 미숙아

다음으로 박혜경(2009)에서는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을 ‘성’, ‘신체적 특성’, ‘지역·국적 및 인종’, ‘직업 및 지위’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 유형 별로 차별성에 기여하는 요소를 제시하였다.

<표 3>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과 차별성의 요소(박혜경 2009)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차별성에 기여하는 요소
성차별적 표현	성별,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및 혼인으로 발생하는 성역할, 성별 속성, 성적 지향 등의 부각으로 인한 비하 및 차별
신체적 특성 차별적 표현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등의 부각으로 인한 비하 및 차별
지역·국적 및 인종 차별적 표현	출신 지역, 국가, 민족, 인종, 피부색 등의 부각으로 인한 비하 및 차별
직업 및 지위 차별적 표현	직업, 종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상황,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병력(病歷) 등의 부각으로 인한 비하 및 차별

한편 이정복(2014)에서는 표현 형식과 쓰임을 고려하여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을 크게 ‘성’, ‘인종’, ‘장애’, ‘지역’, ‘직업’, ‘종교’, ‘기타’의 일곱 가지로 나누었고, 이러한 유형들을 다시 서른한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였다.

<표 4>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이정복 2014)

차별 언어의 유형 및 분류		하위 유형	보기
성차별	언어 형식	여성을 유표형으로 지시	여교사, 여비서, 여의사, 여류 시인, 여류 작가
		남성을 먼저 지시	남녀, 부모, 아들딸, 감남을녀, 신랑 신부
		남성형으로 여성까지 포괄	형제, 학부형, 부전자전
	차별 내용	여성을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표현	여필종부(女必從夫), 처자(妻子), 노가(奴家), 미망인(未亡人)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표현	여태, 뒤태, 자태, 관능미, 섹시녀, 각선미, 에스라인, 글래머, 꿀벅지, 쪽쪽빵빵
		여성의 성품과 능력을 낮잡아 표현	암탉, 암캐, 불여우, 보슬아치, 꿀통페미(년), 된장녀, 김여사
	남성을 부정적으로 표현	늑대, 머슴, 마초	
인종 차별	특정 민족이나 국민을 차별하기	오랑캐, 야만족, 쪽발이, 짱개, 똥남아, 베트남, 파키애들	
	특정 인종을 차별하기	양놈, 코쟁이, 흰둥이, 검둥이, 니그로, 아프리카 미개인, 흑형	
	‘혼혈인’을 차별하기	튀기, 검둥이 튀기, 라이따이한, 아메라시안, 코시안, 코피노	
장애 차별	시각 장애	봉사, 소경, 장님, 판수, 애꾸눈이	
	청각 및 언어 장애	귀머거리, 병어리, 말더듬이, 언청이	
	지체(肢體) 및 기타 장애	곱사등이, 난쟁이, 앞은뱅이, 절름발이, 공배팔이, 육손이, 언청이, 공보, 고자, 문둥이	

	정신 장애	미치광이, 미친놈, 미친년, 천치, 바보, 지랄쟁이
	장애 전반 총칭	병신, 불구자, 폐질자
지역 차별	경상도	개쌍도, 개쌍디언, 문둥이, 흥노(족), 매국노, 왜놈후손, 과메기, 갱스(오브)부산, 고담대구
	전라도	전라디언, 전라좌빨, 갱갱이, 흥어(족), 슨상님, 빨갱이, 뒤통수, 더블백, 하와이, 갯땅(쇠), 광쥐스트, 오오미
	기타 지역	(강원도) 감자바위, 밥통, (충청도) 핫바지, 멍청도, 서울깍쟁이, 심시티서울, 인천짠물, 마계인천, 뉴올리언스수원, 판타스틱부천, 탐라국, 빨개, 상간나, 탈북자, 연변 총각/연변 처녀, 조선족, 재일 동포, 카레이스키
직업 차별	‘공’ (工)이 붙은 직업 이름	도배공, 도장공, 발파공, 인쇄공
	‘장’ (匠)이 붙은 직업 이름	간판장, 옹기장
	‘수’ (手)가 붙은 직업 이름	목수, 무용수, 선수, 신호수
	‘부’ (夫), ‘부’ (婦)가 붙은 직업 이름	광부, 인부; 접대부, 파출부
	‘희’ (姬)가 붙은 직업 이름	가희, 무희
종교 차별	기독교 차별	개독교, 개독교, 개독교녀, 교배당, 목사/개목, 목사질, 신부놈, 예수쟁이

	불교 차별	개불, 땡중, 중놈, 중대가리, 중질
	무속 종교 차별	무당년, 무당질/무당짓, 무속인년, 점쟁이
	기타 종교 차별	개이슬람, 이슬람놈들, 힌두쟁이
기타 차별	계층 차별	상것, 상놈, 서민, 아랫것, 천민, 하류층, 하층민
	나이 차별	어린 애들, 늙은 것들, 젊은 것들, 노인(네)
	외모 차별	오크남, 오크녀, 왕폭탄, 땅콩, 똥보, 똥녀
	성소수자 차별	동성애, 동성연애자, 변태, 호모, 변태성욕자

본고에서는 이상에서 제시한 세 가지 분류 가운데 가장 구체적이라 할 수 있는 이정복(2014)의 유형 분류를 참고하여 ‘성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외모 차별’, ‘계층 차별’, ‘나이 차별’의 여덟 가지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을 분류하고자 한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담에는 ‘인종 차별’ 표현과, ‘기타 차별’ 중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표현이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이 두 차별 표현은 제외하기로 한다.

2.3. 속담의 개념 및 특징

속담의 개념에 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매우 다양하다. 속담은 애초부터 엄격하게 개념을 규정할 수 있는 언어적 표현 양식이 아니라 하나의 설화적 이야기에서부터 경구적 어구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관용구로 전승되어 온 표현 양식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그 정의도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심홍식 2002: 4~5). 먼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속담을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또는 속된 이야기.”로 정의하고 있다. 이 외에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속담의 정의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기존 연구에 나타난 ‘속담’의 개념

연구 성과	내용
양영희(1990)	<p>속담은 단일한 의미를 가진 통사론적 구성의 관용어로 구체적, 개별적인 예를 들어 그 의미를 표현해 주는 고정된 언어 형식이다. 이와 같이 정의하면, 속담은 단일한 의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중의적 의미를 갖는 속어와 구별되고, 관용어라는 점에서 단순한 사실진술적인 전언이나 비유적 표현과도 구별된다. 또 고정된 언어 형식이라는 점에서도 일반문과 구별된다.</p>
김종택(1994)	<p>곧 속담이란 관습성과 통속성, 교훈성을 지닌 말도막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p>
정종화(1995)	<p>속담이란 역사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긴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생활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교훈을 짧은 글 속에 표현한 금언으로써 민중의 입을 통하여 전수되어 내려오는 동안에 한 민족과 한 문화의 공통된 가치관을 담게 되는 그 민족의 진리, 혹은 그 문화의 지혜로 형성된 예지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p>
방운규(2004)	<p>속담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활 경험 가운데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굳어진 언어 형식이다. 즉 민중들의 지혜와 교훈을 지닌 은유적인 관용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속담</p>

	<p>은 한 민족, 한 사회, 한 문화의 정신적 사고방식의 특징적인 면을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을 알고자 하면 그 민족의 속담을 아는 것이 지름길이 된다.</p>
<p>정기월(2013)</p>	<p>속담은 한 민족이 오랜 생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나, 민중이 삶의 과정에서 겪은 생각과 태도를 담고 있는 언어 표현이다. 더불어 그들의 생활 관습과 신앙까지 내포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그 내용이 고정적이고 교훈적, 풍자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백성들이 즐겨 보고 듣는 것을 간결하지만 설득력이 있는 방식으로 나타낸 관용적 표현이다.</p>

<표 5>에서 공통적인 속담의 정의는 오래 전부터 민중의 삶의 지혜와 생각, 태도가 녹아 있는 익숙한 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단일한 의미를 지닌 관용어로서 그 특징으로는 ‘관습성’, ‘토속성 및 통속성’, ‘교훈성’, ‘풍자성’을 내포한 언어 표현이라 할 수 있겠다.

속담은 그 형태가 매우 간결하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 민중이 쉽게 기억할 수 있다. 그리하여 오랜 시간 동안 잘 전승되어 현재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 이러한 특징은 속담의 ‘관습성’에 해당한다. ‘토속성 및 통속성’은 한국 고유의 풍속이 속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당시 민중의 생활방식과 같은 문화적 요소들을 속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교훈성’은 속담이 단순히 의미만 전하는 말이 아닌, 민중의 행동이나 생활에 지침이 될 만한, 일종의 가르침으로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기를 비롯하여 경계해야 할 것 또는 권장할 만한 것들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풍자성’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거나 왜곡 또는 비꼬아서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민중의 삶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 신념, 인생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힘들었던 삶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려했던 한국인의 낙천적인 태도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다.

3. 한국 속담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 및 특징

본 장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정종진(2006)의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서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 제시된 속담을 앞에서 제시한 여덟 가지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에 따라 크게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몇 가지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그 후 그러한 유형들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어떤 유형이 많이 나타나는지, 각 유형별로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한다.³⁾

3.1. 성차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성차별을 “성별로 인한 차별. 남성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받는 차별을 이른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성차별은 현재 까지도 사회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속담에서는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의 성차별은 대체로 유교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리학이 당시 민중의 모든 의식을 지배했던 조선 시대에는 여성의 존재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⁴⁾ 당시 여성은 혼인을 통해 다른 집안의 성원이 되므로 처음부터 자식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버지, 남편, 아들에 대한 복종을 강조한 ‘삼종지도(三從之道)’의 가르침에 따라 가부장제에 대한 일방적 순종만을 강요받았다. 삼종의 규범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 유교적 규범은 여성을 철저히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규정하고 남편에 대한 아내의 순종을 절대적 미덕으로 강조함으로써, 부부간에 엄격한 수직적 위계를 설정해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강성영 2002: 5~6).

따라서 성차별의 양상으로는 남성 차별보다는 여성 차별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난

3) 속담의 사례는 유형별로 일부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부록으로 덧붙이기로 한다.

4)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애초부터 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깔려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칠거지악(七去之惡)이 있다. 칠거지악은 유교에서 말하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일곱 가지의 조건이다. 시부모에게 불순한 것, 자식을 못 낳는 것, 음탕한 행동, 질투,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다. 이는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서도 여성 차별 표현이 290개로 다른 차별 표현에 비하여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여성을 차별하는 표현에는 정기월(2013)에서 제시한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기’,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 역할에 묶어두기’,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여성을 남자에 종속 시키기’의 네 가지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먼저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는 표현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계집아이를 낳으면 두 번 운다

: 태어날 때 서운해서 울고, 시집갈 때 섭섭해서 운다는 뜻

(2) 딸 가진 사람은 아랫길로 간다

: 딸 가진 사람은 아들 가진 사람보다 저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 계집애는 욱 밀천

: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을 화제로 삼아 흠을 잡기 일쑤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4) 수박 열매 맺을 때 몸 굶은 여자 다녀가면 수박 깨진다

: 수박 열매가 맺을 때 생리하는 여자가 드나들면 부정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

(5) 계집애가 글을 하면 팔자가 사납다

: 옛날 글을 하는 것은 남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통용되던 말

(6) 남자가 버는 것은 황소 걸음이고, 여자가 버는 것은 거북 걸음이다

: 남자의 돈벌이는 크고, 여자의 경우는 작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 여자의 식견은 남자의 의견만 못하다

: 여자의 식견이 남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농업이 중심이었던 전근대 사회에서 아들은 농사일을 도우며,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고, 제사를 지내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다. 이러한 ‘남아중시’ 사상이 심화된 사회에서 여자 아이는 출산과 동시에 사회적 무시의 대상이 되었다(정기월 2013: 30). (1), (2)의 속담은 이러한 ‘남아중시’ 사상을 뚜렷하게 드러나는 사례이다. 특히 (1)은 딸을 낳으면 아들이 아니어서 한 번 울고, 시집보낼 때 남자의 집에 가져가야 할 지참금 때문에 또 한 번 운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통적인 시대상과 문화를 고려해 보면 여러 모로 큰 도움이 되는 아들을 더 중시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3), (4)는 여성이 사람들의 가벼운 이야깃거리와 불행의 대상으로 여

겨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 (6), (7)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아래라는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은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을 수 없었으며, 사회적으로도 남성보다 훨씬 낮은 지위에 해당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여성의 외부 활동이 엄격히 제한된 탓에 당시의 여성은 가사나 육아에 전념할 것을 강요받았다.

다음은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 역할에 묶어두는 표현이다.

(8) 가구는 빌리면 망가지고, 여자는 돌리면 버리게 된다

: 가구를 집 안에 두고 쓰듯이, 여자를 집 밖으로 나돌게 하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기 쉽다

(9) 남자는 안에서 하는 일을 말하지 말고, 여자는 밖에서 하는 일을 말하지 말랬다

: 남자는 집안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참견 말고 여자는 바깥일에 지나친 참견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10) 아내가 비록 어질지라도 바깥일에는 관여하지 말랬다

: 여자가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남편의 일에 직접 나서지 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11) 여자는 집안 귀신 노릇만 하다 죽는다

: 옛날에 여자들은 평생토록 집안 일만 하고 살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2) 외부의 화목은 남자가 하고, 집안의 화목은 여자가 한다

: 집밖의 화목은 남자의 몫이고, 집안의 화목은 여자의 몫이라는 뜻

가부장 사회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제한하였다. 바깥이 위험하다는 이유도 있었으나, 남성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성을 사회에서 완전히 분리한 것이다. 결국 여성의 역할은 집안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살림을 하며 남편을 내조하는 것에 그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하여 (8)~(12)는 여성의 전통적인 성 역할에 관한 것에 해당한다. 반면 남성은 활발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높은 지위를 획득하고 집안의 여성을 지배하였다. 특히 (12)에서는 남성이 바깥일을 하고, 여성이 집안일을 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 이러한 성 역할에 대한 고정된 인식은 현재까지도 남아 있지만, 점점 남성과 여성의 역할 구분 없이 서로 집안일도 하고 바깥일도 하는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다음은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이다.

- (13) 계집 고운 것과 바다 고운 것은 바람 탄다
: 파도가 잔잔하다 격해지듯, 여자의 마음도 쉽게 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4) 여자는 문턱을 넘으면서도 열두 가지 생각을 한다
: 여자는 어떤 일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뜻
- (15) 계집의 주둥이는 사기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 여자들의 입방정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6)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에 구멍을 뚫는다
: 여자가 여럿 모여 떠들어대면 주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단스럽거나, 별의 별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 (17) 여우 꼬리와 여자 혀 : 간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8) 여자는 젊어서 여우, 늙으면 호랑이
: 여자는 젊을 때 공살맞은 행동으로 남자를 대하고, 늙으면 남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 (19) 삼십 넘은 계집은 설 천 무
: 설 천 무는 쓸모가 없다는 것처럼, 삼십 세가 지난 여자는 매력을 잃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20) 계집 엉덩이가 한 짐에는 못 지고 짐 반은 되겠다
: 엉덩이가 무척 큰 여자를 조롱하여 이르는 말
- (21) 여자는 인물이 밀천이다
: 여자는 인물이 잘 나아 대접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22) 여자 공부해서 도원수⁵⁾ 된 데 없다
: 여자를 공부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23) 여자가 남자 다리나 허리를 넘으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남성 중심의 봉건 사회에서 남성들이 기대하는 여성의 미덕은 온유함과 자애로움이다. 남성들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과 어긋나는 행동을 여성이 보일 때,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비판과 모욕은 엄청났다(정기월 2013: 58).

5) 도원수(都元帥). 옛날 전쟁 시 군무를 통괄하던 무관 벼슬.

(13), (14)는 여성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속내를 알 수 없다는 의미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14)는 문턱을 넘는 짧은 순간에도 마음이 여러 번 바뀜을 나타낸다. 이는 여성이 변덕스럽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15)~(17)은 여성이 말이 많고 간교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사기 접시를 뒤집고, 접시에 구멍을 뚫을 만큼 수다스럽다고 표현한 속담으로서, 여성의 발언이 무시받거나 저평가받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 한편 (18), (19)는 여성의 나이에 따른 차별을 나타낸 것으로 나이가 든 여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 (21)에서는 여성의 외모에 관한 것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의 외모가 예뻐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는 외모지상주의를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22)와 (23)은 여성의 능력과 태도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유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전통 사회에서는, 현재와 달리 여성의 교육 기회가 극히 드물었으며, 사회적 활동까지 제한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기가 매우 힘들었다. (22)에서는 여성을 공부시켜도 결국 소용이 없다는 말로, 공부는 오로지 남성에게만 쓸모가 있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이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23)은 여성을 재수가 없는 존재로 보면서, 여성은 항상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표현들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다음은 여성을 남자에게 종속시키는 표현이다.

(24) 계집은 사내가 제 팔자요, 사내는 시대가 제 팔자라

: 여자는 사내의 능력에 따라 팔자가 정해지고, 남자는 시대의 좋고 나쁨에 따라 팔자가 결정된다는 뜻

(25) 남자는 그릇이고 여자는 물이라

: 여자는 남자 만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6) 아내는 남편 손에 붙은 밥풀이다

: 여자의 평생은 남편을 잘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 여자 팔자는 남자 손끝에 달렸다

: 여자의 운수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부귀빈천이 결정된다는 뜻으로 빗대

는 말

(28) 개와 여자는 맞아야 길이 든다

: 여자를 남자의 뜻대로 길들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

(29) 계집은 사흘만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 여자는 사흘에 한 번쯤 매를 대야 한다는 말

(30) 관에서 매 맞고 집에 와서 계집 친다

: 다른 곳에서 화를 당하고 엉뚱한 곳에서 분풀이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 아내 없는 것은 안 섬섬해도, 나무 담배통 잃은 것은 더 섬섬하다

: 크게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하찮은 손해를 가지고 안타까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의 미덕으로 여겨졌던 윤리 덕목인 삼종지도(三從之道)⁶⁾로 여성들은 독립적인 인격과 자유를 상실하였다. 그리하여 남성에게 완전히 종속된 여성은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로지 남성이 결정한 대로 따라야 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4), (27)은 여성의 운명이 남편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25)는 물이 그릇에 담기면 그 모양이 그릇의 모양대로 변하듯, 여성이 남성의 영향을 받는 주체적이지 못한 존재로 빗대어 나타낸 것이다. (26)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표현함으로써 종속적인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고 있다.

여성의 종속적인 지위를 반영하는 속담은 그 수가 많은 편에 속한다. 그 가운데 특히 여성들이 받는 불평등한 대우에 관련한 속담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28)~(30)은 여성을 폭력의 대상으로 표현하고 있다. (28), (29)는 그 폭력을 정당화하고 있으며, (30)은 애꿎은 여성에게 화풀이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또, (31)은 여성을 나무 담배통보다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성차별 속담의 하위 유형별 통계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6) 삼종지도(三從之道)란 여자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결혼해서는 남편을, 남편이 죽은 후에는 자식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아버지가 어른이라 사회 경험이 많고 근본적인 훈육의 역할을 가지고 있어서 여성들은 시집을 가기 전에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뜻이다. 그다음은 남편이랑 같이 집안을 운영하고 어른들에게 효도를 하고 자식을 교육시키기 위해 시집을 가고 나서 남편을 잘 따라야 된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남편이 죽고 나서도 여성들은 다시 시집을 못 가고 혼자 자식을 키우는 임무를 부담해야 한다. 자식이 다 크면 자식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이다(정기월 2013: 47).

<표 6> 성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유형 \ 분포	여성을 남성의 하위자로 다루기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 역할에 묶어두기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기	여성을 남자에게 종속시키기	합계
개수	26	47	174	46	293(개)
비율	8.9	16.1	59.4	15.6	100(%)

성차별 표현의 네 가지 하위 유형 가운데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59.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다음으로 여성을 주부나 아내 등의 성 역할에 묶어두는 표현과 여성을 남자에게 종속시키는 표현이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녀의 사회적 지위까지 불균등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을 남성의 아래로 간주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면서 제한적이고 고정된 역할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3.2. 장애 차별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모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겉으로는 보호의 태도를 지니면서도 내면에는 편견이나 비하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속담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속담에는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는 언중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 나타난 장애 차별 표현은 328개이다. 이를 이정복(2009 나)의 유형을 따라 ‘시각 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 ‘지체(肢體) 및 기타 장애’, ‘정신 장애’, ‘총칭 표현’ 등 다섯 가지로 다시 세분하고자 한다.⁷⁾

7) 시각 장애와 지체 및 기타 장애는 겉으로 가장 쉽게 드러나는 대표적 장애 유형이다.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귀머거리’와 ‘병어리’로 불러왔는데 언어 사용에서 어려움을 겪는 공통점에 주목하여 하

먼저 시각 장애와 관련된 속담이다.

(32) 눈 뜬 장님

: 글이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3) 무식한 봉사 팔양경⁸⁾ 외듯이

: 아무 뜻도 모르고 열심히 외워대기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4) 봉사 집 지키기 :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35) 소경더러 길 묻는다 :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6) 애꾸가 환히 보려 하고, 절름발이가 멀리 가려 한다

: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욕심을 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7) 장님도 제 집은 잘 찾아간다

: 아무리 무능력해도 습관이 된 일은 잘 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시각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정안인(正眼人)들이 시각 장애인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리고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 시력을 잃고 주변의 사물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한다. 즉 시력의 상실은 어둠, 불안, 공포, 죽음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 관련 속담들도 그 저변에는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김창수 2007: 22).

(32)~(37)의 예는 모두 시각 장애를 ‘장님, 봉사, 소경, 애꾸’ 등의 어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님, 봉사, 소경’ 과 같은 어휘는 그 자체에 차별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속담의 문맥적 상황에서 차별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다. (32)~(36)은 시각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반면, (37)은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알 수 있듯,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보다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속담들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나의 유형으로 묶는 것이 좋아 보인다. 속담에서의 정신 장애에 대한 인식은 현대의 다양한 유형 분류와 달리 ‘미친’이라는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점에서 한 가지 유형으로 관련 장애 현상을 묶어 다루고자 한다. 또 장애인을 두루 가리키는 표현이 있는 점에서 ‘총칭 표현’을 추가한다(이정복 2009나: 220).

8) 천음지양(天陰地陽)의 여덟 가지 양(陽)을 이르며, 혼인·해산(解産)·장사(葬事) 따위에 관한 미신을 없애려는 내용의 불경.

그렇다면 각 속담의 문맥적 상황에 따른 시각 장애 관련 어휘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32)의 ‘장님’은 ‘세상일에 무지한 사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상황이나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장님’과 같다는 뜻이다. (33)은 ‘봉사’가 ‘팔양경’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입으로만 외우는 것을 비하하고 있다. 이는 (32)와 마찬가지로 시각 장애인을 무지하며 무식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34)와 (35)은 시각 장애인의 무능력함을 표현한 것이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집을 잘 지킬 수도 없고, 길을 잘 알 수도 없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36)의 속담도 각 장애인의 무능력함을 전제로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하려는 것을 비꼬고 있다. (37)은 시각 장애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어떠한 일이든 익숙해지면 잘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청각 및 언어 장애 관련 속담이다.

(38) 귀머거리 귀 있으나마나

: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있어도 보탬이 안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9) 귀 먹은 놈이 우는 당나귀보고 하품하는 줄 안다

: 어디가 부족한 사람이 제 소견대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40) 반병어리 축문 읽듯

: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1) 병어리하고 말하는 격

: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위의 예들에서는 청각 및 언어 장애를 ‘귀머거리, 귀 먹은 놈, 반병어리, 병어리’ 등의 어휘로 표현하였다. 또한 시각 장애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태도가 중심적이다. (38)은 귀가 있어도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점에서 청각 장애인의 무능력함이 나타나고, (39)는 청각 장애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는 (38)과 같은 맥락으로 무능력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신체 장애로 특정 신체 기능을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부분적 무능력 상태가 된 것이 사실이겠지만 그것을 속담으로까지 만들어 쓰는 것은 당사자들을 이질시하고 차별하는 행위인 점에서 문제가 있다(이정복 2009나: 230). (40)은 자신의 장애를 신경 쓰지 않고 능력 밖의 일을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묘사하였다. (41)에서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대화한 것처럼 말이 잘 통하지 않는 것을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다음은 지체 및 기타 장애 관련 속담이다.

(42) 공배팔이⁹⁾가 양장구 친다

: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3) 절름발이 원행¹⁰⁾ : 주제도 모르고 욕심대로 하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4) 곱사등이 짐 지나 마나

: 일을 해도 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5) 난쟁이 교자꾼 참여하듯

: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고, 일을 해낼 수도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6) 앓은뱅이가 서면 천 리를 가나

: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애를 써 봤자 별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7) 문둥이 떼쓰듯 한다 : 분별력 없이 마구 떼를 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8) 언청이¹¹⁾가 아니면 천하일색이다

: 커다란 흠 한 가지가 없으면 아주 빼어날 것인데 안타깝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2)~(48)은 신체 장애와 질병에 대한 속담을 예로 들었으며, 사용된 어휘는 ‘언청이, 공배팔이, 곱사등이, 난쟁이, 문둥이, 앓은뱅이, 절름발이’이다. 이들 가운데 질병보다 신체 장애 관련 어휘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42), (43)은 자신의 능력보다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44), (45), (46)은 신체 장애를 지닌 사람의 무능력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47)은 막무가내로 고집을 부린다는 뜻으로, 장애인의 성품을 부정적으로 나타낸 것에 해당한다. (48)에서는 장애를 큰 결점으로 나타낸 것으로, 이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정신 장애 관련 속담이다.

9) 팔이 꼬부라져 붙어 퍼지 못하거나 팔뚝이 없는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

10) 원행(遠行). 먼 길을 감.

11) 입술갈림증이 있어서 콧입술이 세로로 찢어진 사람을 낫잡아 이르는 말. 기능적으로는 언어 장애라고 할 수 있으나 속담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뜻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지체 및 기타 장애로 분류한다.

- (49) 미친년 뒤듯 : 어떤 일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댄다
- (50) 미친놈이 날긋이를 하면 비가 온다
: 저기압이 되면 미친 사람에게 더욱 이상 증세가 오기 쉽다는 데서 비롯된 말
- (51) 미친놈치고 제가 미쳤다는 놈 없다
: 누구라도 제가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52) 바보가 욕심 많다 :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탐욕스럽게 마련이라는 뜻
- (53) 반편이 명산 폐묘시킨다
: 못난 것이 나서서,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망쳐 놓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정신 장애 관련 속담에서는 ‘미친년, 미친놈, 바보, 반편이’ 등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이들은 대부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무시하는 표현에 해당한다. 특히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하여 정신 질환 장애인을 더욱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9)~(51)은 장애인의 제멋대로인 행동과 자신의 장애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부정적으로 표현한 속담의 예이다. (52)는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성격을 욕심이 많다고 비하하고 있다. 한편 (53)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줄도 모르고 일을 나서서 망친다는 의미이다.

다음은 장애에 대한 총칭 표현 관련 속담이다.

- (54) 배냇병신¹²⁾이 육갑뎌다 : 모자라는 주제에 잘난 척한다는 뜻
- (55) 병신 고운 데 없다
: 몸이 불편한 데가 있으면 마음 씩씩이도 고울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56) 병신 달밤에 체조한다
: 못난 사람이 더더욱 못난 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57) 병신이 옹기 마중 간다
: 깨지기 쉬운 옹기를 가지러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나선다는 말로, 능력이 부족하면서 나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 선천 기형을 낫잡아 이르는 말.

장애에 대한 총칭 표현은 ‘병신, 불구자, 장애인, 장애인’ 등이 있는데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는 ‘병신’이라는 어휘만 보인다. ‘병신’은 신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로 쓰는 말이지만 다른 장애인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총칭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54)는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를 지닌 사람, 즉 일반적인 상태의 사람보다 나은 게 없는 사람이 잘난 체를 한다는 뜻이다. (55)는 몸이 불편하면 마음까지 뒤틀렸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마음이 뒤틀렸다는 것은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장애인에만 국한하였다는 점은 편견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다. (56)은 장애인의 행동을 못마땅해 하는 표현이고, (57)은 장애와 관련된 이외의 여러 유형에서 나타난 예와 같이,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하려는 것을 부정적으로 나타낸 예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 차별의 하위 유형을 계량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7> 장애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유형 \ 분포	시각 장애	청각 및 언어 장애	지체(肢體) 및 기타 장애	정신 장애	총칭 표현	합계
개수	166	39	62	39	22	328(개)
비율	50.6	11.9	18.9	11.9	6.7	100(%)

여기에서 보듯이 장애 차별 표현의 다섯 가지 하위 유형 가운데 ‘시각 장애’에 관한 차별 표현이 50.6%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그다음으로 ‘지체(肢體) 및 기타 장애’와 관련된 차별 표현이 18.9%로 나타났으며, ‘청각 및 언어 장애’와 ‘정신 장애’ 차별 표현은 각각 11.9%로 동일하다. 시각 장애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는 다른 장애인들에 비하여 농사일에 참여하기가 힘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만큼 시각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낮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가 속담에 그대로 반영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고착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장애인 관련 속담들은 장애인을 직설적으로 가리키면서 결과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는 어휘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정도 차이는 나더라도 대부분 장애인 차별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장애인을 보통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신체 장애에 초점을 맞춘 채 불완전하고 결핍된 한 부류로 전체를 묶어서 ‘정상인’과 다르게 보려는 점에서 그러하다. 더욱이 그러한 속담들은 대부분 장애인을 무능력하고, 마음이 뒤틀려 있으며, 우스꽝스러운 모습 때문에 괴롭힘을 받아도 되는 대상이며, 물건과 같은 비인격적 존재로 표현함으로써 장애인 차별을 부추기는 면까지 보인다(이정복 2009 나: 241~242).

3.3. 지역 차별

지역 차별 표현은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다른 차별 표현보다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한 적대감과 공격적인 태도를 더 강하게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이정복 2013: 80).¹³⁾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 나타난 지역 차별 속담은 모두 28개이다. 이를 더 세분하면 ‘출신지’, ‘지리적 특징’, ‘지역민의 특성’, ‘시골’에 대한 것이다.

먼저 ‘출신지’에 대한 차별 표현이다.

(58) 강원도 감자바위 : 강원도에서 태어났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강원도는 대부분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논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지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8)은 산간지대에서 주로 재배되는 밭작물 중에 하나인 감자를 언급해 강원도 출신인 사람은 감자나 먹고 사는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있다.

다음은 ‘지리적 특징’에 대한 차별 표현이다.

(59) 강원도 참사¹⁴⁾ : 공직에 있는 사람이 먼 곳으로 좌천됨을 빗대는 말

13) 현대로 와서는 정치인들이 의도적으로 지역 간 대립과 지역감정을 조성하고 조장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60) 담양 갈 농 : 담양(潭陽)으로 정배살이¹⁵⁾를 갈 농이라는 뜻으로 남을 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알잡아서 하는 말

(59), (60)에서 옛날에는 강원도, 전라도를 아주 먼 곳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곳으로 좌천 또는 유배를 갈만큼 좋지 않게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지역 차별 표현 중 20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차별 표현이다.

(61) 강원도 꿀 장수 : 매우 굵고 어수룩하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62) 강화 여자는 발가벗겨 놓아도 삼십 리를 똬다

: 강화 여자들이 웬만한 예의염치는 무시하고 오로지 잘 살기 위해 억척같이 일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63) 개성 구두쇠다 : 돈이나 물건을 아주 지독하게 아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4) 경기도 까투리 : 경기도 사람이 매우 악다는 뜻을 빗대는 말

(65) 경상도 고집이다 : 무척 고집이 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6) 충주 자린고비다 :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을 빗대는 말

(67) 평안도 참빗장수

: 제 이익만 몰두하여 매우 옹졸하게 구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위의 예들은 특정 지역과 그 지역 사람의 성격이나 특징을 나타내는 듯한 말이 함께 언급됨으로써 그 지역 사람들의 특성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러나 이는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강하게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시골’에 대한 차별 표현이다.

(68) 시골 농 똥집 큰 것 세운다

: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사물을 외양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69) 시골 농이 굵으면 보리밥을 굵고, 서울 농이 굵으면 이밥을 굵는다

14) 직위의 하나.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15) 죄인이 지방이나 섬에 가서 귀양살이하던 것.

- : 시골 농은 보리밥 먹고, 서울 농은 쌀밥을 먹고 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70) 시골 농 제 얘기하면 온다
- : 점잖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롭게 제 말에 맞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71) 시골 앞은뱅이 서울 공론한다
- : 제 현실과 연관되지 않은 허황된 이야기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72) 시골 양반의 밥상이 서울 상놈의 밥상보다 못하다
- : 서울과 시골의 살림이 매우 차이가 크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위의 예들은 시골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표현한 차별 표현의 사례들이다. 이는 사람들의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골은 서울보다 낙후된 곳이라는 인식이 속담에 드러나게 된 것이다. 시골이 아무리 좋아도 서울보다는 뒤떨어진다는 것과 함께 시골 사람들은 어리석고 점잖지 못하다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지역 차별의 하위 유형별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8> 지역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유형 \ 분포	출신지	지리적 특징	지역민의 특성	시골	합계
개수	1	2	20	5	28(개)
비율	3.6	7.2	71.4	17.8	100(%)

네 가지 하위 유형 가운데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차별 표현이 7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속담에서도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다음은 17.8%의 비율을 보인 ‘시골’에 대한 차별 표현이다. 시골이 도시보다 낙후된 것은 맞지만,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 표현은 올바른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 언중에게 시골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심어줄 뿐이다.

3.4. 직업 차별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사실상 오래전부터 직업에 대한 차별 의식이 존재하였다. 예컨대 직업을 가리키는 이름에서 차별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직업 이름을 보면 그 직업이 얼마나 강한 힘과 높은 지위를 갖는지, 얼마나 크게 존경받고 선호되는지, 어떤 다른 직업들과 같은 무리를 이루는지를 알 수 있다(이정복 2010: 4). 따라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격이 낮다고 인식되는 직업 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적 언어 사용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하다.

직업 차별이 나타난 속담은 53개이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유형에서는 하위 유형으로 세분하지 않기로 한다.

다음이 그 예이다.

(73) 갯바치¹⁶⁾ 날 물리듯

: 말긴 일이 내일 된다 모레 된다 하는 식으로 약속한 날짜를 자꾸 미루는 것을 두고 비꼬는 말

(74) 고리 백장¹⁷⁾ 내일 모레

: 고리 백장들이 약속한 날짜를 잘 지키지 못하였다는 데서 나온 말로, 약속한 날짜를 자꾸 어길 때를 두고 비꼬는 말

(75) 널 짜는 목수는 사람 죽기만 바란다

: 다른 사람의 불행은 생각 않고 누구나 제 이익만을 탐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6) 백정이 가마를 타면 동네 강아지가 짖는다

: 제 격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면, 누구라도 업신여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 화장(靴匠, 신의 목이 있는 화(靴)를 제작)과 혜장(鞋匠, 신 목이 없는 혜(鞋)를 제작)으로 활동하였던 사람들을 주피장이라고도 하며, 우리말로로는 '갯바치'라고 일러왔다. 갯바치는 거죽은 비단이나 안은 가죽을 받친 데서 생겨난 말로 귀한 여자들의 비단신인 운혜(雲鞋)·온혜(溫鞋)·당혜(唐鞋), 남자들의 목화(木靴)·태사혜(太史鞋) 등을 만든다.

17) 백장은 백정과 같은 말. '고리장이(키버들로 고리짝이나 키 따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를 낮잡아 이르는 말.

(77) 뱃놈이나 되어라

: 뱃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데서 비롯되어 욕으로 이르는 말

(73), (74)에서는 ‘갯바치’와 ‘고리 백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정해진 날짜를 자꾸 미룬다는 뜻이다. ‘고리 백장’의 경우 ‘백장’이라는 어휘 자체에 차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75)는 자신의 이익만 생각한다는 뜻으로 ‘널 짜는 목수’라는 직업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한다. (76)은 백정이 가마에 타는 것이 개가 비웃을 만큼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 또한 ‘백정’에 대한 차별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백정’은 고려 시대에는 일반 농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조선 시대에는 소나 돼지 등을 도축하여 고기를 생산하는 직업으로, 당시에는 현대의 도축업자와 식육처리기능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었다. 신분도 고려 시대에는 양인이었지만 조선 시대에는 천민 계층에 속하였다. 조선 시대 때 천민은 당시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에 속했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과 업신여김을 당하였다. 이 속담 또한 그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77)의 ‘뱃놈’은 ‘뱃사람’을 비하하는 말로 배를 부리거나 배에 탑승하여 수상(水上)에서 일하는 사람을 뜻한다. 조선 시대에 뱃일은 천민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또한 차별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3.5. 종교 차별

오늘날 한국에서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갈등 및 종교 차별은 끊이지 않는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른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타문화와 타종교를 무시하고 파괴’했기 때문이다(박광서 2009: 178). 조선 시대에는 오로지 성리학, 즉 유교만 인정하였다.¹⁸⁾ 따라서 그 이전 시대인 고려의 국교였던 불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는 속담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선사 시대 이전부터 오랜 역사를 지닌 무속 신앙 또한 예외는 아니었으며, 심지어 ‘서학’이

18)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고려가 불교 때문에 흔들렸다고 생각하였다. 고려 시대 끝 무렵에 승려들이 고려 시대 끝 무렵에 승려들이 귀족과 손잡고 넓은 땅과 노비를 차지한 것도 모자라 세금도 내지 않아서 나라의 살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은 불교를 억누르고, 유교를 나라를 다스리는 억불 송유 정책을 널리 펴뜨렸다.

라 부르던 천주교에 관한 차별 표현도 나타났다. 종교에 관한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총 41개로 ‘불교’, ‘무속 신앙’, ‘천주교’에 대한 유형으로 세분하고자 한다.

먼저 ‘불교’에 관한 차별적 표현이 나타난 속담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78) 벌한테 쓰인 땡추중 꿀 :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79) 엉덩이 벗긴 중놈 뒤통 : 아주 정신없이 뛰어 달아나는 것을 두고 비유하는 말

(80) 중놈이 영불은 앓고 잣밥만 꿀떡거린다

: 해야 할 일은 무관심한 채, 엉뚱한 것에 욕심을 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8), (79)는 허둥대거나 정신없이 달아나는 승려의 모습을 희화하여 비하하고 있다. (80)은 승려가 영불을 외는 것에 충실하지 않고 다른 것에 욕심을 둔다는 뜻으로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81) 젊은 무당년 같다

: 젊은 화냥년처럼 한껏 사내와 놀아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2) 천주학을 할 놈

: 천주교를 믿을 놈이라는 뜻으로, 공연한 짓을 하여 말썽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1)은 무당을 비하하는 ‘무당년’이라는 표현이 쓰였으며, (82)는 천주교를 믿으면 말썽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그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경우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종교 차별의 하위 유형별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9> 종교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유형 분포	불교	무속	천주교	합계
개수	39	1	1	41(개)
비율	95.2	2.4	2.4	100(%)

<표 9>에 제시된 바에 따르면, ‘불교’에 대한 차별 표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은 조선 시대부터 유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차별이 많았고, 이는 속담과 같은 언어생활에 그대로 드러났다.

3.6. 외모 차별

한국 사회에서 외모 차별은 특히 심한 편이다. 그 결과 얼굴이 못생겼거나, 키가 작거나, 뚱뚱한 사람에 대한 비하와 멸시의 시선을 담은 차별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러한 와중에 외모가 뛰어나거나 매력적인 사람을 높이고 추종하는 ‘외모 지상주의’에 관한 표현이 함께 쓰이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된다. 특히 여성의 외모에 대한 차별 표현이 훨씬 자주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외모에 더 집중하는 성차별적 사회 분위기로 파악된다(이정복 2014: 59). 이러한 외모 차별은 오래 전부터 내려온 속담에서도 나타난다. 사전에 나타난 외모 차별에 관한 속담은 52개로, ‘신장 및 체격에 대한 비하’, ‘외모를 사물에 비유한 것’, ‘기타 표현’으로 세분할 수 있다.

다음은 외모 차별이 나타난 속담이다.

(83) 키 작고 안 까부는 놈 없고, 키 크고 안 싱거운 놈 없다

: 키가 작으면 경박하기 쉽고, 키가 크면 싱겁기 일쑤라는 뜻

(84) 키 크고 속 찬 놈 없다 : 키가 큰 사람은 알차지 못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5) 객줏집 칼도마 같다

: 객줏집은 칼도마를 유난히 많이 써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듯, 이마와 턱은 튀어나오고 얼굴 중간이 움푹 들어간 사람을 놀리는 말

(86) 우박 맞은 잣더미 같다 : 얼굴이 심하게 얼었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87) 장승 도깨비 같다

: 생김새가 매우 험상궂게 되었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88) 개꽃에는 나비도 아니 온다

: 못생긴 여자는 남자가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9) 옥니와 거적눈은 욕심 세다

: 이가 안쪽으로 옥은 사람과, 속눈썹 달린 윗눈꺼풀이 유난히 늘어져 있는 사람은 욕심이 많다고 판단한다는 뜻

위의 예들 가운데 (83), (84)는 ‘신장 및 체격’에 대한 차별 표현에 해당한다. (85)~(88)은 ‘외모를 사물에 비유’한 표현으로 특히 얼굴과 관련된 것이 많다. 특히 (88)은 여성을 꽃에 비유하였는데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개-’라는 접두사를 사용하여 여성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것을 표현하였다. 한편, (89)는 ‘기타 표현’에 해당하는데, 외모를 부정적인 성격과 연관시켜 못생긴 사람은 성격도 좋지 않다는 편견을 유발할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외모 차별의 하위 유형별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0> 외모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유형 \ 분포	신장 및 체격	사물에 비유	기타 표현	합계
개수	7	27	18	52(개)
비율	13.5	51.9	34.6	100(%)

외모 차별이 나타난 속담은 ‘외모를 사물에 비유’ 한 표현이 5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인다. ‘외모를 사물에 비유’ 한 표현은 대상이 되는 사물에 따라 차이를 보이겠지만, (85)~(88)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비유적 표현이 청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을 듯하다. 다음으로 ‘기타 표현’이 34.6%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표현에서는 ‘못생긴 년’과 같이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두드러져 성차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3.7. 계층 차별

계층은 재산, 지위, 신분 등 객관적 조건이 동일한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층 차별은 재산의 유무, 지위의 고하, 신분에 따른 차별적 언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계층에 관한 차별적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113개로, 크게 ‘재산의 유무’와 ‘신분’이라는 두 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⁹⁾ 여기에서 ‘신분’은 다시 ‘양반을 비하’하는 표현과 ‘양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나뉜다.

다음은 계층 차별이 나타난 속담이다.

(90) 가난한 놈은 성도 없다

: 가난하면 무시당하여, 성과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뜻

(91) 가난한 놈이 못난 놈이다

: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못난 놈 취급을 받게 된다는 뜻

(92) 거지도 꿈에는 임금 노릇 한다

: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꿈이나 공상 속에서는 최상의 황홀함을 추구한다는 말

(93) 비렁뱅이가 하늘을 불쌍히 여긴다

: 아주 가당치 않는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94) 없는 놈은 죽을 날도 없다

: 가난하면 일만 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 지위는 신분과 그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신분으로 통일해 살펴보기로 한다.

위의 예들은 ‘재산의 유무’에 따른 차별 표현이다. ‘가난, 거지, 비렁뱅이²⁰⁾, 없는 놈’ 등 비하의 뜻을 가진 어휘를 사용하였다. 위의 속담들을 보면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하고 못한 놈 취급을 받으며 더 나아지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95) 개 팔아 한 반 돌 팔아 한 반, 개돌 합쳐 양반
: 양반답지 않은 양반을 놀려주기 위하여 빗대어 이르는 말
- (96) 머슴살이 일도 많고, 시집살이 말도 많다
: 머슴살이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하고, 시집살이는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97) 상전은 종만 업신여긴다
: 상전은 자기 종만을 만만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꾸짖는 말
- (98) 상놈 새끼는 돼지새끼 : 상놈의 자식은 더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99) 상놈의 살림은 양반의 양식이라
: 양반이란 결국 상민이 일한 것으로 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이러한 예들은 계층 차별 중 ‘신분’에 따른 차별 표현에 해당한다. (95)는 조선 시대의 지배층이었던 양반을 조롱하는 표현이고, (96)~(99)는 피지배층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상놈’은 신분이 낮은 남자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99)의 ‘상놈’은 결국 양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아래 계층에 대한 차별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계층 차별의 하위 유형별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20) 거지를 낮잡아 이르는 말.

<표 11> 계층 차별 표현의 하위 항목별 분포

유형 분포	재산의 유무	신분		합계
		지배층 (양반)	피지배층 (종, 머슴, 상놈 등)	
개수	49	28	36	113(개)
비율	43.4	24.8	31.8	100(%)
		56.6		

계층 차별이 나타난 속담은 ‘신분’을 차별하는 표현이 56.6%로 가장 큰 비율을 보인다. 당시 조선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인 양반보다는 피지배층을 비하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3.8. 나이 차별

나이 차별 표현은 문자 그대로 나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언어적 표현에 해당한다. 주로 연소자나 연장자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는 표현이 이에 해당한다. 그 사람의 개성, 능력, 노력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데 쓰인다(이정복 2014: 58~59). 나이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총 76개로, 전체적인 유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나이 차별 표현은 그 하위 유형을 ‘연소자 차별’과 ‘연장자 차별’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다음은 나이 차별이 나타난 속담이다.

- (100) 대가리에 피도 안 말랐다 : 아직 무척 어리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 (101) 땃줄도 덜 썩었다 :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02) 턱 쪼가리에 털도 안 났다 :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03) 노인네 오기 고집이 황소 잡아먹는다
: 늙은이의 오기와 고집이 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04) 늙은이는 밥상 차려 놓으면 나간다
: 늙은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노여움을 잘 타고, 심술기도 적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05) 노장이 무용(無用) : 늙으면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106) 늙은 장수 쓸 데 없다
: 명색이 장수라지만 능력이 한계에 달하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07) 환갑 지난 늙은이, 망종 지난 보리
: 한창 시절은 가고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위의 예들 가운데 (100)~(102)는 연소자에 대한 차별 표현이라고 한다면, (103)~(107)은 연장자에 대한 차별 표현에 해당한다. 연소자에 대한 차별 표현은 연소자는 어려서 무언가를 할 수 없거나 아무것도 모를 것이라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즉 여기에서는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것만을 강조한 차별 표현이다. (103)~(107)의 예로 미루어 보면, 연장자는 고집이 세고 쓸모가 없으며 보잘 것 없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담겨있다.

다음은 지금까지 살펴본 계층 차별의 하위 유형별 통계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12> 나이 차별 표현의 하위 유형별 분포

유형 \ 분포	연소자에 대한 차별	연장자에 대한 차별	합계
개수	11	65	76(개)
비율	14.5	85.5	100(%)

나이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을 살펴본 결과, 연소자에 대한 차별보다는 연장자에

대한 차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차별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연중에게도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우려가 있다.

4. 한국 속담의 차별적 언어 표현과 전통적 세계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속담은 “오래전부터 민중의 삶의 지혜와 생각이 녹아있는 익숙한 말.”이다. 특히 한국 속담은 오랜 시간 한국 고유의 풍속을 내재하며 전승되어 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우리 문화의 정신적 가치관을 표현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 속담의 차별적 언어 표현과 여기에 나타나는 전통적 세계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제3장의 연구 결과를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3>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별 분포

장애 차별	성차별	계층 차별	나이 차별	외모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지역 차별	합계
328	290	113	76	56	53	41	28	985(개)
33.3	29.4	11.5	7.7	5.7	5.4	4.2	2.8	1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은 985개로 대략 1,000여 개가 확인되었다. 특히 장애 차별 표현과 성차별 표현이 다른 차별 표현보다 훨씬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표 13>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이 많이 나타난 순서대로 전통적 세계관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각각의 사례는 제3장에서 다시 가져오기로 한다.

장애 차별 속담의 경우, ‘장님, 애꾸, 귀머거리, 병어리, 문둥이, 언청이, 반편이, 병신’ 등의 어휘를 사용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드러냈다.

(108) 눈 뜬 장님

: 글이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9) 애꾸가 환히 보려 하고, 절름발이가 멀리 가려 한다

: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욕심을 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0) 귀머거리 귀 있으나마나

: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있어도 보탬이 안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1) 병어리하고 말하는 격

: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2) 문둥이 떼쓰듯 한다 : 분별력 없이 마구 떼를 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3) 언청이가 아니면 천하일색이다

: 커다란 흠 한 가지가 없으면 아주 빼어날 것인데 안타깝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4) 반편이 명산 폐묘시킨다

: 못난 것이 나서서,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망쳐 놓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5) 병신 고운 데 없다

: 몸이 불편한 데가 있으면 마음 씩씩이도 고울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이러한 표현이 나타난 대부분의 속담에서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애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성품까지 뒤틀려 있다고 표현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이미 고착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108)은 오늘날에도 널리 쓰이는 속담 중 하나이며, 잘못된 판단을 비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쓰이고 있다(김창수 2007: 26).

이정복(2014)에 따르면 장애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은 예전과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속담들이 장애인에 대하여 처음부터 직설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당사자들을 차별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속담의 주요 기능인 교훈과 풍자의 뜻을 비유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효과적 소재로 활용된 것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장애인들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들을 비하하며 차별함으로써 그러한 의미를 표현해야 할 필연성과 타당성은 없는 것이다.

성차별 속담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여성 차별에 대한 표현이 매우 두드러졌다. 여성은 가혹하게 사회적인 통제와 억압을 받았으며, 마땅히 누려야 할 사고력이나 판단력은 포기해야만 했다. 평생을 삼종지도에 복종하고, 칠거지악을 범하지 않으

려고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야 했다. 즉 독립된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적인 여성관이 자리잡게 되었다(방운규 2004: 53).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지위로 보았으며, 집안으로만 그 활동 범위를 제한했다. 또한 여성의 특징을 부정적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단정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하였으며, 여성의 운명을 남성에게 맡겨 수동적인 삶을 살게 했다. 특히 여성의 운명이 남성에게 달려있다는 인식은 가부장제가 사라진 지금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현대에 와서는 이러한 속담이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 곽은희(2014)에서는 다음의 속담을 그 예로 들고 있다.²¹⁾

- (116) ㄱ. 암탉이 울면 재수가 없다
 : 여자가 나대면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ㄴ. 암탉이 울면 알을 낳는다
- (117) ㄱ.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
 : 여자 팔자는 정해지지 않아 불안정하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 ㄴ. 남자 팔자 설거지 팔자
- (118) ㄱ. 딸 낳으면 윗목에 앉고 아들 낳으면 아랫목에 앉는다
 : 딸 가진 사람은 아들 가진 사람보다 안 좋은 대우를 받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ㄴ. 딸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 낳으면 기차 탄다

위의 예들 가운데 (ㄱ)은 전통적인 속담, (ㄴ)은 전통적인 속담을 패러디한 현대 속담이다. (116ㄱ)은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의 능력을 비하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117ㄱ)은 여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남자의 운명을 따라간다는 해석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을 주체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남성에 의존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8ㄱ)은 ‘남아중시’ 사상이 드러난 사례이다. (116ㄴ)은 여성을 의미하는 ‘암탉’ 이 울면 ‘알을 낳는다’ 고 하여 여성이 어떠한

21) 곽은희(2014)에서 제시한 속담 중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언어 표현이 있는 속담은 총 4개이다. 하지만 본고의 연구 대상으로 삼은 정종진(2006)의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속담은 3개이므로 그 3개만 제시하기로 한다.

일을 이뤄낼 수 있음을 나타낸다. (117ㄴ)과 (118ㄴ)은 전통적인 속담과 달리 남성의 사회적 지위를 약화시키는 속담으로 변이되어 생성되었다. 곽은희(2014)에 따르면 이는 약자로 상징되는 여성을 언중이 옹호하며, 오히려 속담 형성의 실제 대중이 이제는 과거의 지배층²²⁾과 그 위치가 바뀌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층 차별 속담은 조선 시대가 엄격한 신분제 사회였던 탓에 피지배층을 비하하는 표현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119) 가난한 놈은 성도 없다

: 가난하면 무시당하여, 성과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뜻

(120) 없는 놈은 죽을 날도 없다

: 가난하면 일만 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1) 개 팔아 한 반 돌 팔아 한 반, 개돌 합쳐 양반

: 양반답지 않은 양반을 놀려주기 위하여 빗대어 이르는 말

(119), (120)의 예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를 당하며, 끊임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121)와 같이 지배층인 양반을 조롱하는 내용의 속담은 탈층과 같은 하층민의 연행 예술에서 양반을 조롱하고 풍자한 것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나이 차별 속담은 그 사람의 개성, 능력, 노력 등을 무시하고 오로지 나이가 적거나 많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2) 대가리에 피도 안 말랐다 : 아직 무척 어리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23) 노장이 무용(無用) : 늙으면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22)와 (123)에서 알 수 있듯 연소자는 나이가 어려서 무언가를 할 수 없거나 아무 것도 모를 것이라고 보며, 연장자는 나이만 많아서 고집이 세고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외모 차별 속담은 외적인 아름다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가 나타난 것이다.

22) 여기서 말하는 지배층은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는 전통 사회의 지배층으로, ‘남자’를 일컫는다.

(124) 키 작고 안 까부는 놈 없고, 키 크고 안 싱거운 놈 없다

: 키가 작으면 경박하기 쉽고, 키가 크면 싱겁기 일쑤라는 뜻

(125) 개꽃에는 나비도 아니 온다

: 못생긴 여자는 남자가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5)는 남성보다 여성들의 외모에 더 집중하여 성차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 보여 외모 지상주의가 꽤 오래 전부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 차별 속담은 직업에 대한 차별적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있었고, 따라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격이 낮다고 인식되는 직업명의 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적 언어 사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126) 뱃놈이나 되어라

: 뱃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데서 비롯되어 욕으로 이르는 말

(126)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전통 사회에서는 천민들이 주로 뱃일을 했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천하게 보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뱃일을 하는 사람을 ‘놈’으로 낮잡아 이르면서 비하의 뜻을 나타냈다.

종교 차별 속담은 조선 시대의 국교였던 유교 외의 종교에 대한 차별 표현으로 나타났다.

(127) 별한테 쏘인 땡추종 꿀 :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28) 엉덩이 벗긴 중놈 똥똥 : 아주 정신없이 뛰어 달아나는 것을 두고 비유하는 말

(127), (128)과 같이 특히 승려들에 대한 지칭 명사에 ‘놈’자가 붙고, 그들의 행동을 웃음거리로 표현한 속담이 많았는데, 이를 통해 다른 종교보다 불교에 대한 차별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 차별 속담은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비롯되며, 특정 지역과 그 지역 사람들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129) 강원도 감자바위 : 강원도에서 태어났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130) 담양 갈 농 : 담양(潭陽)으로 정배살이²³⁾를 갈 농이라는 뜻으로 남을 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알잡아서 하는 말

(131) 경상도 고집이다 : 무척 고집이 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2) 충주 자린고비다 :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을 빗대는 말

위와 같은 지역 차별이 나타난 예들은 서울 중심적 사고, 즉 수도권 중심적 사고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23) 죄인이 지방이나 섬에 가서 귀양살이하던 것.

5. 결론

지금까지 정종진(2006)의 《한국의 속담 대사전》을 대상으로 한국 속담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을 여덟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본고의 논의 전개 과정 및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민중의 의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속담에서 차별적 언어 표현을 ‘성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외모 차별’, ‘계층 차별’, ‘나이 차별’의 여덟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차별 표현이 나타나는 속담을 유형에 따라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속담에 나타나는 차별적 언어 표현의 실태를 확인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또 연구 대상과 방법을 설정한 후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차별적 언어 표현’과 ‘속담’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차별적 언어 표현은 ‘차별’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화자의 인식에 바탕을 두었는데, 청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에 해당한다. 그러한 표현은 의사소통 상황 안에서 청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음은 물론, 그 대상이 집단일 경우 집단 간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통합의 저해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기존 연구자들의 속담에 대한 정의를 종합한 결과, 속담은 오래 전부터 민중의 삶의 지혜와 생각, 그리고 태도가 녹아 있는 익숙한 말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단일한 의미를 지니는 관용어로서 ‘관습성’, ‘토속성 및 통속성’, ‘교훈성’, ‘풍자성’을 그 특징으로 지님을 알 수 있었다.

조태린(2006), 박혜경(2009), 이정복(2014)의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본고의 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은 ‘성차별’, ‘장애 차별’, ‘지역 차별’, ‘직업 차별’, ‘종교 차별’, ‘외모 차별’, ‘계층 차별’, ‘나이 차별’의 여덟 가지로 분류하였다.

제3장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삼았던 정종진(2006)의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서 각 유형에 따라 차별적 언어 표현이 나타난 속담을 추출하여 유형별로 분류하고 계량적으로 비교한 후, 이에 따른 각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속담 대사전》에 나타난 차별적 언어 표현은 985개로 대략 1,000여 개가 확인되었으며, 특히 장애 차별 표현과 성차별 표현이 각각 328개, 290개로 다른 차별

표현보다 훨씬 두드러졌다. 유형별 특징에 대한 정리는 3장에 제시된 순서를 따르기로 한다.

성차별이 나타난 속담은 ‘여성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표현’이 59.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여성을 비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녀의 사회적 지위까지 불평등하게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여성을 남성의 아래로 간주하고 남성에게 종속된 존재로 보면서 제한적이고 고정된 역할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현대에 변이되어 생성된 속담 몇 가지를 살펴보면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전통 사회에서 지배층이었던 ‘남성’과 피지배층이었던 ‘여성’이 뒤바뀌어 나타나는 현상 또한 볼 수 있었다.

장애 차별에 관한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시각 장애’ 차별 표현이 50.6%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시각 장애인들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농업 중심의 우리 사회에서 다른 장애인들에 비하여 농사일에 참여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시각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지위는 낮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태도가 속담에 그대로 반영됨과 동시에 사람들에게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고착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역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지역민의 특성’에 대한 차별 표현이 7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속담에서도 해당 지역민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상당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직업 차별과 관련된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신분제도의 영향을 받아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거나 상대적으로 격이 낮다고 인식되는 직업 이름의 사용과 관련하여 차별적 언어 사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불교’에 대한 차별 표현이 95.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조선 시대부터 유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 불교에 대한 차별이 많았고, 이는 속담과 같은 언어 생활에 그대로 드러남을 보여 준다.

외모 차별에 관한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외모를 사물에 비유’한 표현이 51.9%로 가장 많았다. 또 남성보다는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이 두드러져 성차별적인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계층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신분’을 차별하는 표현이 56.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신분제 사회였기 때문에 지배층인 양반보다는 피지배층을 비하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나이 차별에 대한 표현이 나타난 속담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 대한 차별보다는 나이

가 많은 사람에 대한 차별이 85.5%로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러한 차별 표현은 듣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연중에게 부정적인 인식만 심어줄 우려가 있다.

제4장에서는 3장에서 살펴보았던 차별적 언어 표현이 나타난 속담들을 통해 전통적 세계관을 살펴보았다. 종합해보면 전통 사회는 성리학 즉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보다 더 닫혀 있는 태도로 차별이 심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는 수많은 차별 또는 혐오 표현이 쓰이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성별, 계층, 지역, 종교, 인종 및 민족, 이념과 정치 성향, 성적 지향을 달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립과 갈등, 실제적 충돌이 심해지고 있다(이정복 2017: 10). 이러한 차별적인 언어 표현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담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민중의 언어 생활과 가까운 속담에 차별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의 인식에 충분히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차별 표현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차별 표현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지하고 그 사용을 줄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바이다. 또한 본고에서 살펴본 여덟 가지의 유형 중 장애 차별과 성차별 표현 외의 다른 차별 표현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므로 후속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하며, 차별 표현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 강성영(2002), <프랑스 속담과 우리나라 속담에 있어서 성차별 요소 및 그 의미 기능 비교 연구>, 《한국프랑스학논집》 40, 한국프랑스학회, pp.1-22.
- 곽은희(2013), <현대 속담의 갈등 구조와 해학성>, 《한국언어문학》 87, 한국언어문학회, pp.95-119.
- _____ (2014), <현대 수수께끼와 속담의 형성과 의미 연구>, 한남대 석사학위논문.
- 국립국어원·한국어문교열기자협회(2009), 《이런 말에 그런 뜻이? - 차별과 편견을 낳는 말들》, 국립국어원.
- 김수아(2017),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혐오, 차별 표현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 차별 표현의 문제와 개선 방안>, 《새국어생활》 27-3, 국립국어원, pp.49-63.
- 김종택(1994), <속담의 기능과 의미 구조>, 《새국어생활》 4-2, 국립국어원, pp.26-45.
- 김진국(1988), <지역감정의 실상과 해소방안>,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pp.79-101.
- 김창수(2007), <속담을 통해 본 한국인의 시각장애인관>,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1988), <지역간 고정관념과 편견의 일상>,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심리학회, pp.37-62.
- 노경란, 방희정(2008), <한국대학생과 국내체류 외국대학생 가나에 인종에 대한 명시적 및 암묵적 태도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4, 한국심리학회, pp.75-92.
- 박경태(1999), <한국사회의 인종차별 : 외국인 노동자, 화교, 혼혈인>, 《역사비평》 48, 역사비평사, pp.189-208.
- 박광서(2009), <불교 입장에서 본 종교차별 실태와 해법>, 《종교문화학보》 6, 한국종교문화학회, pp.177-197.
- 박동근(2010), <공공언어의 차별적 표현에 차별 의식 연구>, 《입법정책》 4-1, 한국입법정책학회, pp.57-88.
- 박성진(2008), <한국 속담과 일본 속담에 나타난 여성 차별 표현의 비교>,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지원(2017), <법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혐오, 차별 표현 - 입법적 규제의 필요성>, 《새국어생활》 27-3, 국립국어원, pp.33-47.
- 박혜경(2009), <차별적 언어 표현에 대한 비판적 국어인식 교육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박호관, 이정복(2012), <다문화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언어 차별>, 《인문과학연구》 39, 대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방운규(2004), <여성 관련 속담에 나타난 한국인의 의식구조>, 《겨레어문학》 32, 겨레어문학회, pp.51-83.
- 송하일(2007), <성차이어와 성차별어에 관한 고찰>, 아주대 석사학위논문.
- 심홍식(2002), <우리나라의 장애관련 속담에 관한 분석적 연구>, 공주대 석사학위논문.
- 안국진, 유요한(2010), <한국 내 종교갈등 및 종교차별 상황 극복을 위한 제언>, 《종교와문화》 19, 서울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p.181-206.
- 양영희(1990), <한국 속담의 의미론적 연구>, 전남대 석사학위논문.
- 오승현(2011), 《말이 세상을 아프게 한다 - 차별과 편견을 허무는 평등한 언어 사용 설명서》, 살림출판사.
- 윤운영(1997), <언어에서의 성차별적 표현>, 《여성연구논집》 8,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pp.105-119.
- 이길용(2011), <문화 다양성 사회의 의사소통 연구 -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의식을 중심으로>, 《다문화콘텐츠연구》 10,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pp.49-74.
- 이정복(2007), <한국어 사전에 나타난 성차별 언어 연구>, 《한국어학》 34, 한국어학회, pp.257-300.
- _____ (2009가), <한국 사회의 인종차별적 언어화에 대한 비판적 분석>, 《언어과학연구》 48, 언어과학회, pp.125-158.
- _____ (2009나), <한국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표현>, 《텍스트언어학》 27, 한국텍스트언어학회, pp.215-244.
- _____ (2010), <한국 직업 이름의 위계와 차별>, 《우리말글》 49, 우리말글학회, pp.1-36.
- _____ (2013), <사회적 소통망(SNS)의 지역 차별 표현>, 《어문학》 120, 한국어문학회, pp.55-83.

- _____ (2014), 《한국 사회의 차별 언어》, 소통.
- _____ (2017), <한국어와 한국 사회의 혐오, 차별 표현>, 《새국어생활》 27-3, 국립국어원, pp.9-31.
- 임영철, 이길용(2010), <장애인 차별어에 대한 의식 및 대안표현 유형 연구>, 《일본 언어문화》 17,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187-209.
- 정기월(2013), <여성 차별 관련 한·중 속담 비교>,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 정종진(2006), 《한국의 속담 대사전》, 태학사.
- 정종화(1995), <한국 전통사회의 정신문화 구조 양상>, 《성곡논총》 26-1, 성곡언론문화재단, pp.1113-1203.
- 제민경(2017), <교육적 관점에서 본 혐오, 차별 표현 - 담화 공동체에서 차별 없는 언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27-3, 국립국어원, pp.65-77.
- 조천(2013), <한·중 관용표현의 비교 연구 : 속담의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선문대 박사학위논문.
- 조태린(2006), 《사회적 의사소통 연구 - 차별적, 비객관적 언어 표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연구보고서, 국립국어원.
- _____ (2011), <차별적 언어 표현과 사회 갈등의 문제>, 《나라사랑》 120, 외솔회, pp.388-410.
- 주도(2015), <한국과 중국의 속담에 나타난 장애인 차별 표현의 비교 연구 >, 대구대 석사학위논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

<부록 1> 성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 가구는 벌리면 망가지고, 여자는 돌리면 버리게 된다
(가구를 집 안에 두고 쓰듯이, 여자를 집 밖으로 나돌게 하면 좋지 않은 일을 당하기 쉽다)
2. 가까운 집 며느리일수록 흥이 많다
(가까운 집이니 자주 드나들고 늘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단점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3. 가는 년이 물 길어다 놓고 갈까
(어떤 일을 포기한 사람이 뒷일을 생각하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뜻)
4. 가랑비 만난 미친년 같다
(이유도 없이 히죽히죽 웃는 사람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5. 가루 본 김에 딸 치운다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평소 못한 일을 해치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 가시나 못된 것이 과부 중매 선다
(제 앞을 가려야 될 처지에 주제 넘게 남을 돕는다고 나선다는 뜻)
7. 가을 배와 가을 고등어는 며느리에게 주지 않는다
(가을 배와 마찬가지로 가을 고등어가 무척 맛이 있다는 뜻)
8. 가재와 여자는 가는 방향을 모른다
(여자는 일 도중에 생각을 갑자기 바꿔,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을 할 수 없다는 뜻)
9. 가족신 세 켤레 닳으면서 얻어 온 며느리가 방귀만 편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맞아온 며느리가 아주 형편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 가족신 안 맞는 것은 일 년 걱정이고, 성깔 나쁜 아내는 평생 걱정이다
(아내를 잘 얻어야 평생이 불행하지 않다는 뜻)
11. 가치 없는 색시는 자기 서방 굶도 못 한다
(여자가 못나면 제 남편을 위한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 각관 기생 열녀 되랴
(각관(各官)은 옛날의 모든 관아를 말한다. 그 관아에 속해 있는 기생들이 열녀가 될 수 없다는 말이니, 근본을 쉽게 바꿀 수 없다는 뜻)
13. 간사한 아내는 온 가족의 화목을 깨뜨린다
(아내를 잘못 얻으면 온 가족의 화목을 해치게 되니 신중해야 한다는 말)

14. 개 못된 것은 들에 가서 짓고, 여자 못난 것은 달밤에 샷갓 쓰고 거닌다
(막상 필요한 고세서 도리를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쓸모없는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 개와 여자는 맞아야 길이 든다
(여자를 남자의 뜻대로 길들인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
16. 거동길 닦아 놓으니까 미친년이 먼저 지나간다
(거동길은 임금의 나들이 길. 공들여 해놓은 일을 휘방꾼이 잡쳐 놓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 게으른 년은 열 손가락으로 물만 튕긴다
(게으름을 피우는 여자들을 빗대어 이르는 말)
18. 게으른 년은 쫓아 버리고, 군음식 잘해 먹는 년은 놓아둔다
(무엇보다도 게으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 게으른 년은 콧등에 앉은 파리도 헛바닥으로 쫓는다
(더없이 게으르고 미운 짓이나 한다는 뜻으로 비꼬아 이르는 말)
20. 게으른 년이 밭은 안 매고 이랑만 센다
(일은 더 하지 않고 해찰만 부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 게으른 년이 선들바람에 삼베 짠다
(게을러서 일하기 좋은 때는 놓치고, 좋지 않은 때에서야 바쁜 척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 게으른 년이 선달 그름에 부지런 떠다
(일을 제 때에 하지 않고 미루기만 하다가 뒤늦게 서두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 게으른 년이 아이 핑계대고 낮잠만 잔다
(오로지 아이 보는 것만 내세워 게으름 떠는 여자를 빗대는 말)
24. 계집 강짜엔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의 질투가 하도 매서워 여름철에도 서리가 내릴 정도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 계집 고운 것과 바다 고운 것은 바람 탄다
(파도가 잔잔하다 격해지듯, 여자의 마음도 쉽게 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 계집 고집 센 것은 몽둥이찜질이 약이다
(여자 고집 센 것은 몽둥이로 고쳐야 한다는 말)
27. 계집과 집은 가꿀 탓이다
(집을 늘 다독거리면 윤기가 돌듯이, 여자도 남자가 잘 돌봐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 격의 높낮이가 결정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 계집년 말 많은 것은 하늘도 안다
(여자가 타고난 습성은 남자에 비해 말이 많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는 뜻)
 29. 계집 때린 날 장모 온다
(일이 공교롭게 겹쳐 낭패를 보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 계집아이를 낳으면 두 번 운다
(태어날 때 서운해서 울고, 시집 갈 때 섭섭해서 운다는 뜻)
 31. 계집애가 글을 하면 팔자가 사납다
(옛날 글을 하는 것은 남자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통용되던 말)
 32. 계집애는 욱 밀천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을 화제로 삼아 흥을 잡기 일쑤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33. 계집 엉덩이가 한 짐에는 못 지고 짐 반은 되겠다
(엉덩이가 무척 큰 여자를 조롱하여 이르는 말)
 34. 계집은 꿀값을 한다
(여자가 예쁘게 생기면 생긴 만큼 티를 내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5. 계집은 늙으면 여우 된다
(여자가 늙으면 간사스러운 정도로 영민하기도 하고, 주장이 강해져 남편을 압도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6. 계집은 사내가 제 팔자요, 사내는 시대가 제 팔자라
(여자는 사내의 능력에 따라 팔자가 정해지고, 남자는 시대의 좋고 나쁨에 따라 팔자가 결정된다는 뜻)
 37. 계집은 사흘만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여자는 사흘에 한 번쯤 매를 대야 한다는 말)
 38. 계집은 젊어서는 여우가 되고, 늙어서는 호랑이가 된다
(여자가 젊을 때는 남자의 비위를 잘 맞추다가, 늙으면 제 주장이 강해져 남편을 압도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9. 계집은 제 입 썩 줄 모른다
(많은 여자들이 수다스럽지만, 본인들은 깨달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0. 계집은 질투를 빼놓으면 두 근도 안 된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질투가 더 심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1. 계집을 오래 상종하면 생니 뽑아달라고 한다

- (여자와 오래 정을 나누면 별의 별 요구를 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2. 계집의 간이란 적을수록 좋은 법이다
 (여자의 배짱이 크면 일만 크게 저지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3. 계집의 강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여자의 시기와 질투는 분별력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4. 계집의 주둥이는 사기 접시를 뒤집어 놓는다
 (여자들의 입방정이 결코 예사롭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5. 계집이 너무 덩벙이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바깥 일에 지나치게 나서면 집안 꼴이 안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6. 계집이라는 게 변덕스러운 초가을 하늘이라
 (여자의 언행은 무척 변덕스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7. 계집이란 쉬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변철이요, 여우비 오는 여름 날씨라
 (여자의 마음은 쉬 달아올랐다 식고, 조변석개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8. 계집이란 첫째가 인물이다
 (여자란 무엇보다도 인물이 잘나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49. 계집이 얼굴이 예쁘면 얼굴 값을 한다
 (여자가 얼굴이 예쁘면 그만큼 고분고분하지 않는다든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0. 계집이 요망하면 솔뚜껑을 깬다
 (요망(妖妄)하다는 말은 요사스럽고 망녕되다는 뜻. 여자는 착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51. 계집 입 썩 것은 세상이 다 안다
 (남자에 비해 여자가 수다스럽다는 뜻으로, 입이 썩면 화를 불러오기 때문에 무익할 뿐이라는 말)
52. 계집 잘못 얻으면 평생 원수다
 (남자가 여자를 잘못 만나게 되면 평생토록 후회만 하게 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53. 계집 주전부리에 사내 등골만 빠진다
 (주전부리를 즐기는 여자는 살림을 소홀하게 되니까 남자가 고생을 심하게 한다는 말)
54. 계집치고 요물 아닌 것 없다
 (여자가 남자를 잘 흘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5. 계집하고 전답은 주인이 따로 없다
(여자의 주인은 따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6. 고운 계집은 바람 탄다
(고운 여자는 옷 사내들이 따르고 충동질하기 때문에 탈선하는 수가 많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7. 고집 센 년은 몽둥이가 약이다
(고집 센 것은 말로 안 되니까 때려야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8. 관에서 매 맞고 집에 와서 계집 친다
(다른 곳에서 화를 당하고 엉뚱한 곳에서 분풀이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9. 그릇 잘 깨는 여자는 팔자가 세다
(그릇을 잘 깬다는 것은 성격이 차분하지 못해서 그럴다고 여겨, 차분하게 일하도록 경계하는 말)
60. 곳발이 다섯 아니면 일곱이니, 계집 팔아먹어야겠다
(노름판에서 곳수가 어정쩡하게 나오니 돈 잃기 십상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61. 나가는 년이 물 길어놓고 갈까
(일이 이미 뒤틀어진 처지에 있는 사람이 뒷일까지 생각하겠느냐는 뜻으로 빗대는 말)
62. 남자가 버는 것은 황소 걸음이고, 여자가 버는 것은 거북 걸음이다
(남자의 돈 벌이는 크고, 여자의 경우는 작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3. 남자가 여자에게 눌러 지내면 집안이 망한다
(남자의 기(氣)가 강해야 집안이 잘 되는데, 여자에게 주눅들면 집안의 기운도 쇠한다는 뜻)
64. 남자는 그릇이고 여자는 물이라
(여자는 남자 만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65. 남자는 나이 먹으면 어른이 되고, 여자는 나이 먹으면 여우가 된다
(나이가 들면 남자는 사리분별력이 생기고 여자는 간교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6. 남자는 배짱, 여자는 순결
(남자는 강한 의지로 살고, 여자는 순결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미덕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67. 남자는 안에서 하는 일을 말하지 말고, 여자는 밖에서 하는 일을 말하지 말랬다
 (남자는 집안의 일에 대해 지나치게 참견말고 여자는 바깥 일에 지나친 참견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68. 남자는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나고, 여자는 죽을 때가 돼도 철이 안 난다
 (인간이란 뒤늦게 철이 나거나 영영 나지 않거나 하는데, 남자의 경우가 여자보다 조금 낫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9. 남자 셋이 모이면 문수의 지혜가 생기고, 여자 셋이 모이면 여우가 생긴다
 (문수(文殊)는 지혜를 담당하는 보살. 남자 여럿이 있으면 많은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반면, 여자들이 많이 모이면 한결같이 여우 짓이나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0. 도망가는 년이 보리방아 짚어 놓고 갈까
 (모든 것을 팽개치고 가는 판에 하찮은 살림 걱정을 할 리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1. 된장 신 것은 일 년 원수, 여편네 못된 것은 백 년 원수
 (아내를 잘 얻는 것이 평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72. 두부 딱딱한 것과 여자 딱딱한 건 쓸모가 없다
 (여자는 상냥하고 부드러워야 좋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73. 딸 가진 사람은 아랫길로 간다
 (딸 가진 사람은 아들 가진 사람보다 저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4. 똥 권 년이 바람맞이에 선다
 (미운 짓을 한 사람이 한 술 더 뜬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75. 똥 권 년이 성낸다
 (미운 짓을 한 주제에 되레 화를 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6. 마누라가 악하면 백 년 원수요, 장맛이 나쁘면 일 년 원수라
 (아내를 잘못 얻으면 평생 고생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7. 마누라에게 이야기하면 새나간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8. 마음이 슬프면 과부 된다
 (마음을 명랑하게 갖는 것이 좋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79. 막창 계집년 서방 바꾸듯
 (어떤 것을 수시로 바꾼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80. 만만한 년은 제 서방 빨래도 못 한다
(사람이 변변치 못하면 응당 제 차지도 놓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1. 말 많은 것은 과부 집 종년이라
(과부의 외로움을 달래주기 위해 종이 말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으로, 말 많은 사람을 빗대는 말)
82. 말 많은 여자가 행동은 느리다
(말이 앞서면 게으르기 일쑤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83. 말썽 끝에 여자와 종이 끼지 않은 적이 없다
(크게 말썽이 있는 일에는 여자와 종이 꼭 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4. 말이 많으면 과부 된다
(말은 적게 할수록 좋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85. 며느리가 모이면 시어머니 험담하고, 시어머니가 모이면 며느리 흥본다
(끼리끼리 모이면 남의 흥이나 보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6. 못난 여자는 거울만 나무란다
(못난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남 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7. 미운 년이 혀 내밀며 덤빈다
(미운 사람이 미운 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8. 바가지밥 보고 계집 내쫓는다
(아내가 바가지에다 밥 먹는 것을 보고, 밥 많이 먹는다고 오해를 하여 쫓아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9. 바다 물결 고운 것 하고 계집 눈매 고운 것 믿지 말라
(바닷물은 잔잔하였다가 금방 거칠어지고, 고운 계집은 곧값 하느라고 마음이 쉽게 변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90. 밖에서 뽀 맞고, 집에 와서 계집 친다
(다른 곳에서 화를 당하고 엉뚱한 데서 화풀이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1. 반상 물론하고 계집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
(귀천을 막론하고 대부분의 여자는 마음이 쉽게 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2. 밤중에 놀러 다니면 유녀라고 한다
(유녀(遊女)는 창녀. 여자들이 밤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르는 말)
93. 배에 여자가 타면 재수가 없다
(배에 여자가 타면 남자들이 일을 하는데 불편한 점이 무척 많다는 뜻으로 빗대어

- 이르는 말)
94. 보기 싫은 년이 더 덤빈다
(달갑지 않은 것일수록 오히려 더 귀찮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5. 북어와 여자는 두들겨야 한다
(여자를 가끔 때려야 고분고분해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6. 불여우 같다
(무척 간교한 여자를 두고 비유해 이르는 말)
 97. 사나운 말이 수레를 부수고, 악한 아내가 집안을 망친다
(성미가 좋지 않은 여자는 패가망신을 시키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98. 사내는 배짱, 여자는 절개
(사내다움은 배짱 있는 행동에 있고, 여성은 절개를 지켜야 덕이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9. 사내는 좁쌀만큼 벌어들이면, 아내는 말뚱만큼 먹는다
(사내의 벌이는 시원찮은데, 여자가 먹어치우는 것은 많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0. 산 농의 계집은 호랑이도 못 물어간다
(산(山)에서 사는 계집은 억척스럽기 때문에 호랑이조차도 범접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1. 살림 못하는 년은 사내 등골만 빼먹는다
(살림을 알뜰하게 하지 못하면 씹씹이가 커져 남편만 고생시킨다는 뜻)
 102. 살림 못하는 년이 양식 주고 옛 사먹는다
(일하는 데는 게으르면서 제 몸 모양을 내거나 주전부리에만 신경을 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3. 살림 못하는 며느리 말만 많다
(못난 며느리가 남의 흉을 잘 보거나, 수다를 떠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04. 삼십 넘은 계집은 설 천 무
(설 천 무는 쓸모가 없다는 것처럼, 삼십 세가 지난 여자는 매력을 잃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5. 상년 주제에 절개 따진다
(하찮은 주제에 고결한 척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6. 서방 잡아먹은 년이다
(남편이 먼저 죽은 과부를 빗대는 말)

107. 서방질 하다가 들킨 년 같다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08. 설거지는 마누라 차지
(일의 뒤처리하는 모두 아내에게 떠맡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9. 세상천지 다 아는 여편네 화냥질, 제 서방놈만 눈치 못 챈다
(정작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람만 모른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10. 소문난 열녀 똥구멍으로 호박씨 깬다
(소문과 실상은 크게 다르다는 뜻이거나, 겉보기와 속내는 아주 다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1. 소박데기 골방마님
(소박데기란 소박맞은 여자를 낮춰 부르는 말. 아기를 못 낳고 소박맞은 여자가 작은 마누라에게 안방을 빼앗기고 골방을 차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2. 소박데기 육은 무덤 들먹이듯
(소박 맞은 여자가 걸핏하면 조상 탕을 한다는 말로, 똑같은 소리로 푸념을 해댄다는 뜻)
113. 소에게 한 말은 안 나도, 아내에게 한 말은 난다
(사람 누구에게나 한 말은 비밀이 유지되기 어렵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4. 속 다르고 겉 다른 것이 여자다
(여자는 겉보기와 속내가 크게 다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5. 손가락에 불을 켤 년
(무척 독한 성격을 가진 여자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6. 수박 열매 맺을 때 몸 굶은 여자 다녀가면 수박 깨진다
(수박 열매가 맺을 때 생리하는 여자가 드나들면 부정탄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
117. 실없는 가시내 엉덩이 풀 듯
(무슨 일을 아주 쉽게 허락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8. 쏘가리 같은 여편네
(성미가 무척 날카로운 여자라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19. 아내가 남편보다 똑똑하면 집안이 망한다
(아내가 똑똑하여 남편을 무시하게 되면 가정의 화목이 깨지게 된다는 뜻)
120. 아내가 비록 어질지라도 바깥 일에는 관여하지 말랬다
(여자가 아무리 현명하더라도 남편의 일에 직접 나서지 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121. 아내 나쁜 것은 백 년 원수, 된장 신 것은 일년 원수
(아내를 잘못 맞아들이면 평생토록 후회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2. 아내는 남편 손에 붙은 밥풀이다
(여자의 평생은 남편을 잘 얻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3. 아내는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된다
(아내는 어떤 일에 대해 충고는 하되, 결정권은 남편한테 주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124. 아내는 바깥 일에 간섭하지 말고, 남편은 집안 일을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부부간에는 서로의 영역을 간섭하지 말고 자기 영역에서 제 할 바를 잘 해내면 된다는 뜻)
125.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한다
(아내는 남편에게 조언을 해주되 남편을 꺾으려 하지 말라는 뜻)
126. 아내로서 보물은 유순이다
(아내가 유순하면 가정이 평화롭게 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27. 아내를 잘못 얻으면 대들보가 부러진다
(아내를 잘못 얻으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8. 아내 못된 건 백 년 원수요, 된장 신 건 일 년 원수라
(된장이 잘못된 것은 일 년 속 썩이면 되지만, 아내를 잘못 얻으면 평생 원수로 여기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9. 아내 없는 것은 안 섬섬해도, 나무 담배통 잃은 것은 더 섬섬하다
(크게 손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하찮은 손해를 가지고 안타까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0. 아내의 행실이 어질면 남편의 화가 적어진다
(아내가 어질면 자연스럽게 남자의 위신도 당당해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1. 아내한테 한 말은 나도, 소한테 한 말은 안 난다
(사람이면 누구라도 비밀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2. 아녀자는 글을 못 해야 복이 많다
(옛날에 여자들을 집안 일에만 전념하도록 하기 위해 이르던 말)
133. 아들 못난 것 제 집만 망하고, 딸 못난 건 양사돈이 망한다
(아들보다는 딸의 언행이나 처신이 큰 영향력을 갖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34. 아름다운 계집을 길들인다는 건 양범을 길들이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아름다운 여자는 꿀값을 하게 마련이어서, 제 마음대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5. 아침에 여자와 말다툼을 하면 재수가 없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이니만큼 행동을 잘해서 여자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6. 암탉이 먼저 울어 날 새는 법 없다
 (여자가 설쳐대서 잘 되는 일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7.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에 재앙이다
 (여자가 엉뚱한 짓을 하면 예사롭지 않은 흉사가 생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8.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나대면 집안 일이 제대로 될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9. 암탉이 울어 날 새는 일 없다
 (남자가 할 일을 여자가 하려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0. 암탉이 울어서 날 새는 일 없고, 장닭이 울어서 날 안 새는 일 없다
 (남자가 할 일은 여자가 해서는 안되고, 남자기 해야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41. 양전한 며느리가 부엌에서 호박씨 깐다
 (겉으로는 양전한 것 같으나 실상은 정반대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2. 어진 아내라도 바깥일에는 간섭 말렸다
 (아무리 어진 아내라도 남편 하는 일에 간섭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뜻)
143. 여우 꼬리와 여자 혀
 (간교하게 움직이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4. 여우는 꼬리가 크고, 여자는 혀가 크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수다스럽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45. 여우비 같은 계집의 변덕이라
 (여자의 변덕이 매우 심하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46. 여자가 고집이 세면 팔자도 세다
 (여자의 고집이 세면 서로 화목하지 못해서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다는 뜻)
147. 여자가 나돌면 일판 터지고, 점시를 내돌리면 깨진다
 (여자가 집 밖으로 나돌면 좋지 않은 일만 생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8. 여자가 날뛰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다소곳하지 않고 함부로 나대면 가정이 불행해진다는 뜻)
149. 여자가 남자 다리나 허리를 넘으면 재수가 없다
 (여자가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50. 여자가 닭의 목이나 발을 먹으면 그릇 깬다
 (여자는 먹거나 행동하는데 이것저것 조심하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151. 여자가 뚱뚱하면 성미가 거칠다
 (여자의 몸집이 뚱뚱하면 괘괄한 성격이기 쉽다는 뜻)
152. 여자가 말이 많으면 과부 된다
 (여자가 수다스러우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3. 여자가 바깥일에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여자는 집안의 일만 하도록 하기 위해 이르는 말)
154. 여자가 박색이어야 자식 낳기를 잘 한다
 (못생긴 여자가 오히려 자식 낳기는 잘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5. 여자가 발등을 깨면 과부가 된다
 (여자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세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56. 여자가 버는 것은 쥐벌이다
 (여자가 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아주 적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7. 여자가 살림을 못하면 남자 등골이 빠진다
 (여자가 집안 살림을 알뜰히 해야 남자가 고생을 덜하게 된다는 뜻)
158. 여자가 새벽에 오면 재수가 없다
 (남의 집에 이른 새벽에 찾아가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59. 여자가 셋이면 나무 접시가 드논다
 (여자가 세 명 이상만 모여 앉으면 하도 수다를 떨어, 그릇조차 드눌 정도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0. 여자가 열이 모이면 쇠도 녹인다
 (여자들 여럿이 수다를 떨면 어떤 것도 배겨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1.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삼 년 동안 가뭄이 든다
 (여자의 원한은 무척 모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2. 여자가 잔소리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필요 이상으로 잔소리를 해대면 갈등이 생겨 집안이 화목할 수 없다는 뜻)

163. 여자가 제 고을 장날을 알면 집안이 못 산다
 (여자가 집 밖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
164. 여자가 한번 독한 마음 먹으면 비상보다 더 독하다
 (여자의 독한 마음이 발동하면 더없이 독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5. 여자가 한을 품고 죽으면 오뉴월에도 서리를 내리게 한다
 (여자의 한은 예사롭지 않게 모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66. 여자가 한 집에 아홉이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많다는 것은 과부와 첩들이 많다는 뜻이어서, 그런 집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말)
167. 여자가 활수면 벌어들여도 시루에 물 붓기다
 (활수란,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쓰는 습관. 여자가 돈을 함부로 쓰면, 그 뒤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8. 여자 고운 것과 바다 고운 것은 못 믿는다
 (바닷물은 잔잔하였다가 금방 풍랑이 일기에 믿을 수 없듯이, 여자가 고우면 골값을 하기 때문에 믿기 어렵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9. 여자 고집이 세면 팔자도 세다
 (여자는 성미가 부드러운 것이 좋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70. 여자 공부해서 도원수 된 데 없다
 (도원수(都元帥)란, 옛날 전쟁시 군무를 통괄하던 무관 벼슬. 여자를 공부시키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1. 여자 날뛰고 안 망하는 집안 없다
 (여자가 아무 일이나 함부로 나대면 집안 꼴이 안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2. 여자 눈 높은 것 하고, 짚신 뒤축 높은 것은 아무데도 쓸모 없다
 (여자는 모름지기 겸손해야만 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73. 여자는 가지밭에서 오줌만 누어도 임신한다
 (여자는 몸가짐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74. 여자는 강짜를 빼면 서 근도 안 된다
 (여자는 대부분 질투가 많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5. 여자는 거울이요, 남자는 책이라
 (여자는 몸치장에 몰두하고, 남자는 공부에 몰두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6. 여자는 기가 보드라워야 되고, 남자는 대가 세어야 된다
 (여자의 성품은 온화해야 하고, 남자는 기상이 굳세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77.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화장한다
 (여자가 화장을 하는 뜻은 결국 남자의 애정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뜻)
178. 여자는 남자 손에 붙은 밥풀이다
 (여자의 운명은 남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9. 여자는 남자의 어깨를 짚지 않는다
 (남자의 어깨는 ‘권위’로 여겨진데서 비롯된 말로, 남자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예의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0. 여자는 남자 잘못 만나면, 하루 죽 세 끼에 매 세 끼다
 (여자가 남자를 잘못 만나면 아주 가난하게 살면서도 매만 실컷 맞으며 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1. 여자는 남편 사랑 먹고 산다
 (여자에게는 남편의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82. 여자는 남편 옆에 암고양이만 있어도 질투한다
 (여자의 질투심은 무척 강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3. 여자는 남편을 잘 따라야 한다
 (여자는 남편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
184. 여자는 남편 하나 믿고 시집간다
 (여자는 오로지 남편 때문에 모든 고생을 감내한다는 뜻)
185. 여자는 늙으나 젊으나 죽어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질투하는 동물이다
 (여자의 질투심은 끝없이 지속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6. 여자는 말을 안 하는 게 첫 수
 (여자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이 된다는 뜻)
187. 여자는 문턱을 넘으면서도 열두 가지 생각을 한다
 (여자는 어떤 일 하나를 하더라도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본성이라는 뜻)
188. 여자는 바깥 일에 말하지 말고, 남자는 안 일에 말하지 않는다
 (남자와 여자가 각각 제 영역에 충실하고, 상대방의 영역에 함부로 간섭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189. 여자는 백 가지 약 중 으뜸이지만, 잘못 쓰면 비상이라

- (남자에게 여자는 최고의 보배지만, 자칫 잘못 택하면 패가망신하게 된다는 뜻)
190. 여자는 부덕이 있어야 한다
(여자는 유순하며 참을성이 있어, 집안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덕을 지녀야 한다는 뜻)
191. 여자는 서 발 앞도 못 본다
(여자는 세상에 대한 분별력이 남자에 못 미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2. 여자는 셋만 모여 앉으면 사기접시에 구멍 뚫는다
(여자 셋이 모이면 무척 수다를 떠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3. 여자는 손에 묻는 밥풀이다
(여자의 평생은 남편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4. 여자는 손이 길고, 남자는 발이 길다
(여자는 집안 살림을 잘 다독여야 하고, 남자는 바깥 활동이 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5. 여자는 아기보 때문에 소견보가 작다
(여자가 소견이 좁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96. 여자는 아침상을 들고 오면서도 마음이 열두 번 변한다
(여자의 마음이 남자에 비해 자주 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7. 여자는 양념
(여자는 사내들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98. 여자는 어머니라도 믿지 말라
(여자는 누구라도 믿지 말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9. 여자는 얼굴 값을 한다
(얼굴이 예쁜만큼 반드시 티를 내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200. 여자는 얼굴이 밀천이다
(여자의 얼굴이 예쁜 정도에 따라 다른 대우를 받게 된다는 뜻)
201. 여자는 외골수다
(여자의 성격은 대개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2. 여자는 인물이 밀천이다
(여자는 인물이 잘 나와 대접을 받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3. 여자는 일부종사하는 것이 상팔자라
(여자는 평생 한 남자와 붙어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뜻)

204. 여자는 절개요, 남자는 배짱이다
 (여자는 절개가 최상의 미덕이어야 하고, 남자는 의지가 강한 것이 미덕이라는 뜻)
205. 여자는 젊어서 여우, 늙으면 호랑이
 (여자는 젊을 때 곰살맞은 행동으로 남자를 대하고, 늙으면 남자를 함부로 대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206. 여자는 젊어서 관음이고, 늙으면 원숭이 된다
 (여자는 젊었을 때 예쁘고 점잖지만, 늙어서는 보기 흉해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7. 여자는 정조가 목숨이라
 (여자는 몸을 잘 지키는 것이 목숨과 같이 중요한 일이라는 뜻)
208. 여자는 제 발 앞도 못 본다
 (예전에는 여자를 집안의 일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회성이 부족하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9. 여자는 죽어야 철이 난다
 (여자의 소견이 좁은 것은 죽기 전에 고쳐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0. 여자는 죽을 때가 돼도 철이 안 나고, 남자는 죽을 때가 돼야 철이 난다
 (여자의 소견은 끝내 트이지 않지만, 남자는 죽을 때가 돼서야 겨우 소견이 트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1. 여자는 질투심과 허영심을 빼면 두 근도 안 된다
 (여자가 남자에 비해 질투심과 허영심이 많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2. 여자는 집안 귀신 노릇만 하다 죽는다
 (옛날에 여자들은 평생토록 집안 일만 하고 살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13. 여자는 참는 것이 시집살이다
 (여자의 시집살이는 무조건 인내심만 요구하였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14. 여자는 참는 것이 부덕이다
 (여자가 살다보면 아니꼬운 일이 많지만, 그래도 참고 사는 것이 덕이 된다는 뜻)
215. 여자는 하루아침에도 열두 번 마음이 변한다
 (여자는 심성이 약해서 때에 따라 쉽게 변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6. 여자는 혀가 길고, 남자는 손이 길다
 (여자는 말이 많고 남자는 일이 많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7. 여자는 혀 빼고 질투 빼면, 남는 것이 없다
 (여자는 말이 많고 질투심이 많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18. 여자들과 모사하면 누설된다
 (여자들과 어떤 일을 꾸미면 반드시 누설하게 마련이라는 뜻)
219. 여자들 악담에는 오뉴월에도 서릿발이 친다
 (여자들이 한에 맺힌 말을 하게 되면 여름철에도 서릿발이 칠 정도로 매섭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0. 여자들 입살에는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들이 내뿜는 모진 말은 이겨내기 힘들 정도로 독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1. 여자 딱딱한 것과 두부 딱딱한 건 쓸모가 없다
 (여자의 성미는 유순하고 부드러워야 좋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2. 여자로 태어나느니 소로 태어난 팔자가 낫다
 (옛날에는 여자의 신세가 소보다 나을 게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3. 여자 말을 잘못 듣다가는, 남의 여편네 도둑년 만든다
 (제 아내의 말을 무턱대고 믿다가는 큰 실수를 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4. 여자의 목소리는 문지방 넘어가면 소문이 된다
 (여자의 목소리가 필요 이상으로 크면 좋지 않다는 뜻으로 경계하는 말)
225.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에 구멍을 뚫는다
 (여자가 여럿 모여 떠들어대면 주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야단스럽거나, 별의 별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26. 여자 셋이서 부엌에서 상추쌈을 먹으면 조왕님이 도망간다
 (여자들이 모여 떠들며 상추쌈을 먹느라고 입을 크게 벌리는 모습은 그만큼 흉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7. 여자 셋이 원한을 품으면 오뉴월 하늘이 서리를 내린다
 (여러 여자가 한을 품게 되면 예사롭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8. 여자 소리가 울 넘어가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크다는 것은 집안이 화목하지 않다는 말로, 패가할 징조라는 뜻)
229. 여자 속은 뱀뱃이 속이다
 (여자의 소견은 좁고 얕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0. 여자 수절은 있어도 남자 수절은 없다
 (남자에 비해 여자의 정조관념은 강하다는 뜻)

231. 여자 악당에는 오뉴월에도 서릿발이 치고, 여자 독기에는 무쇠도 녹아내린다
 (여자가 뱉어내는 악당과 독기는 이겨낼 것이 없을 정도로 대단하다는 뜻)
232. 여자 안 끼고는 살인 안 난다
 (살인사건에는 반드시 여자가 낀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33. 여자에게는 긴 혀가 있다
 (여자는 수다를 떨게 마련이니 주의를 하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4. 여자에게 돈 맡기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칼 맡기는 것과 같다
 (여자는 돈 관리를 잘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5. 여자에게 아침에 욕을 먹으면 온종일 운이 나쁘다
 (아침에 여자가 해대는 욕을 먹으면 기분이 언짢으니 서로 조심하라는 뜻)
236. 여자 열이면 쇠도 녹인다
 (여자가 많이 모여 떠들면 그것을 당해낼 사람이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7. 여자와 가재는 가는 방향을 모른다
 (여자의 행동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38. 여자와 겨울 날씨는 믿을 수가 없다
 (여자는 변덕이 매우 심하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39. 여자와 모사하는 일은 누설된다
 (여자와 일을 꾸미면 입이 가벼워 비밀이 누설되게 마련이라는 뜻)
240. 여자와 쌀은 툭수록 좋다
 (여자의 피부는 희어야 아름답게 여겨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1. 여자 왼손잡이는 고집이 세다
 (왼손잡이 여자는 대개 고집이 세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42. 여자 용띠는 성질이 악독하다
 (용띠인 여자는 성미가 매섭고 악착같다는 속설에서 비롯된 말)
243. 여자의 기분과 개구리가 뛰는 방향은 알 수가 없다
 (여자의 기분이 좋고 나쁜 것은 아주 쉽게 변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44. 여자의 독한 마음은 오뉴월에도 서리친다
 (여자가 앙심을 품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5. 여자의 마음과 가을 하늘은 변하기 쉽다
 (여자의 마음은 무척 자주 바뀐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6. 여자의 목청이 담을 넘으면 과부 된다

- (여자의 목청이 지나치게 큰 것은 과부상이라는 뜻이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이 여자의 예절이라는 뜻)
247.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지 마라, 평생의 고락이 남의 손에 달렸다
(여자의 평생은 남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8. 여자의 속과 뺨술은 모른다
(여자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9. 여자의 속은 한푼에 든 남편도 모른다
(여자의 속은 자주 변하기 때문에 친한 사람도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0. 여자의 식견은 남자의 의견만 못하다
(여자의 식견이 남자의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1. 여자의 악담엔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여자가 퍼붓는 악담은 더없이 지독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2. 여자의 얼굴색이 자주 변하면 마음도 자주 변한다
(여자의 얼굴색이 자주 변한다는 것은 속내도 그렇다는 증거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3. 여자의 예절은 말이 적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은 예절에 어긋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54. 여자의 원망은 끝이 없다
(여자가 원한을 품으면 쉽게 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5. 여자의 잔소리가 많으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는 일반적으로 말이 많기 때문에, 잔소리를 특히 주의하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256. 여자의 창자는 뱀 창자다
(여자는 융통성이 부족하여 어떤 일이든지 곧이곧대로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7. 여자의 평생 궁달이 가장에게 달렸다
(여자의 평생은 남자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8. 여자의 혀는 크다
(여자는 남자에 비해 수다스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9. 여자의 화장은 남자를 위한 화장이다
(여자의 화장은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라는 뜻)
260. 여자 입 썩 것은 저도 모른다

- (여자는 제 스스로가 수다 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61. 여자 팔자는 남자 손끝에 달렸다
 (여자의 운수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부귀빈천이 결정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2. 여자 팔자는 뒤웅박 팔자라
 (여자 팔자는 정해지지 않아 불안정 하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63. 여자 팔자는 시집을 가봐야 안다
 (여자의 팔자는 시집을 잘 가느냐 못 가느냐에 따라 좌우된다는 뜻)
264. 여자하고 개는 길들이기에 달려 있다
 (여자의 버릇은 남자가 어떻게 다독거리느냐에 달려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5. 여자하고는 대사를 논하지 말라
 (여자와 큰 일을 도모하면 제대로 이뤄내기 힘들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6. 여자 혀는 한 자다
 (여자는 대개 수다스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7. 여편네가 세상 물정에 어두우면 아무리 벌어도 시루에 물 붓기다
 (여자가 재물을 함부로 쓰거나 세태에 무지하면, 남자가 아무리 벌어들여도 감당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8. 여편네가 손이 크면 살림 못한다
 (여자가 재물을 아끼지 않으면 집안이 번성하기 어렵다는 뜻)
269. 여편네는 밥상을 들고 문지방을 넘으면서도 열두 가지 생각을 한다
 (여자는 마음이 여러, 번덕이 무척 심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0. 여편네 팔자는 뒤웅박 팔자
 (여자는 남자 만나기에 따라 일생이 좌우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1. 여편네 팔자는 윗가락 같다
 (여자의 팔자는 윗놀이처럼, 남자의 선택에 따라 한 순간에 결정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2. 외부의 화목은 남자가 하고, 집안의 화목은 여자가 한다
 (집밖의 화목은 남자의 몫이고, 집안의 화목은 여자의 몫이라는 뜻)
273. 인정머리 없는 여자는 아이를 못 낳는다
 (인정이 없다는 것은 모성애가 부족하다는 말이며, 자연히 아이가 생기기도 어렵다는 뜻)

274. 잔소리는 여자의 입버릇이다
 (잔소리는 여자의 버릇이니까 그러려니 하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5. 잘 되면 서방 하나 살리고, 못되면 여러 조상 죽일 게 계집의 잔꾀라
 (여자가 잔꾀 부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76. 잘생긴 여자는 얼굴 값을 하기 마련이다
 (얼굴이 잘난 여자는 그만큼 부족한 점이 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77. 저녁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어두울 때 나대면 집안이 망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8. 제 얼굴 자랑하는 여자는 행실이 부정하다
 (여자가 얼굴을 자랑하는 것은 점잖지 못한 짓이라는 뜻)
279. 집과 계집은 임자 만날 탓이다
 (여자는 어떤 남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팔자가 달라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0. 참외밭에 여자가 들어가면 참외가 굼아빠진다
 (여자가 나대는 것을 좋게 보지 않은 데서 비롯된 말)
281. 처녀가 과년 차면 함지박을 깨뜨린다
 (처녀가 늙도록 시집을 못가면 엉뚱한 짓으로 화풀이를 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2. 치마 두른 인종은 속이 웅색하다
 (여자의 소견이 무척 좁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3. 큰 싸움에 여자 안 끼는 싸움 없다
 (큰 사건의 배후에는 여자가 연루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4. 큰 일은 계집과 의논하지 않는다
 (여자와 큰 일에 대해 논의를 하면 비밀이 새나갈 수 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85. 투기 없는 여자는 죽은 것과 같다
 (여자는 누구나 본성 속에 강한 투기심을 갖고 있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6. 투기하는 여자는 왕비라도 쫓겨난다
 (옛날 투기를 하는 여자는 신분을 따지지 않고 집에서 쫓아낼 정도로 흑독하게 다스렸다는 뜻)
287. 한 여자의 원망이 유월에 서리를 내리게 한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무척 매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8. 한 집에 과부가 셋이면 집안이 망한다

- (집안을 이끌어 가는 남자가 없으면 기울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9. 한 집에 여자만 아홉이면 집안이 망한다
(한 집에 여자가 너무 많으면 집안 꼴이 잘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0. 화난 년 보리방아 찧는다
(일을 아주 거칠게 하는 모습을 두고 빗대는 말)
291. 화냥년 눈에는 코 큰 사내만 보인다
(색을 밝히는 여자는 성기 큰 남자만 찾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2. 화냥년 서방질은 하늘도 안다
(남자만 밝히는 여자의 행실은 누구나 알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93. 희어야 미인이다
(살갓이 하얀 여자라야 미인으로 여겼다는 뜻)

<부록 2> 장애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 같은 병신끼리 불쌍해한다
(처지가 같으면 서로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 개천 나무라지 말고 눈 먼 탓만 해라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 반성부터 하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3. 개천아 네 그르냐, 봉사 내 그르냐
(제 잘못을 두고 네 탓이나 내 탓이나, 티격태격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 개천이 그르지 않고, 장님이 그르지
(제 잘못이 분명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 거름 없는 농사질은 소경의 막대 겨눔이다
(거름을 주지 않고 농사를 지으려는 짓은 마치 소경의 막대처럼, 헛손질이나 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 거지한테 비단옷, 장님한테 색안경
(격에 맞지 않게 훌륭하여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7. 고자대감 세 쓰듯 한다
(원가 중요한 능력이 없으면서 허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 고자 성미다
(매우 화급한 성격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9. 고자 처갓집 가는 격
(고자가 처갓집을 자주 왔다 갔다 하며 지극히도 위하듯, 바쁘게 나대지만 정작 중요한 일은 하지 못해 실속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 공배팔이가 양장구 친다
(공배팔이란 병으로 팔이 꼬부라져 불거나 없는 사람.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려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 공배팔이 원새끼 꼬듯 한다
(새끼를 꼬는 건지 마는 건지 모른다는 뜻으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 공배팔이 파리 잡듯
(저에게 쉽지 않은 일을 하고 무진 애쓰는 모습을 두고 빗대는 말)

13. 굽사등이 잠자나 마나
(곶추가 제대로 누워 잘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 굽사등이 짐 지나 마나
(일을 해도 하는 것 같이 여겨지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 귀머거리 귀 있으나마나
(제 역할을 못하는 건 있어도 보탬이 안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 귀머거리 노래 공부하기
(아무 보람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7. 귀머거리 눈치 빠르다
(귀 먹은 대신 모든 것을 눈치로 극복하려니까 자연히 눈치가 빠르게 돼 있다는 뜻)
18. 귀머거리 도둑이 개 짖는 소리도 모르고 도둑질 한다
(제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위험한 일을 하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 귀머거리도 우레소리는 듣는다
(아무리 귀가 먹었다해도 천지가 울리는 우레소리는 듣게 마련이라는 뜻)
20. 귀머거리도 좋을 때가 있다
(늘 불편하게 생각되던 것도 때로는 편리하게 여겨질 수 있다는 말)
21. 귀머거리 솔뿌리 캐듯
(오로지 그 일에만 정신을 쏟는다)
22. 귀머거리에게 꺾속말 한다
(분별력이 없어 헛된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 귀머거리 욕 들으나 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 귀머거리의 귀
(아무짝에도 쓸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 귀 먹은 놈에게 재담 들려주기
(아무리 재미있고 유익해도 들을 조건이 되지 않는 이에게는 소용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 귀 먹은 놈이 우는 당나귀보고 하품하는 줄 안다
(어디가 부족한 사람이 제 소견대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잘못 판단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7. 난리가 나면 앓은뱅이가 심심 리를 똥다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도 큰 일이 닥치면 놀랄만한 일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 난쟁이 교자꾼 참여하듯
(도저히 어울리지도 않고, 일을 해낼 수도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 난쟁이 동네 키다리 꼴이다
(따돌림을 당했던 뜻으로 빗대는 말)
30. 난쟁이 우장 쓰기
(난쟁이가 큰 비옷을 입는다는 뜻이니, 전혀 어울리지 않거나 맞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 내가 쌍언청이인가
(사람을 무시하고 돌려 놓는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32. 뇌성벽력은 귀머거리도 듣는다
(아주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알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3. 눈 가진 봉사, 입 가진 병어리
(눈이 있어도 못본 척 해야 하고,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4. 눈 뜬 장님
(글이나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5. 눈 먼 소경더러 눈 멀었다 하면 성 낸다
(누구나 제 약점을 말하면 싫어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6. 눈 먼 자식이 효도한다
(어딘가 부족한 자식이 오히려 효도한다는 말로, 시원찮은 자식이라도 흠대하지 말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7. 눈 먼 장님은 서울을 가도, 말 못하는 병어리는 서울 못 간다
(장님은 모르는 것을 물어서 찾지만, 병어리는 물을 수 없어 찾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8. 눈 팔아 먹고 소경질한다
(몹시 어리석은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9. 다리 병신이 비렁뱅이 된다
(다리가 불구되면 비렁뱅이밖에 할 것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0. 다리 병신 차기 쉽고, 죽은 중놈 때리기 쉽다
(무력해진 상대를 다루기는 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1. 대대로 굽사등이
(조상의 잘못을 닮아서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2. 돈 냄새 맡은 장님 웃듯
(장님도 돈이라면 아주 좋아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43. 돈을 밝히면 두 눈이 합쳐져 애꾸눈이 된다
(돈을 지나치게 탐하지 말라는 뜻)
44. 들넉 소경 머루 먹듯
(이리저리 덩벙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5. 마포 봉사 제 점 못친다
(남의 일을 봐준다고 나대는 사람치고 정작 제 일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6. 막대 잃은 장님
(의지하던 것이 없어져 허둥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7. 말 못하는 사람은 서울 못 가도, 세 봉사는 서울 간다
(말만 할 줄 알면 물어 물어 어느 곳이라도 찾아갈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8. 맹인 단청 구경하듯
(눈 먼 사람이 단청 구경을 한다는 뜻이니,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9. 못난 것이 자식 많이 두고, 병신이 명 길다
(천한 것일수록 흔하고 오래 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0. 무식한 봉사 팔양경 외듯이
(팔양경이란 여러 미신을 없애기 위한 불경. 아무 뜻도 모르고 열심히 외워대기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1. 무엇 먹은 소경 같다
(매우 불평이 많고 우쭐거리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52. 무엇 본 병어리 같다
(실없이 웃는 사람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53. 문둥이가 아이를 낳아서 씻겨 조진다
(분별력이 없어 똑같은 일만 반복하여 일을 그르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4. 문둥이가 어린아이 간 빼 먹듯
(원가를 알뜰히 빼앗아 차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5. 문둥이가 하루를 못 살아도 풍은 대풍이다
(허풍이 매우 심한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56. 문둥이나 문둥 어머니 한 값이다
(흠이 있는 것은 값의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7. 문둥이 눈썹 무너지듯 한다
(아주 쉽게 없어지거나 무너져 내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8. 문둥이 떼쓰듯 한다
(분별력 없이 마구 떼를 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9. 문둥이 발싸개 같다
(아주 더럽고 지저분하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60. 문둥이 버들강아지 따먹고 배 앓는 소리 한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1. 문둥이 시악 쓰듯 한다
(시악(恃惡)이란 제 모질고 악독한 성격을 믿는다는 뜻. 오로지 제 고집만 내세운다는 말)
62. 문둥이 아이 버르듯 버른다
(원가를 집요하게 버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3. 문둥이 피하듯
(어떤 것을 아주 냉정히 외면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4. 미친년 갈발 매듯이
(행동이 조신하지 못하고 제 멋대로 날뛰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65. 미친년도 속옷을 안에다 입고, 신은 발에다 신는다
(아무리 미쳤다 하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일은 제대로 할 줄 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66. 미친년 둥덕새머리 같다
(어떤 것이 매우 헝크러져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7. 미친년 똬듯
(어떤 일을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해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8. 미친년 새끼 씻어서 죽인다

- (몸에 해로운 일을 계속하여 큰 화를 당하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9. 미친년 속곳 가랑이 빠지듯
(무엇이 찢어져 나와 추하게 펼쳐거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0. 미친년 속곳도 해지면 쭈쭈이질을 한다
(쭈쭈이질이란 성기고 드문드문 바느질을 한다는 뜻.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해야 할 일을 훑내는 낸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71. 미친년 속곳 뒤집듯
(차분하게 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쉽게 해버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2. 미친년 속 차리면 행주로 요강 닦는다
(기껏 행동을 고친다고 해봤자 거기가 거기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73. 미친년 속치마 찢어져 날리듯
(뭔가가 찢어져나와 아주 추하게 나부끼는 모양을 두고 빗대는 말)
74. 미친년 쏘다니듯
(목표도 없이 마구 헤집고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비유해 이르는 말)
75. 미친년 아이 달래듯 한다
(일을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악화시킨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6. 미친년 아이 주물러 죽인다
(똑같은 일을 아주 열심히 해서 큰 화를 당하게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77. 미친년 오줌 싸듯 한다
(시도 때도 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8. 미친년의 눈에는 미친놈만 보인다
(누구나 제 격에 맞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79. 미친년의 치맛자락 같다
(어떤 것이 추하게 나풀거린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80. 미친년이 양전 뺨다
(평소의 형편없는 언행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1. 미친년 장떡 붙이듯
(제멋대로 아무렇게나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2. 미친놈 날간 휩쓸어 먹듯
(남은 생각하지도 않고, 혼자서 모두 차지해 먹는 것을 두고 빗대는 말)
83. 미친놈 널 뛰듯

- (일을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4. 미친놈에게 칼을 준 셈이다
(어떤 일을 매우 위태롭게 만들어 놓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5. 미친놈의 말에도 쓸 말이 있다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것에도 쓸 것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86. 미친놈이 날긋이를 하면 비가 온다
(저기압이 되면 미친 사람에게 더욱 이상 증세가 오기 쉽다는 데서 비롯된 말)
87. 미친놈이 뛰면 성한 놈도 뛰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면 무턱대고 따라서 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88. 미친놈이 생침 맞는 듯
(큰 소리를 질러대며 나대는 모양을 두고 빗대는 말)
89. 미친놈이 호랑이 잡는다
(함부로 날뛰는 놈이 때로는 대단한 일을 해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0. 미친놈 장기 두듯
(어떤 일을 되나가나 아무렇게나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91. 미친놈 지랄청에 들었다
(제 정신을 못 차리고 나댄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92. 미친놈치고 제가 미쳤다는 놈 없다
(누구라도 제가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3. 미친놈 칼 휘두르듯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94. 미친 몽둥이는 피해가는 게 좋다
(분별력을 잃고 사람을 험하게 몰아치는 서슬은 일단 피하고 보는 게 좋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5. 미친 사람보고 인사불성이라 한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한테 아주 하찮은 시빗거리를 따지고 든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6. 미친 사람의 말에서도 얻어들을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의 언행을 듣거나 보고서 중요한 것을 깨우칠 수도 있다는 뜻)
97. 바보가 욕심 많다

-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탐욕스럽게 마련이라는 뜻)
98. 바보를 말로는 못 고친다
(바보를 말로 설득하여 사리분별력을 길러주기가 쉽지 않다는 뜻)
99. 반병어리 소지 전한다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혼자 주절대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00. 반병어리 축문 읽듯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1. 반편이 명산 폐묘시킨다
(못난 것이 나서서,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망쳐 놓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2. 반편이 온편 되는 법 없다
(원가 한참 부족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 변할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3. 배넛병신이 육갑뎌다
(모자라는 주제에 잘난 척한다는 뜻)
104. 배 안 바보는 고칠 수 없다
(타고난 바보는 가르쳐도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5. 병어리가 마빡을 쳤나
(말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06. 병어리가 말은 못해도 날짜 가는 건 안다
(병어리가 말을 못해서 그럴지, 알만한 것은 다 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7. 병어리가 말은 못해도 서방질은 한다
(아무리 병어리지만 제 좋은 것은 다 할줄 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8. 병어리가 말을 못해도 눈치가 빠르다
(병어리는 말을 못하는 대신 눈치가 바르게 마련이라는 뜻)
109. 병어리가 말을 하겠다
(너무도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0. 병어리가 서방질을 해도 속은 있다
(아무리 시원찮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제 나름대로 속셈은 다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1. 병어리가 서방질 하듯 한다
(어떤 일을 아무 말도 없이 슬쩍 해버린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12. 병어리 마음은 병어리도 모른다

- (병어리는 말로 내놓지를 않으니, 같은 부류들조차도 속을 모를 것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3. 병어리 마주 앓은 셈
(서로 전혀 말이 오가지 않으니, 매우 멧쩍은 상태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4. 병어리 발등 앓는 소리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15. 병어리 삼신이라
(말이 없는 사람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116. 병어리 속은 그 어미도 모른다
(말하지 않으면 그 속내를 아무도 모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7. 병어리 술맛 본 듯
(어떤 일을 하고도 그에 대한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18. 병어리 심부름 하듯
(남의 눈치만 살피가며 행동하는 것을 두고 빗대는 말)
119. 병어리 잠꼬대 같다
(소리는 없이 말하는 시늉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0. 병어리 장닭이다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21. 병어리 재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2. 병어리 제 짐작하듯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제 짐작만 믿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3. 병어리하고 말하는 격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4. 병어리한테 글강 뒹달
(병어리한테 글을 읽으라고 강요한다는 뜻이니,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5. 병신 고운 데 없다
(몸이 불편한 데가 있으면 마음 씩씩이도 고울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6. 병신 다른 데 없고 지주 다른 데 없다
(병신이나 지주나 마음 씩씩이가 고약하기는 모두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27. 병신 달밤에 체조한다
(못난 사람이 더더욱 못난 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28. 병신도 가지가지라
(사람들이 저지르는 못난 짓도 참으로 다양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29. 병신도 병신이라면 좋다는 사람 없다
(몸이 불편한 사람을 두고 사실대로 말하면 언짢게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30. 병신 마음 좋은 사람 없다
(몸이 크게 불편한 사람은 그 열등감 때문에 편협해지기 일쑤라는 뜻)
- 131. 병신 삼질 한다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 132. 병신에게는 언청이가 제 격
(원가 부족한 사람에게는 부족한 사람이 어울린다는 뜻으로, 모든 것에는 서로 격에 맞는 것이 있다는 뜻)
- 133. 병신에도 급수가 있다
(못난 사람도 정도에 따라 층하가 있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 134. 병신이 급살한다
(못난 주제에 못난 짓까지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35. 병신이 옹기 마중 간다
(깨지기 쉬운 옹기를 가지러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나선다는 말로, 능력이 부족하면서 나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36. 병신이 한 고집이 있다
(못난 사람이 오히려 고집은 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37. 병신이 호미 흠친다
(못난 주제에 엉뚱한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38. 병신치고 맘 고운 데 없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을 순하고 평범하게 쓸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 139. 병신치고 명줄 짧은 사람 없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오래 산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 140. 병신치고 오줌 안 싸는 병신 없다
(못난 사람은 못난 짓을 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이르는 말)

141. 봉사가 개천을 나무란다
 (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2. 봉사가 봉사를 인도하면 돌이 다 개천에 빠진다
 (무능한 사람이 함께 일을 하면 모두 망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3. 봉사가 애꾸말 타고 못 가에 간다
 (아주 위태로운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44. 봉사가 제 점 못 친다
 (남의 일에 나서지만 정작 제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5. 봉사 글 읽기
 (아무리 애를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46. 봉사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
 (무능력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7. 봉사 눈 뜨나 마나
 (어떤 일을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8. 봉사 눈 뜬 것 같다
 (아주 답답했던 일이 시원스럽게 해결되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9. 봉사 눈치 배우지 말고 점 배워라
 (하찮은 짓이나 하지 말고, 기왕이면 떳떳한 일을 하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0. 봉사는 뱀 무서운 줄 모른다
 (아무리 흉한 것일지라도 보지 못하면 무서울 리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1. 봉사님 마누라는 하느님이 점지한다
 (봉사가 혼인한다는 거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에, 하느님이 돕지 않으면 안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52. 봉사 단청 구경하듯
 (아무 소용없는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3. 봉사도 날짜 가는 속은 안다
 (봉사가 보지는 못해도 날짜 가는 것은 느낌으로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뜻)
154. 봉사도 장님이라면 좋아한다
 (같은 말이라도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말이 좋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5. 봉사 문고리 더듬는 소리 한다

-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말저말 해본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56. 봉사 문고리 잡듯 한다
(단번에 정확히 해내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맨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7. 봉사보고 봉사라면 싫어한다
(누구나 제 단점을 사실대로 말하면 싫어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8. 봉사 삼발 지나기
(뭔가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9. 봉사 씨름 보기
(보나 마나 알 수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0. 봉사 아이 어르듯
(어떻게 생각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쓰다듬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1. 봉사 안경 쓰나 안 쓰나
(어떤 일을 하나 마나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2. 봉사 앞정강이 세우듯 한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앞정강이부터 볼썽 내민다는 말로, 무례하거나 제 고집만 세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3. 봉사 언덕 닦치기
(아무것도 모른 채 어떤 것과 마주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64. 봉사에게 눈짓하고, 병어리에게 귓속말 하기
(아무 소용 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5. 봉사 잠 앉아 자나 누워 자나
(어떤 일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6. 봉사 제 자리 뜯기
(분별력이 없으면 화를 자초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7. 봉사 제 점 못 한다
(남의 일을 도와준다고 나서지만 막상 제 일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8. 봉사 집 지키기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69. 봉사 코끼리 만지듯
(뭐가 뭔지를 제대로 구분해내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0. 봉사 파발 매듭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들쭉서댄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71. 봉사 하늘 쳐다보기
(도무지 소용 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2. 사족 성한 병신
(손과 발이 성하면서도 병신 같다는 말이니, 무척 게으른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73. 살다가 병신되다
(살려다보니 별 흥한 꼴을 다 당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4. 소경 갓난아이 더듬듯 한다
(까닭도 모르는 채 그저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75. 소경 개천 나무랄 것 있나, 제 눈 탓이나 하지
(제 잘못을 가지고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6. 소경 경 읽듯
(원지도 모르면서 그저 흥얼거린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77. 소경 관등 가듯 한다
(관등(觀燈)이란 절의 행사 때 등을 밝히는 일. 하나마나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8. 소경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이라
(완전히 무능한 사람들 무리에서는 조금만 능력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으뜸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9. 소경 눈 감으나 마나
(어떤 일을 하나 마나 전혀 다름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0. 소경더러 길 묻는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1. 소경더러 눈멀었다 하면 노여워한다
(누구라도 제 결점을 말하면 싫어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2. 소경도 자기 방아는 굴러 쪼는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아주 기초적인 것은 할 줄 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3. 소경도 지팡이가 있으면 천 리 길 간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큰일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4. 소경된 내 탓하지, 개천 너 나무래서 무엇하리

- (제가 잘못을 했으면 제 탓을 해야지, 남의 탓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5. 소경 마누라는 하느님이 점지한다
(소경이 혼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6. 소경 막대 휘두르기
(어떤 확실한 목표를 잡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휘두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7. 소경 매질하듯
(무엇인가를 아무렇게나 두드린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88. 소경 맴돌이 시켜 놓은 것 같다
(어느 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한 곳에서만 맴도는 모습을 두고 빗대는 말)
189. 소경 머루 먹듯
(도무지 뭐가 뭔지 알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0. 소경 문고리 잡기
(시도한 일이 어쩌다가 바로 들어맞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1. 소경 어린 아이 만지듯
(원가를 지나치게 주무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2. 소경에게 햇불 주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3. 소경은 귀가 밝고, 귀머거리는 눈이 밝다
(어느 하나 단점이 있으면, 다른 하나 장점이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4. 소경은 애꾸눈을 부러워한다
(무능력한 사람은 저보다 조금이라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5. 소경 의복에 똥 칠하고, 멧은 호박덩굴 끊고, 패는 곡식 모가지 뽑기
(사리분별 못하는 사람이 하는 짓마다 일만 저지른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96. 소경의 안질
(있으나 마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7. 소경의 팔양경 읽듯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읽어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8. 소경이 개천 나무란다
(제가 잘못 해놓고 남을 탓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99. 소경이 까막잡기

-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0. 소경이 넘어지면 막대 탓이라 한다
(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남을 탓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1. 소경이 눈 먼 탓이나 할 것이지, 왜 외나무다리 좁은 걸 탓하나
(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02. 소경이 등불 켜듯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3.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개천에 빠진다
(무능력한 사람이 무능력한 사람을 이끌면, 모두 낭패를 보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4.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되지 않을 짓을 하여 함께 위태롭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5. 소경이 올바르게 갔다
(전혀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6. 소경 이 잡듯
(어떤 것을 정확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계속 더듬거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7. 소경이 장 구경 다니듯
(아무 소용이 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8. 소경이 장 먹듯
(어떤 것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서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9. 소경이 저 죽을 날 모른다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일에 나선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0. 소경이 제 닭 잡아먹는 줄 모른다
(분별력이 없으면 화를 자초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1. 소경이 제 호박 떠다
(분별력이 없어 화를 자초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2. 소경이 지팡이 막대기 부리듯
(누군가를 제 마음대로 부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3. 소경이 지팡이 의지하듯
(오로지 한 곳에만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4. 소경이 코끼리 만지고 말하듯

-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제멋대로 생각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5. 소경이 파발 들어간 꼴
(분별력 없는 사람이 일을 저지를까봐 무척 불안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16. 소경 잠 자나 마나
(어떤 일을 하나마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7. 소경 제 닭 치듯
(남의 것을 몰래 훔치려 하다가 도리어 제 것을 거두어 손해를 보았다는 말로, 분별력이 없어 화를 자초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8. 소경 집 보기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9. 소경 집에 거울
(도무지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0. 소경 코끼리 배 만진 격
(원지도 모르고 그저 어떤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1. 소경 파발 두드리듯
(대중없이 그냥 두드려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2. 소경 파발 매기
(질서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223. 소경 팔매질 하듯
(겨냥하는 곳도 없이 그냥 대중없이 던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4. 소경 팔양경 외듯
(그냥 지껄여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5. 소경 하늘 쳐다보기
(아무런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6. 수박 밭에 앉혀둔 천치 자식한테 대꼬챙이 쥐어 주는 격
(스스로 손해볼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7. 시궁에 빠진 장님 꼴
(꼴이 무척 지저분한 사람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228. 싱겁기가 고자 같다
(어떤 일이 아주 시시껄렁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9. 쌍언청이가 외언청이 타령한다

- (못난 제 처지는 생각하지 않고, 저보다 처지가 나은 사람은 나무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0. 아침에 장님을 보면 재수 없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앞이 캄캄한 사람을 보면 일진이 좋지 않다고 여긴다)
231. 앓은뱅이가 서면 천 리를 가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애를 써 봤자 별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2. 앓은뱅이가 설 줄 몰라 못 서나
(어떤 일에 무지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조건이 되지 않아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3. 앓은뱅이가 조전 삼십 리를 가니, 불 켜 놓고 아침 먹기가 미침 맞더라
(조전(朝前). 애만 쓰고 꾸물거리며 일을 진척시키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234. 앓은뱅이 강 건너기
(도무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5. 앓은뱅이나 굶사등이나
(어딘가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6. 앓은뱅이 닭 쫓기
(하고자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7. 앓은뱅이 떡 돌리듯 한다
(도저히 되지 않을 일을 시도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8. 앓은뱅이 망건 뜨기
(하는 짓이 무척 웅졸하고 궁상스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9. 앓은뱅이 무릎걸음 하듯
(어떤 행동이 매우 서투르고 느리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240. 앓은뱅이 서나 마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1. 앓은뱅이 서울 공론
(소견이 턱없이 좁은 주제에 함부로 아는 체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2. 앓은뱅이 성 안에서 호령한다
(못난 사람이 안에서만 큰 소리 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3. 앓은뱅이 심부름한다

- (어떤 일을 무척 답답하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4. 앓은뱅이 앓으나 마나
(별로 다를 게 없이 그게 그거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45. 앓은뱅이 암만 뛰어도 그 자리에 있다
(능력이 부족하면 애를 써도 효과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6. 앓은뱅이 언제 서서 춤출 날 있을까
(도무지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7. 앓은뱅이에게 신 주기
(상대방이 필요로 하지 않는데 선불리 주는 것도 도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8. 앓은뱅이 용 쓰기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헛수고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9. 앓은뱅이의 망건 뜨기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려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0. 앓은뱅이 천 리 갈 생각
(도무지 가능하지 않을 일을 꿈꾼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1. 앓은뱅이 천 리 대참
(대참(代參). 능력이 없으면서 제 힘에 겨운 일을 하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2. 앓은뱅이 투구 쓰듯
(행동이 굼뜨고 도무지 일이 진척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253. 애꾸가 환히 보려 하고, 절름발이가 멀리 가려 한다
(제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에 욕심을 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4. 애꾸눈 딸 사위 고르기
(어떤 일을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5. 언청이가 아니면 누가 병신이라 할까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그에 합당한 말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6. 언청이가 아니면 천하일색이다
(커다란 흠 한 가지가 없으면 아주 빼어날 것인데 안타깝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7. 언청이 굴회 마시듯
(어떤 일을 무척 조심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8. 언청이 아가리에 콩가루

-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저절로 드러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9. 언청이 입 안에서 파리 옆구리 터뜨리는 소리 한다
 (전혀 이치에 닿지 않는 소리를 한다는 뜻으로 조롱해 이르는 말)
260. 언청이 콩가루 쥐어 먹기
 (원가를 마구 억지로 집어넣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1. 언청이 회 까먹듯 한다
 (어떤 일을 대충대충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2. 열 소경이 들어 풀기 어렵다
 (제 고집만 세우고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3. 옛 문 병어리 같다
 (도무지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4. 외눈박이가 두눈박이 나무란다
 (큰 흉이 있는 사람이 멀쩡한 사람을 나무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5. 외눈에 안질
 (좋지 않은 처지가 더욱 좋지 않게 되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6. 입 가진 병어리 노릇
 (입이 있으면서도 할 말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7. 입 두고 말 앓는 것도 병어리다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잘못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8. 장님 간장 떠 먹듯
 (원가를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어림짐작으로 대충 해댄다는 뜻)
269. 장님 갓난 아이 더듬듯
 (한참 더듬거리는 모습을 두고 빗대는 말)
270. 장님 거울 보기
 (하나 마나 소용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1. 장님 기름값 당하듯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손해를 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2. 장님께는 닭이 다 새 되어 보인다
 (분별력이 없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판단할 수가 없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3. 장님 나라에서는 애꾸가 왕

- (무능력한 사람들 무리에서는 뭔가 조금이라도 능력있는 사람이 제일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74. 장님 나라에선 눈 뜬 자식이 병신이라
(아주 무식한 사람들 속에서는 유식한 사람이 오히려 잘못된 것으로 여겨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5. 장님 노릇은 말아도, 병어리 노릇은 하랴
(식견은 넓히되 말은 많이 하지 말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6. 장님 눈 가리기
(불필요한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7. 장님 눈 먼 말 탄 격이다
(매우 위태로운 처지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8. 장님 담 너머 보기
(아무 소용 없는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9. 장님 대청 구경
(어떤 일을 하나 마나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0. 장님 덧막대기 젓듯
(어떤 일을 어림 짐작으로 대충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281. 장님도 문고리 잡는 수가 있다
(아무리 무능력한 사람이라도 우연히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2. 장님도 제 집은 잘 찾아간다
(아무리 무능력해도 습관이 된 일은 잘 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83. 장님 돌다리 건너듯
(매우 서툴러서 찢찢 맨다는 뜻으로 비유해 이르는 말)
284. 장님 동네에는 애꾸눈이 장땡이라
(아주 무능한 사람들 속에서는 하찮은 능력만 있어도 최상의 대우를 받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5. 장님 떡자루 감추듯 한다
(하나마나한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6. 장님 막대질하듯
(요행수를 바라면서 아무렇게나 일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7. 장님 매질하듯 한다

- (아무렇게나 때린다는 뜻으로 비유해 이르는 말)
288. 장님 메주덩어리 만지기
(어떤 것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주물러대기만 한다는 뜻)
289. 장님 문고리 더듬듯
(무엇인가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허둥대는 것을 두고 빗대는 말)
290. 장님 문고리 잡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우연히 어떤 일을 해내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1. 장님 복자루 쥐듯
(뭔가를 꼭 잡고만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2. 장님 셋이 모이면 못 보는 편지를 뜯어 본다
(아무리 시원찮은 사람이라도 여럿이 모이면 뜻밖의 일을 해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3. 장님 손 보듯 한다
(전혀 친절함이 없고 무덤덤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4. 장님에게 눈으로 가리키고, 병어리에게 속삭인다
(전혀 쓸모가 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95. 장님에 앉은뱅이
(불행한 일이 겹쳤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96. 장님은 문을 닫고 보나 열고 보나 일반이라
(근본이 잘못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도 달라질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7. 장님의 눈 모양은 어찌 되었든지 점만 잘 치면 그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8. 장님의 지팡이 같이 믿는다
(아무 능력이나 희망이 없는 사람이 오로지 하나만 믿고 의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9. 장님이 개천 나무란다
(제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전혀 관계없는 남을 욕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0. 장님이 귀머거리 나무란다
(비슷한 처지에 주제를 모르고 남을 나무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1. 장님이 눈먼 말을 타고 밤중에 물에 들어선다
(몹시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2. 장님이 눈병 앓는 사람더러 불쌍하단다
(제 주제를 모르고 저보다 나은 사람을 동정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3. 장님이 닭 바라듯이
(무엇인가를 아주 간절하게 원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4. 장님이 더듬어 보아도 알 노릇이다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5. 장님이 등불 쳐다보듯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6. 장님이 사람 친다
(주제를 모르고 건방진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7. 장님이 아무리 점 잘 쳐도, 눈으로 보느니만 못 하다
(부족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해도 정상적인 사람만 못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8. 장님이 외나무다리 건너간다
(매우 위태로운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9. 장님이 자빠지면 막대 탓한다
(무능력한 사람이 일을 당하면 남의 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0. 장님이 잔치 구경 간 격
(도무지 소용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1. 장님이 잡은 메주라
(어떤 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두고 빗대는 말)
312.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이 다 개천에 빠진다
(무능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을 이끌면, 모두 낭패를 보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3. 장님 잠 자나 마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로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4. 장님이 제 닭 잡아먹는다
(어떤 일을 하지만 결국 제 것을 축내는 짓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5. 장님 지팡이 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맨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316. 장님 지팡이 잃어버렸다

- (오직 하나 믿는 것을 잃어 어쩔 줄을 모른다는 뜻)
317. 장님 칼부림하듯
(아주 무분별한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318. 장님 코끼리 만지기
(무슨 일을 하고 있지만 도무지 뭐가 뭔지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9. 장님 코끼리 말하기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종잡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인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320. 장님 파발 들어가듯
(분별없이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1. 저승에 가야만 곱사등이 고친다
(곱사등이는 고치기 어려운 병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2. 절름발이가 일어서면 천 리 길을 가겠는가
(무능한 주제에 일을 한들 얼마나 하겠느냐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3. 절름발이 원행
(원행(遠行). 주제도 모르고 욕심대로 하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4. 참외밭에 들어선 장님
(갈피를 못 잡고 이리저리 헤맨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5. 초립동이 장님을 보았다
(길에서 장님을 보면 재수가 없다고 하는데, 어린 장님이니 더 좋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6. 친구 망신은 곱사등이가 시킨다
(못난 사람이 있으면 주위 사람들을 망신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7. 팔 없는 병신이 장구 친다
(능력이 없으면서도 나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8. 한 소경이 여러 소경을 인도한다
(많은 사람에게 위험한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부록 3> 지역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 강원도 감자바위
(강원도에서 태어났거나 살고 있는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2. 강원도 꿀장수
(매우 굵고 어수룩하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3. 강원도 참사
(참사(參事)는 직위의 하나이며, 옛날에 강원도가 아주 먼 곳으로 생각되었다. 공식에 있는 사람이 먼 곳으로 좌천됨을 빗대는 말)
4. 강화 여자는 발가벗겨 놓아도 삼십 리를 뚫다
(강화 여자들이 웬만한 예의염치는 무시하고 오로지 잘 살기 위해 억척같이 일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5. 개성 구두쇠다
(돈이나 물건을 아주 지독하게 아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 경기도 까투리
(경기도 사람이 매우 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 경상도 고집이다
(무척 고집이 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 광양 송장 하나가 순천 세 사람 잡는다
(광양 사람이 영악하다는 뜻)
9. 담양 갈 놈
(담양(潭陽)으로 정배살이를 갈 놈이라는 뜻으로 남을 욕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을 알잡아서 하는 말)
10. 버릇 없기는 소포 나루쟁이만도 못하다
(소포는 진도에 있는 지명. 소포의 뱃사공보다 버릇이 없다는 말로, 아주 버릇이 없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1. 부산 가시나 같다
(어깨가 딱 벌어지고 억척스런 여자를 빗대는 말)
12. 서울 까투리
(성미가 활달하고 잔꾀가 많은 여자를 빗대는 말)

13. 서울 농은 장맛비가 와도 풍년인 줄 안다
(어떤 일에 무지해서 사리판단을 제대로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 서울 양반은 쌀나무에서 쌀이 열린다고 한다
(약다는 서울 사람들도 정작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것이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 서울은 눈 뻘히 뜨고 있는 사람 눈 뽑아가고 코 베어가는 곳이다
(생사람도 당하는 곳이 서울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 시골 농 똥집 큰 것 세운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사물을 외양만으로 판단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7. 시골 농이 굶으면 보리밥을 굶고, 서울 농이 굶으면 이밥을 굶는다
(시골 농은 보리밥 먹고, 서울 농은 쌀밥을 먹고 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 시골 농 제 얘기하면 온다
(점잖지 못하기 때문에 공교롭게 제 말에 맞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 시골 앓은뱅이 서울 공론한다
(제 현실과 연관되지 않은 허황된 이야기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 시골 양반의 밥상이 서울 상놈의 밥상보다 못하다
(서울과 시골의 살림이 매우 차이가 크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 안동의 답답이가 소의 발굽을 꺾다
(소의 등에 짐을 기울게 실어놓고 소의 발굽을 괴려 한다는 말로, 하는 짓이 무척 답답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 영천농 앓은 자리는 풀도 안 난다
(영천 사람은 깡깡하고 냉정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 인천 부사 십 년에 모찌떡 한 개도 못 얻어먹었다
(옛날 인천의 인심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 전라도 사람에게 밥상이 두 개
(전라도 사람은 꺾이 많고 요령이 좋아 이익을 많이 차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 제주 말 갈기 서로 뜯어 먹는다
(서로 화를 입힌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 춘천 토목공 같다
(한 가지만 알고 도무지 변통성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 충주 자린고비다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아끼는 인색한 사람을 빗대는 말)

28. 평안도 참빗장수

(제 이익만 몰두하여 매우 옹졸하게 구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부록 4> 직업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 갖바치 걸치레 하듯
(천한 신분인 주제라서 아무리 꾸며도 근본을 속일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 갖바치 날 물리듯
(갖바치란 가죽신 만드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말긴 일이 내일 된다 모레 된다 하는 식으로 약속한 날짜를 자꾸 미루는 것을 두고 비꼬는 말)
3. 고리 백장 내일 모레
(고리 백장이란 고리를 만들어 파는 사람을 업신여긴 말. 고리 백장들이 약속한 날짜를 잘 지키지 못하였다는 데서 나온 말로, 약속한 날짜를 자꾸 어길 때를 두고 비꼬는 말)
4. 고리장이에게는 내일 모레가 약이다
(고리장이는 약속을 자꾸 어기면서 시간을 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 공것 바라기로는 무당 서방 뺨치겠다
(사람들을 현혹시켜 재물을 거두어 오는 무당과 그 남편은 결국 공것을 좋아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말로, 공것을 밝히는 사람을 두고 비꼬는 말)
6. 과거 전에 창부
(창부(倡夫)란 남자 광대를 말함. 과거 공부 할 때에 광대 짓을 한다는 뜻이니, 일을 성취시키기 이전부터 허튼 짓을 하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 관리는 갓 쓴 도둑놈이다
(관리는 국고를 축낸다든지,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 관상쟁이가 제 관상 못 보고, 점쟁이가 제 점 못 친다
(남의 일에 잘 나서는 사람이 막상 제 일은 해결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 굶 못하는 무당 장구 타박한다
(제 모자라는 능력은 생각지 않고 남이나 다른 물건을 탓하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0. 금장이 금 불리듯
(금장은 금은세공인(金銀細工人)을 낮춘 말. 제 마음대로 물건을 다룬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1. 기생 년한테 수절 의논한다

- (도무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하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 기생의 정이란 장마 때 물같이 갈래 없이 흐른다
(장마 때 물이 이곳저곳으로 넘쳐 흐르듯, 기생의 정은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대중 없이 쏠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 기생이 화냥년 소리 듣게 마련이고, 화적이 사람 죽였다 소리 듣게 마련이다
(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게 돼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 기생 자릿저고리 같다
(오랜 때가 끼어 깔끔하지 못한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이거나, 남에게 간사스럽게 아양을 떠는 사람을 빗대는 말)
 15. 기생첩이 제일 무섭다
(기생첩은 다른 여자와 달리, 돈이 무척 많이 들어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 썩 장수 후리듯 한다
(썩 장사가 매를 가지고 닥치는 대로 썩을 잡듯, 사람을 꺾어 제 이익만 채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 낚시꾼과 사냥꾼 말은, 제 애비 말이라도 절반은 깎아 들어야 한다
(낚시꾼과 사냥꾼은 허풍떨기가 일쑤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 널 짜는 목수는 사람 죽기만 바란다
(다른 사람의 불행은 생각 않고 누구나 제 이익만을 탐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 돌팔이 의원 입으로 먹고 산다
(재능이 없는 사람일수록 교묘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켜 먹고 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 떡 장수 웃댁기
(크고 좋은 떡을 위에 놓는다는 뜻으로, 잔꾀로 남을 속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 무당도 거짓말, 지관도 거짓말
(무당이나 지관을 믿기 어렵다는 말. 지관은 풍수설에 따라 집터나 뭇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려내는 사람)
 22. 무당보고 춤 잘 춘다니까 발 아픈 줄도 모르고 춘다
(칭찬을 해주면 절제를 못하고 계속 더 하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3. 백정이 가마를 타면 동네 강아지가 짖는다
(제 격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면, 누구라도 업신여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 뱃놈이나 되어라

- (뱃사람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데서 비롯되어 욕으로 이르는 말)
25. 병은 귀신이 낮게 하고, 돈은 무당이 챙긴다
(일을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익은 엉뚱한 사람이 차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 상두꾼이 지나간 무덤 앞 같다
(무척 지저분하고 쓸쓸하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27.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만 탓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8. 서투른 석공 깜짝이부터 배운다
(능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걸멋만 든다거나, 엉뚱한 짓부터 배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 서투른 어부가 용왕 탓만 한다
(제 잘못은 모르고 남의 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 서투른 의원이 생사람 잡는다
(돌팔이 의원이 병을 고치기는커녕 아예 망쳐 놓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 선무당 굶에 사람 죽는다
(일을 어설프게 처리해 피해를 더욱 키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 선무당 꺾춤
(서투른 주제에 방정맞은 짓까지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3. 선무당이 마당 기울었다 탓한다
(무능력한 사람이 잘못된 탓을 다른 것에 돌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4. 선무당이 사람 잡고, 반풍수가 집안 망친다
(능력이 없는 사람일수록 큰일을 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5. 선의원이 사람 죽이고, 선무당이 사람 살린다
(돌팔이 의사는 사람을 죽일 수 있지만, 선무당이 사람 죽이는 일은 없다는 뜻)
36. 쇠고기를 먹으려면 백정의 꿀을 봐야 한다
(제가 아쉬운 것을 얻기 위해서는 보기 싫은 꼴도 봐야 한다는 뜻)
37. 용정공이 같다
(용정(春精)이란 곡식을 찧는 일. 몸집만 크고 우둔한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38. 의사는 허가 난 도둑이라
(의사는 허가증 하나 가지고 마음 놓고 사람들의 돈을 긁어들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9. 자기 마누라도 속이는 것이 꿀장사라
(꿀장사가 속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0. 장구 깨진 무당 신세
(어떤 것에 탈이 생겨 할 일을 할 수 없이 멍하니 있다는 뜻으로 비유해 이르는 말)
41. 장사꾼 남는다면서 파는 사람 없다
(장사꾼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속이는 것은 기본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42. 장사꾼은 밀진다면서도 땡 산다
(장사꾼이 밀진다고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3. 장사꾼은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다
(돈을 벌려고 장사꾼으로 나서는 가까운 사람한테서도 이문을 남기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4. 장사꾼 제 애비 속인다
(장사꾼은 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속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5. 점쟁이 저 죽을 날 모른다
(제 주제를 모르면서 나뉠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6. 정초에 소금장수가 들어오면 가난하다
(부정을 잘 타는 정초에 ‘짠사람’이 오면 좋지 않다는 뜻으로 전해오는 말)
47. 종이 장수 나비보고 쫓아가듯 한다
(종이장수가 나비를 종이인 줄 알고 쫓아간다는 뜻이니, 분별 없고 옹졸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8. 체 장수 말 죽기 기다리듯 한다
(남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 이익만 생각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49. 칼잡이하고 가위잡이 사위 삼지 마라
(직업이 사람의 성품을 만든다는 말로, 칼잡이나 가위잡이는 성미가 순하지 않거나 가난하게 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0. 포수가 사냥에 미치면 여편네도 잊는다
(포수가 사냥하는 재미에 빠지면 세상사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1. 포수 낮잠이라

(야단스럽게 코를 골며 깊은 잠을 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2. 하늬 바람에 옛장수 골 내듯

(저에게 이익을 주는 일에 괜한 화를 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3. 훈장이 제 자식 더 못 가르친다

(누구나 제 자식을 가르치기는 쉽지 않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부록 5> 종교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 가을 중 쏘다니듯
(추수의 계절에는 스님들도 시주를 많이 받아놓을 생각에 이집 저집 매우 바쁘게 돌아다닌다는 뜻으로, 아주 바쁘게 돌아다니는 것을 두고 빗대는 말)
2. 경텃절 몽구리 아들
(경텃절이란 ‘정토(淨土)절’ 이 변한 말. 몽구리는 스님을 속되게 이르는 말. 박박 깎은 머리를 두고 빗대는 말)
3. 고기 맛을 가르쳤더니 중이 법당의 파리를 그냥 안 둔다
(어떤 일에 무지했던 사람이 그 맛에 빠져 자신 못 차리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 공것 좋아하는 것은 중놈이라
(중은 돈을 내고 사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 관혼상제에 돈 그려가는 것은 중놈이라
(중은 관혼상제를 주관해 주고 돈을 우려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 귀 먹은 중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거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 땡땡이 중놈 안반 너머 본다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엉뚱한 곳에 마음을 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 매질을 배워서 중이나 죽인다
(어떤 일을 배워 유익하게 쓰지를 않고 큰 일이나 저지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 미운 중놈이 고깔은 모로 쓴다
(미운 사람이 더 미운 짓만 골라서 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0. 벌한테 쏘인 땡추중 꿀
(어쩔 줄을 모르고 허둥대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1. 병든 놈 차기 쉽고, 깡마른 중 치기 쉽다
(저보다 연약한 상대를 다루기는 아주 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2. 비 맞은 돌중처럼 중얼거린다
(알아들지 못할 소리를 중얼거린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3. 사돈네 송사에 중놈

-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나선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4. 사돈의 잔치에 종이 참여한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남의 일에 끼어든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5. 산골 중놈 같다
(몹시 의문스럽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6. 산지기 공사에 재 너머 중놈이 부조한다
(어떤 일에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 도와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 소나기 맞은 중놈 종얼대듯 한다
(원지 모를 소리를 계속 종얼대는 것을 두고 비유하는 말)
 18. 스님 눈물 같다
(어두침침하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9. 엮어다 놓은 중놈 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 엉덩이 벗긴 중놈 뒤통
(아주 정신없이 뛰어 달아나는 것을 두고 비유하는 말)
 21. 이 절도 못 믿고 저 절도 못 믿는다
(이것저것 다 믿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 저녁 굶은 중 같다
(힘이 없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비유해 이르는 말)
 23. 젊은 무당년 같다
(젊은 화냥년처럼 한껏 사내와 놀아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 젓갈가게에 중놈
(아무 관련이 없는 일에 나선다는 뜻이거나,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25. 줄 맞은 중놈
(조금도 어기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 중놈 뛰는 꼴을 보면 날아가는 새도 웃는다
(중이 뛰면 입은 웃이 흔들리는 모양새와 중에 대한 선입견이 어우러져, 누구나 웃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7. 중놈 머리에 상투 있으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 중놈 바람 속에 든 빗
(도무지 쓸모없는 물건이라는 뜻)
29. 중놈 상투 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어떤 것을 보기가 무척 힘들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0. 중놈 어물 흥정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나선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 중놈은 잠꼬대도 영불가락이다
(제 가진 버릇은 어디서라도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 중놈을 잘 달린다 하면 고깔 벗어 쥐고 달린다
(잘한다고 추겨주면 주제를 모르고 더 하려고 나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3. 중놈이 입기로 가사가 미우랴
(어떤 것이 입다고 해서 거기에 연관된 모든 것이 다 미울 수는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4. 중놈이 영불은 앓고 잣밥만 꿀떡거린다
(해야 할 일은 무관심한 채, 엉뚱한 것에 욕심을 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5. 중놈 장에 가서 화 낸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는 일에 혼자서 화를 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6. 중 술 취한 것
(더 이상 꿀볼건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7. 중에게 안방 맡긴 셈이다
(믿지 못할 사람에게 일을 맡겨 보나마나 뻘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8. 중은 술을 곡차라고 하면서 마신다
(하지 않을 짓에 명분을 바꿔 욕심대로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9. 중은 중이라도 절 모르는 중이라
(명색은 그럴 듯한데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40. 중을 잡아먹었나
(알아들지 못할 말을 중얼거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1. 천주학을 할 놈
(천주교를 믿을 놈이라는 뜻으로, 공연한 짓을 하여 말썽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부록 6> 외모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 가난 가난 해도 인물 가난이 제일 서럽다
(가난한 것이 서럽다 해도, 제일 서러운 것은 인물 못 난 것이라는 뜻)
2. 가족밖에 안 남았다
(지나치게 마른 사람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3. 가지 봉탱이 같다
(키가 작은 대신 몸피가 뚱뚱하여 매우 두루뭉술한 사람의 몸매를 두고 빗대는 말)
4. 개꽃에는 나비도 아니 온다
(못생긴 여자는 남자가 따르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 객줏집 칼도마 같다
(객줏집은 칼도마를 유난히 많이 써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 있듯, 이마와 턱은 튀어나오고 얼굴 중간이 움푹 들어간 사람을 놀리는 말)
6. 고운 계집은 첫눈에 예쁘고, 못난 계집은 정이 들어야 예쁘다
(고운 여자는 순식간에 끌리게 되지만, 못난 여자는 오래 뽐을 들여 정이 들게 된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7. 공보 구멍에 지혜가 들었다
(외모는 보잘 것 없으나 속내는 훌륭하다는 말)
8. 공보만 아니면 일색이다
(흙 중에서도 가장 큰 흙 하나만 없다면 대단한 미인인데 그것이 문제라는 뜻으로 비꼬는 말)
9. 까마귀가 보면 아저씨 아저씨 하겠다
(살빛이 검다거나, 때가 많이 껴 더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 깍지동 같은 여자다
(깍지동은 콩깍지를 저장하는 곳. 매우 뚱뚱한 여자를 두고 빗대는 말)
11. 꿀뚜기를 진장 발라 구운 듯하다
(얼굴이 무척 검은 사람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12. 나비도 꽃이 고와야 찾아온다
(여자의 미모가 훌륭해야 남자들이 찾아든다는 뜻)
13. 난쟁이 똥자루만 하다

- (키가 아주 작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14. 난쟁이 화상 같다
(아주 못생겼거나 밉살스럽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15. 낫짝이 얼룩소 오줌 같다
(얼굴이 매우 더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6. 눈갈이 뱀장어 눈이다
(눈이 매우 작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 눈이 하가마가 되었다
(하가마란 기생이 머리에 쓰던 것. 눈이 움푹 들어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 도끼 맞은 쇠눈 같다
(아주 크게 뜯 눈이 멍하니 있는 것을 두고 빗대는 말)
19. 돼지 오줌통 몰아 놓은 이 같다
(얼굴이 허어멀겁게 생긴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20. 두들겨 잡은 부엉이 꿀
(겉모습이 매우 지저분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1. 뒤를 보니 절색이요, 앞을 보니 박색이라
(뒷모습은 그럴 듯하나 앞모습이 박색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2. 메뚜기하고 사촌 간이다
(이마가 많이 벗어졌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3. 메주를 뭉쳐도 그보다는 낫겠다
(아주 못 생겼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 못생긴 년이 거울만 본다
(못난 주제에 어이없는 짓만 한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25. 못생긴 년이 달밤에 샷갓 쓰고 나선다
(못난 주제에 미운 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6. 못생긴 며느리 제삿날 병 난다
(미운 주제에 미워할 일만 저지른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27. 못생긴 주제에 거울 나무란다
(제 탓은 하지 않고 남의 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 밤비에 자란 사람
(키만 호리호리하게 큰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29. 센 말 불기짝 같다
(얼굴이 희멀겁고 몸피가 큰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30. 암탉 무녀리 같다
(첫날로 부화하여 생긴 닭처럼, 체격이 작은 사람을 빗대는 말)
31. 얼굴 못난 년이 거울만 닦한다
(주제를 모르고 남을 닦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 얼금뱅이도 정이 들면 얽은 구석구석까지 정이 든다
(아무리 못생겨도 정이 들게 되면, 못생긴 것이 오히려 정을 돋구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3. 얽어 매고 짝어 맨 공보도, 저 잘난 맛에 산다
(아무리 시원찮게 여겨지는 사람도, 스스로는 다 잘났다고 생각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4. 얽으면 검지나 말지
(한 가지 흠이면 될 텐데, 흠이 여러 가지라는 뜻으로 꾸짖는 말)
35. 옥니와 거적눈은 욕심 세다
(이가 안쪽으로 옥은 사람과, 속눈썹 달린 윗눈꺼풀이 유난이 늘어져 있는 사람은 욕심이 많다고 판단한다는 뜻)
36. 요령 도둑놈
(눈을 한껏 부라려 흉하게 생긴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37. 우박 맞은 잣더미 같다
(얼굴이 심하게 얼었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38. 응달에서 큰 버섯 꼴
(키만 크고 생기가 없어 보이는 모습을 두고 빗대는 말)
39. 인물 가난이 제일 서럽다
(인물 못난 것이 제일 서러운 일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40. 자주 꼴뚜기 진장 발라 구운 것 같다
(살결이 아주 검은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41. 장승 도깨비 같다
(생김새가 매우 험상궂게 되었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42. 저런 걸 날지 말고 호박이나 날았더라면, 국이나 끓여 먹지
(아주 못난 사람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43. 저승 야차 같다
(야차(夜叉). 생김새가 무척 추악하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44. 절구에 옷 입혀 놓은 것 같다
(뚱뚱한 여자를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45. 절구 천중만 하다
(천중(千重). 몸집이 매우 뚱뚱하고 크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6. 절구통에 치마를 싣운 것 같다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47. 키 작고 안 까부는 놈 없고, 키 크고 안 싱거운 놈 없다
(키가 작으면 경박하기 쉽고, 키가 크면 싱겁기 일쑤라는 뜻)
48. 키 크고 속 찬 놈 없다
(키가 큰 사람은 알차지 못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9. 키 크면 속이 없고, 키 작으면 대가 없다
(키가 큰 사람은 알차지 못하고, 키가 작은 사람은 진중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0. 파주 미륵 같다
(몸이 무척 뚱뚱한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51. 하늘 높은 줄만 알고, 세상 넓은 줄은 모른다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52.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세상 넓은 줄만 안다
(키는 작고 몸피가 옆으로 퍼져 뚱뚱한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53. 호박꽃도 꽃이나
(못생긴 여자도 여자냐는 뜻으로 빗대는 말)
54. 호박꽃도 꽃이라
(못생긴 여자도 여자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55. 호박밭에 옆드려 있어도 찾지 못하겠다
(사람이 매우 못생겼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6. 호박에 발 달렸다
(키가 작은 사람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부록 7> 계층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 가난한 놈 소인 된다
(가난하면 늘 기가 죽어 살 수밖에 없기에 웅졸한 사람이 된다는 뜻)
2. 가난한 놈은 남의 돈 만저도 못본다
(남과 돈 거래를 할 기회가 없으니 가난한 것이고, 그러니 남의 돈 보기가 어렵다는 말)
3. 가난한 놈은 성도 없다
(가난하면 무시당하여, 성과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주지 않는다는 뜻)
4. 가난한 놈은 앓을 틈도 없다
(먹고 살기 위해 동분서주하려면 아파도 앓을 겨를이 없게 된다는 말)
5. 가난한 놈은 힘으로 일하고, 부자는 돈으로 일한다
(가난한 사람은 몸으로 직접 일하지만, 부자는 돈으로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다는 말)
6. 가난한 놈이 기와집만 짓는다
(없는 사람일수록 소유에 대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공상만 열심히 하게 된다는 말)
7. 가난한 놈이 남의 것을 먹자면 말이 많다
(없는 주제에 남의 것을 먹으려면 이러니저러니 비난이 많게 마련이라는 뜻)
8. 가난한 놈이 못난 놈이다
(가난하면 무시당하고 못난 놈 취급을 받게 된다는 뜻)
9. 가난한 상주 방갓 대가리 같다
(‘방갓’은 상제가 외출할 때 쓰는 둥근 갓. 사람의 몰골이나 물건이 시원찮다는 뜻)
10. 가래 터 종놈 같다
(가래질하는 곳의 종처럼 거칠고 무례한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11. 가을에 천둥 번개가 잦으면 양반이 많이 죽는다
(가을에 천둥이 잦다는 것은 인간세계에 변고가 있을 조짐으로 보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에 된다는 뜻)
12. 개는 믿고 살아도, 상전 양반은 못 믿고 산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지만, 상전인 양반은 말 바꾸기를 예사로 하기 때문에

- 믿기 어렵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 개백정이 양반 행세하면 똥개가 짓는다
(제 근본에 맞지 않게 행세하면 개조차도 깔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 개 팔아 감역, 돌 팔아 감역
(감역(監役)이란 조선시대의 하참은 벼슬. 하참은 벼슬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15. 개 팔아 두 냥 반
(양반을 조롱하기 위하여 빗대는 말)
 16. 개 팔아 한 반 돌 팔아 한 반, 개돌 합쳐 양반
(양반답지 않은 양반을 놀려주기 위하여 빗대어 이르는 말)
 17. 거지는 성명도 없다
(거지에게 이름을 불러줄 기회가 없으니, 성명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르는 뜻으로 빗대는 말)
 18. 거지도 꿈에는 임금 노릇 한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라도 꿈이나 공상 속에서는 최상의 황홀함을 추구한다는 말)
 19. 남의 집 머슴과 벼슬살이는, 끓던 밥도 두고 간다
(윗사람의 명령을 받는 머슴이나 벼슬아치는 매인 몸이라서, 시키면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못 짓게 한다
(내 삶이 만족스러우니 남에게 조금도 베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사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21. 눈 작은 양반은 있어도, 입 작은 양반은 없다
(양반은 대부분 아주 탐욕스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 대감댁 권세보다 아랫것들 행악질이 더 못됐다
(높은 사람의 위세보다 그 위세를 믿고 악하게 구는 수하 사람들이 더 나쁘다는 뜻)
 23. 돼지 팔아 한 냥, 개 팔아 닷 돈 해서 양반
(언어 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 마부가 상전 말 타면 낙상하기가 십중 팔구라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면 화를 당하기 쉽다는 뜻으로 빗대로 이르는 말)
 25. 말 탄 거지
(제 격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6. 머슴 늙은 것하고, 당나귀 늙은 것은 못 쓴다
(늙으면 힘이 쇠잔해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7. 머슴살이 이십 년에 남은 것은 황천길 갈 골병밖에 없다
(머슴살이를 오래 하게 되면 골병이 들기 일쑤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 머슴살이 일도 많고, 시집살이 말도 많다
(머슴살이는 뼈 빠지게 일을 해야 하고, 시집살이는 잔소리를 많이 듣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9. 머슴은 보리 송농에 살찐다
(밥 하고 남은 찌꺼기만 실컷 먹을 수 있어 살로 간다는 뜻)
30. 머슴은 호미 쥐고 울고, 아낙네는 부엌문 짚고 운다
(농번기가 시작되면 고된 일을 할 걱정 때문에 모두 서러워 한다는 뜻)
31. 문서 없는 노예
(시집살이는 문서만 없을 뿐이지, 노예나 한 가지로 고생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2. 문서 없는 종 노릇
(좋은 아니지만 종과 같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33. 비렁뱅이가 자루 찢는 격
(시원찮은 주제에 있는 살림마저 거덜을 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4. 비렁뱅이가 하늘을 불쌍히 여긴다
(아주 가당치 않는 걱정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35. 비렁뱅이끼리 자루 찢는다
(서로 동정을 해야 할 처지인데 오히려 싸우는 것을 두고 빗대는 말)
36. 비렁뱅이 눈엔 모닥불만 보인다
(궁한 사람에게는 오로지 욕심 나는 것만 보이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37. 비렁뱅이 쪽박 깨듯
(남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해를 끼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8. 사또 지나가라고 길 닦아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
(아주 정성들인 일을 엉뚱한 사람이 그르쳐 놓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9. 상놈도 꿈에는 양반 볼기를 친다
(아무리 위세를 부리는 사람도 하찮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한껏 양값음을 당한다는

- 뜻)
40. 상놈 먹고 싶은 것 많고, 양반 보고 싶은 것 많다
(천한 사람은 먹는 것에 관심이 있고, 의식주가 풍부한 사람은 구경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1. 상놈 새끼는 강아지 새끼, 양반 새끼는 비둘기 새끼
(상놈의 아이는 자랄수록 미워지고, 양반의 아이는 자랄수록 곱다는 뜻으로 비유하는 말)
 42. 상놈 새끼는 돼지새끼
(상놈의 자식은 더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3. 상놈은 구레나룻이 나도 말썽이다
(상놈의 처지가 되면 자연스런 일도 트집거리가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4. 상놈은 나이가 가르친다
(비천한 사람은 나이를 많이 먹어야만 깨우치는 것이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5. 상놈은 나이가 벼슬이라
(상놈은 나이가 들어야 비로소 사람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6. 상놈은 발로 살고, 양반은 글로 산다
(하찮은 신분은 열심히 일해야 살고, 위세 부리는 사람들은 공부로 출세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7. 상놈은 음식상 앞에서 알아본다
(걸신 들린 듯 먹는 모습을 두고 빗대어 이르는 말)
 48. 상놈의 눈은 양반의 티눈보다 못하다
(하찮은 사람은 보는 눈도 시원찮다)
 49. 상놈의 살림은 양반의 양식이라
(양반이란 결국 상민이 일한 것으로 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0. 상놈이 곡식 바쳐 맥동지 벼슬을 하면, 대가리 꼳꼳이 들고 팔자걸음 걷는다
(하찮은 인물이 시시한 권세라도 누리게 되면 눈꼴 사나운 행동을 한다는 뜻)
 51. 상놈이 나귀 타면 큰 기침만 한다
(하찮은 인물이 모처럼 호강을 하면 제 근본을 잊고 방자한 행동을 한다는 뜻)
 52. 상놈이 양반을 좋아하면 사지가 찢긴다
(하찮은 인물이 격에 맞지 않는 욕심을 내면 화를 당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3. 상놈이 양반이 되면 한 달도 못 살고 복에 치어 죽는다

- (하찮은 인물이 격에 맞지 않는 지위에 오르면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불행을 당한다는 뜻)
54. 상사람도 마흔다섯 살이면 명주옷을 입는다
(옛날에 상민은 명주옷을 못 입게 하였지만, 마흔다섯 이상이면 늙은이로 여겨 명주옷을 허락하였다는 데서 비롯된 말)
55. 상전 배부르면 종 배고픈 줄 모른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남들의 어려운 사정을 잘 모르거나 모른 체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6. 상전 앞의 종 꼴
(아주 찢절매는 모습을 두고 빗대는 말)
57. 상전은 종만 업신여긴다
(상전은 자기 종만을 만만하게 여긴다는 뜻으로 꾸짖는 말)
58. 상전은 종이 미우면 발뒤꿈치가 왜 달걀 같으냐고 트집을 잡는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히면, 좋은 것도 나쁜 것으로 여겨 트집을 잡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9. 상전이 말은 믿고 살아도 종은 믿고 못 산다
(좋은 늘 윗사람을 속이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0. 생원님 종만 업신여긴다
(변변치 못한 사람일수록 아랫사람을 업신여기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61. 소와 머슴꾼은 다름 없다
(소와 머슴꾼은 그저 일만 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2. 양반 고집은 쇠고집
(옛날 양반 계층의 사람들은 고집이 무척 세고 질겼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3. 양반 김칫국 떠먹듯 한다
(매우 점잖은 척하며 거만을 떠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64. 양반 놈들과는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양반들은 제 이익만 챙기는, 아주 영악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5. 양반 도둑이 호랑이보다 무섭다
(양반이 상민들을 착취하여 매우 고통스럽게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66. 양반 돈은 상놈 주머니에 들었다

-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7. 양반 못된 것은 장에 가서 불호령한다
(양반 못된 것은 엉뚱한 짓만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8. 양반 양반 개꼬리 두 냥 반
(양반의 허세를 빗대는 말)
69. 양반은 고집 센 짐승하고 한 가지라
(양반은 제가 옳다고 여기면 조금의 융통성도 없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70. 양반은 더러워서 범도 안 잡아먹는다
(남에게 약한 짓을 많이 한 양반은 범조차도 안 잡아먹을 정도로 더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1. 양반은 문자 쓰다가 저녁 굶는다
(양반은 언제 어디서나 배운 티를 내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2.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것불을 안 켜다
(체면이 조금이라도 깎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양반은 내색을 하거나 궁상을 떨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3. 양반은 이무기다
(양반은 대부분 의뭉스럽고 심술이 많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4. 양반은 죽을 먹어도 이를 썩신다
(양반은 아무리 궁해도 허세를 부린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5. 양반은 헨갓 쓰고도 똥 누지 않는다
(양반은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일을 결코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6. 양반은 젓가락으로 고기를 꼭꼭 찢어서 젓가락만 빨아먹는다
(지나치게 인색하고 웅졸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7. 양반 자식 고양이 새끼, 행실은 배워야 한다
(양반의 자식처럼 버릇이 없든지, 고양이 새끼처럼 길이 들지 않은 것은 부지런히 행실을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8. 양반 자식은 배고픈 호랑이도 더럽다고 안 잡아먹는다
(양반의 행동은 너무 좋지 않아 누구나 외면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9. 양반의 자식 행실 배우라고 하니, 개를 벗겨서 든다
(못된 행실을 고치라 하니, 한 술 더 떠 더욱 못된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0. 양반 체념에 개해엄은 않는다

- (양반은 곧 죽어도 체면이 깎이는 짓은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1. 양반 하나면 세 동리가 망한다
(상민들에 대한 양반들의 착취가 예사롭지 않게 심하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2. 없는 놈은 고기 한 점을 맛 봐도 배탈이 난다
(가난한 사람이 분에 맞지 않는 것을 조금이라도 차지하려면 탈이 생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3. 없는 놈은 꿈으로 산다
(가난하면 공상을 많이 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4. 없는 놈은 남의 돈 구경도 못한다
(돈이 없으면 남들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5. 없는 놈은 똥배가 제일이다
(가난하면 배부르게 먹는 것을 가장 원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6. 없는 놈은 먹고 싶은 것도 많다
(굶주리면 이것저것 다 탐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7. 없는 놈은 못 먹어 병나고, 있는 놈은 너무 먹어 병 난다
(돈이 없거나, 많거나 다 걱정거리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88. 없는 놈은 생일날이 따로 없다
(가난하면 잘 먹는 날로 생일을 삼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89. 없는 놈은 성도 없다
(가난한 사람은 남에게 무시를 당하기 때문에 성조차도 필요 없을 정도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90. 없는 놈은 쓸개도 없다
(가난하면 남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주장을 내세우기 힘들다는 뜻)
91. 없는 놈은 알을 여가도 없다
(가난하면 밤낮 없이 먹고 사는데 신경을 써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2. 없는 놈은 이밥 조밥을 가리지 않는다
(가난하면 좋은 것, 싫은 것 가릴 처지가 될 수 없다는 뜻)
93. 없는 놈은 일가도 없다
(가난하면 친척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4. 없는 놈은 일만 하다 죽는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평생 고생만 하다 죽는다는 뜻)

95. 없는 놨은 입 두고도 말을 못한다
(가난하면 늘 무시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6. 없는 놨은 절약도 못한다
(가난하면 절약할 것이 업서 절약을 할 수 없다는 뜻)
97. 없는 놨은 죽을 날도 없다
(가난하면 일만 하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98. 없는 놨은 찬물 떠놓고 혼례한다
(가난하면 예물을 갖추지 않고 형식적인 혼례를 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99. 없는 놨은 첫아이 돌떡도 못한다
(가난하면 자식에게 해야 할 도리조차 할 수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0. 없는 놨은 친구도 없다
(가난하면 누구든지 친구가 되려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1. 없는 놨은 허리 펼 날이 없다
(가난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쉴 틈이 없다는 뜻)
102. 없는 놨의 비단 옷이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3. 없는 놨이 돈을 벌면 안하무인이 된다
(가난하던 사람이 돈을 벌면, 오히려 남에게 더 베풀 줄을 모른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04. 없는 놨이 밤에 기와집 짓는다
(없는 사람은 공상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5. 없는 놨이 밥술이나 먹게 되면, 과객 밥 한 술 안 준다
(가난했던 사람이 돈을 벌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주 냉정하게 대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6. 없는 놨이 부자가 되면 안하무인이다
(없는 사람이 갑자기 흥하고 망하게 되면, 언행이 아주 교만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7. 없는 놨이 큰 떡은 먼저 든다
(주제를 모르고 제 욕심대로만 행동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8. 없는 놨 작심은 칠칠이 고작이라
(칠칠이란 49일. 없는 놨은 큰 결심을 해보았자 얼마 가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9. 없는 죄다

(가난하다는 것이 죄로 여기게 될 수가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0. 없는 집에는 싸움이 일이다

(가난하면 늘 싸우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1. 없는 집에는 찾아오는 손님도 없다

(가난하면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이 없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2. 없는 집에 수재 난다

(가난한 집일수록 화를 더 입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3. 종놈 부리듯 한다

(사람을 제 마음대로 부려 먹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부록 8> 나이 차별 표현이 나타난 속담

1. 가 본 젊은 놈보다 못 가본 늙은 놈 짐작이 더 낫다
(늙은이는 경험이 많아, 직접 겪은 젊은이보다 겪지 않았어도 더 나을 수 있다는 말)
2. 가을날 더운 것과, 노인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
(가을 날씨는 언제 추워질지 모르듯, 노인 근력도 언제 나빠질지 모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 겨울 날씨와 늙은이 근력 좋은 것은 못 믿는다
(겨울 날씨가 매우 쉽게 변화하듯이, 노인의 근력도 금방 변할 수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 고로로 팔십
(나이 팔십에 접어들면 심신이 다 늙어져 힘을 쓰지 못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 고목에는 새도 앉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이 늙은 사람과는 상종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
6. 꼭뒤의 피도 안 말랐다
(아직 애티가 남아 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 꼭지도 안 떨어졌다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하였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8. 나무도 나이 들면 속이 빈다
(사람도 늙으면 기운이 빠지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9.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
(늙을수록 언행이 점점 더 유치해지기 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0. 나이가 들면 뺏속에서도 찬바람이 인다
(사람이 늙으면 온몸이 시려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하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1. 나이가 많을수록 가진 것이 있어야 한다
(늙을수록 능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뜻)
12. 나이가 원수
(속절없이 늙는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3. 나이는 못 속인다

- (나이 먹어 늙는 것을 어쩔 도리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4. 나이 많은 사람이 져야 한다
(조금이라도 세상사를 많이 겪은 사람이 양보를 하는 것이 좋다는 뜻)
 15. 나이 어린 동생이 먼저 시집간다
(나이가 젊을수록 혼인하기에 유리하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16. 나이 이길 장사 없다
(나이가 많아 늙으면 여러 면에서 별 수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7. 노병에는 약도 없다
(늙는 것은 병이 아니고 쇠약해지는 것이기에, 약이 있을 수 없다는 뜻)
 18. 노욕이 지나치면 삼대를 망하게 한다
(늙어가면서 욕심을 지나치게 부리면 후손들까지 불행하게 만든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19. 노인네 오기 고집이 황소 잡아먹는다
(늙은이의 오기와 고집이 큰 일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0. 노장이 무용
(늙으면 쓸모가 없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21. 늙어 구렁이
(나이가 들면 자기도 모르게 음흉해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2. 늙어봐야 늙은이 심정 안다
(같은 처지가 돼봐야 남의 어려움을 알게 된다는 뜻)
 23. 늙어서 맛있는 건 호박뿐이라
(늙어서는 누구나 대접받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4. 늙어서 죽어도 동티에 죽는다
(당연한 일인데도 꼭 핑계를 댄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5. 늙었다고 먼저 무덤에 가며, 젊었다고 나중에 무덤에 가라
(죽는 것은 순서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26. 늙으면 겨울 보내기가 제일 어렵다
(겨울 추위 때문에 노인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또 건강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뜻)
 27. 늙으면 그저 저승길 닦는 일 밖에 안 남는다
(늙으면 죽을 것을 대비해서 덕이나 쌓는 일밖에 할 일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28. 늙으면 노망이 있다
(누구나 늙으면 노망을 떨게 마련이니 노인을 너무 박대하지 말라는 뜻)
29. 늙으면 눈물이 해퍼진다
(사람이 나이 들면 자주 서러운 마음을 내보이게 된다는 뜻)
30. 늙으면 도로 아기 된다
(늙으면 언행이 아이처럼 유치해지기 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1. 늙으면 돈도 안 따른다
(늙으면 돈 생길 일이 점점 더 없어진다는 뜻)
32. 늙으면 싫다
(늙으면 외로워지기 때문에 서러운 것이 많아진다는 뜻)
33. 늙으면 욕이 많다
(늙으면 외롭고 구차해지기 때문에 남들로부터 욕을 많이 먹게 마련이라는 뜻)
34. 늙으면 잠이 벗이라
(늙으면 기력이 쇠하여 자연히 잠을 많이 잘 수밖에 없다는 뜻)
35. 늙으면 잠이 없다
(늙게 되면 생리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잠이 줄어들게 된다는 뜻)
36. 늙으면 죽어야 어른이라
(늙어서 쓸데없이 오래 살 것이 아니라 제 때에 죽어야 대접을 받게 된다는 뜻)
37. 늙으면 죽어야 한다
(늙어 노망을 떨고 천덕꾸러기가 되느니보다 죽는 것이 속 편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8. 늙은 개는 문 지키기를 싫어한다
(늙으면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39. 늙은이 건달부린다
(도무지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0. 늙은이 괄시는 해도 아이들 괄시는 하지 마라
(크는 아이들의 기를 꺾지 말고 잘 대접하는 것이 좋다는 뜻)
41. 늙은이는 발을 차서 옆어지면 그만이다
(기력이 쇠한 노인은 자칫 잘못하면 소생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2. 늙은이는 밥상 차려 놓으면 나간다
(늙은이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노여움을 잘 타고, 심술기도 적지 않다는 뜻으로 빗

- 대는 말)
43. 늙은이도 늙었다면 싫어한다
(좋지 않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싫어하게 마련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44. 늙은이 무릎 세우듯 씩운다
(제 고집만 아주 강하게 내세우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45. 늙은이 뱃가죽 같다
(어떤 것이 팽팽하지 않고 쭈글쭈글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6. 늙은이 상투
(매우 작거나 보잘 것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7. 늙은이 성미는 죽 끓듯 한다
(늙은 사람의 심성은 자주 바뀐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48. 늙은이 잘못하면 노망으로 치고, 젊은이 잘못하면 철 없다 한다
(일을 잘 못하면 나이 든 사람은 노망으로, 젊은 사람은 철없다는 말로 무조건 몰아붙인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49. 늙은이 죽는 생각은 않고, 팔죽 생각만 한다
(늙은 사람 힘드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제 욕심만 채우려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0. 늙은이 지팡이는 방구석에 세워두고 간다
(늙어 죽을 때는 지팡이마저 남겨두고 외롭게 갈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1. 늙은이 학질 떼기보다 어렵다
(어떤 일이 몹시 어렵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2. 늙은이한테는 수영이 있어야 한다
(늙은이는 언행이 유치하고 외양이 께죄죄하여 수영으로나마 위엄을 지켜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3. 늙은이 호박죽에 힘 쓴다
(늙은이가 하찮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쓰려고 한다는 뜻으로, 매우 안타까운 모습을 두고 빗대는 말)
 54. 늙은 장수 쓸데 없다
(명색이 장수라지만 능력이 한계에 달하였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55. 늙을수록 느끼는 건 잔소리뿐이다
(늙으면 대부분 사람이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된다는 뜻)
 56. 늙을수록 돈 욕심은 커진다

- (늙을수록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돈에 더 집착한다는 뜻)
57. 대가리에 소똥도 안 벗겨졌다
(아직 덜 컸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58. 대가리에 피도 안 말랐다
(아직 무척 어리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59. 봄추위하고 늙은이 목숨은 언제 꺼질지 모른다
(봄의 추위는 금방 사그라지듯, 노인의 건강이란 금새 나빠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60. 아이 보채듯 한다
(막무가내로 떼를 쓰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61. 아이와 팽이는 때려야 한다
(아이는 때려서라도 버릇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2. 애들은 자고 나면 예쁜 짓을 하고, 늙은이는 자고 나면 미운 짓을 한다
(애들과는 달리 늙어 하는 짓은 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3. 어린 아이 옛 조르듯 한다
(몹시 떼를 쓰는 사람을 두고 빗대는 말)
64. 어린애 수다한 것
(아무 쓸모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것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65. 어린애 울음은 장사도 못 당한다
(어린아이가 한번 울기 시작하면 쉽게 달래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6. 여든 뒤 닳새 나도 사람질 하기는 글렀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사람 노릇할 가망이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7. 여든에 동둥이
(전혀 나아짐이 없이 행동이 답답하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68. 여든에 이 앓는 소리 한다
(신통치 않은 생각이나 말을 한다는 뜻으로 빗대어 이르는 말)
69. 이 빠진 늙은이 호박나물에 기세한다
(노약한 사람이 하찮은 것에 애를 쓴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0. 일 못하는 늙은이와 쥐 못 잡는 고양이는 집에 있어야 된다
(운신하기 어려운 노인은 집에 있는 것이 최선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71. 젊어서 잘 뛰던 말도 늙으면 못 뛰다

- (아무리 능력이 빼어났다 하더라도 늙으면 쇠퇴하게 마련이라는 뜻)
72. 정신 없는 늙은이 죽은 딸네 집에 간다
(늙게 되면 어이 없는 짓을 하기 쉽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3. 텃줄도 덜 썩었다
(아직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4. 턱 쪼가리에 털도 안 났다
(아직 어린 아이들이라는 뜻으로 빗대는 말)
75. 환갑 지난 기생이다
(너무 늙어 아무 쓸 데가 없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
76. 환갑 지난 늙은이, 망종 지난 보리
(한창 시절은 가고 보잘 것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으로 빗대는 말)